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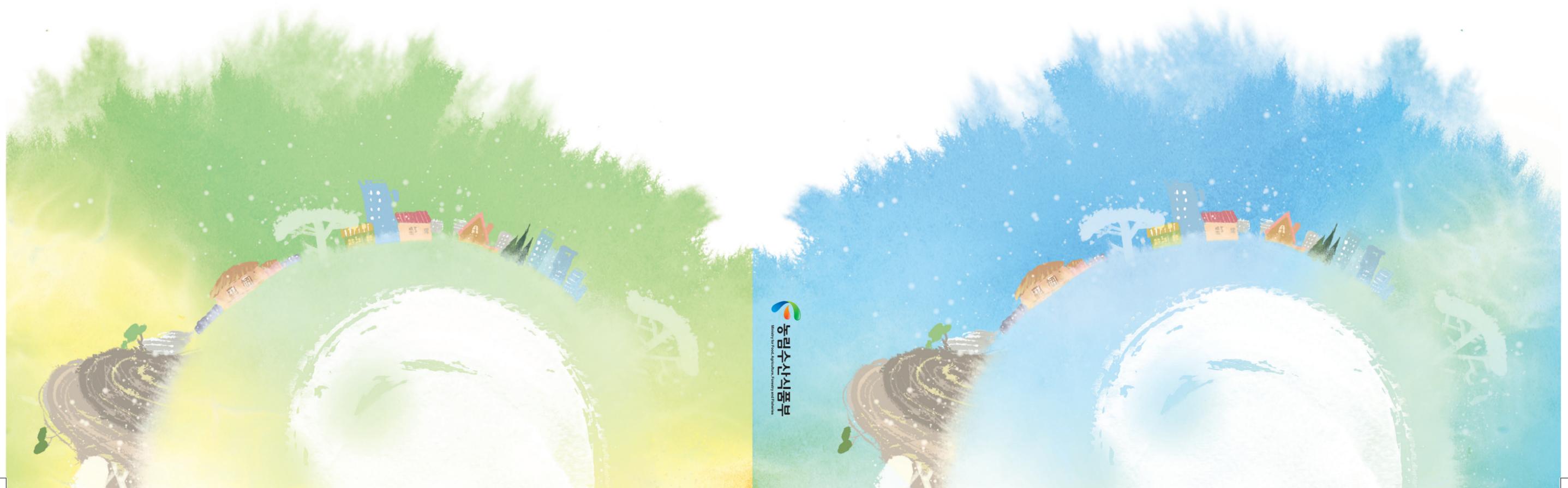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13-14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 3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 3

소득 세심마을, 금계권역, 달고개 모시마을, 와룡마을 **관광** 해버리마을, 바람마을 의아지, 꽃내미풀꽃이랑마을, 덕풍계곡마을, 보릿고개마을
경관 모평마을, 대티골마을, 화동마을, 수하마을, 위안마을 **에너지**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산청민들레마을, 등용마을, 화정마을
문화, 예술, 축제 삼지내마을, 가시리마을, 해살이마을,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사재산마을 두릅축제, 봉수대축제
거버넌스와 역량강화 남포들넬마을, 안덕마을, 개실마을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ontents

소득

한 사람의 땀방울이 마을 공동체의
소득을 키우는 행복

- 01 세심마을 7
- 02 금계권역 13
- 03 달고개 모시마을 19
- 04 와룡마을 27

관광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즐거움을,
마을에는 부자의 꿈을

- 05 해바리마을 35
- 06 바람마을 의야지 43
- 07 꽃내미풀꽃이랑마을 51
- 08 덕풍계곡마을 59
- 09 보릿고개마을 69

경관

볼수록 아름답고,
가꿀수록 자원이 되는 경관의 힘

- 10 모평마을 79
- 11 대티골마을 87
- 12 화동마을 95
- 13 수하마을 101
- 14 위안마을 107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 3

에너지

마을을 발전시키는 에너지,
삶을 풍요로 채우는 가치

15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115

16 산청민들레마을 121

17 등용마을 129

18 화정마을 135

문화, 예술, 축제

오랜 역사와 예술, 축제 속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찾아내다

19 삼지내마을 143

20 가시리마을 151

21 해살이마을 159

22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167

23 사재산마을 두릅축제 173

24 봉수대축제 181

거버넌스와 역량강화

지자체와 마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는 공동 경영

25 남포들녘마을 191

26 안덕마을 197

27 개실마을 203

• 특별기고 209

소득 증대의 디딤돌이 된 전통 문화 유산

세심마을

[전문]

65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세심마을은 옥산서원과 같은 오래된 건축물과 정신적 문화 유산, 그리고 자옥천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다. 그런 면에서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고루 갖추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을 마을 소득 증대의 원천으로 만든 지혜를 배워 본다.

글 | 최진용

햇살이 따가운 가을날 세심마을을 방문했다. 안강 읍내에서 10여 분. 읍내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전형적인 농촌마을 모습을 간직한 세심마을은 자옥산, 도덕산, 그리고 화개산으로 둘러싸여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옥산서원 입구와 옥산1리 표지판, 그리고 ‘세심 팜스테이마을’이라는 표지판을 지나면서 세심마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주시에 속해 있어 그런지 마을의 시설물 대부분 기와지붕을 얹은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역시 높은 기와지붕을 자랑하는 마을회관을 지나 마을 공동운동장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용 위원장과 이소향 사무장을 만나 마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곳은 신라 때부터 옥천(玉川)이라 부르던 곳을 여주(여강) 이씨 회재 이언적 선생이 입거하면서 옥산(玉山)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532년 회재 선생이 고향에 와서 독락당(獨樂堂)이라 불리는 옥산정사(玉山精舍)를 짓고, 다음 해 계정(溪亭)을 지으면서 계정마을, 계정동이라고도 했으나 현재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1리에 속한다. 회재 선생이 독락당에 기거하면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 주변의 산과 경치 좋은 곳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를 사산오대(四山五臺)라 부른다. 사산(四山)은 마을을 둘러싼 산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화개산(동쪽), 자옥산(서쪽), 무학산(남쪽), 도덕산(북쪽)이 이에 해당하며, 오대(五臺)는 옥계천(玉溪川) 주변의 경관이 수려한 곳에 붙인 이름으로 세심대(洗心臺), 관어대(觀漁臺), 탁영대(擢纓臺), 징심대(澄心臺), 영귀대(詠歸臺)를 뜻한다고 한다. 옥산 세심(洗心)마을의 명칭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도(道)의 근본인 마음 닦음을 자연에서 저절로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산오대(四山五臺) 중 하나인 세심대(洗心臺)에서 따왔다고 한다.

전통 문화의 토양 위에서 출발한 체험 사업

세심마을은 옥산1리에 사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5명의 회원 중에서 12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사 한 명을 선임해 회계 관리에도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장 한 명이 사업의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옥산서원과 회재 선생이 생활하던 독락당처럼 유구한 전통 유산이 살아 있는 세심마을이다 보니 체험 사업 역시 자연스럽게 우리네의 전통 문화와 예절, 농촌 생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회재할배 배우기라는 예절 프로그램

이다. 이언적 선생의 삶과 충효 정신, 정신 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독락당에 얽힌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현대인과 외국 관광객,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기본 예절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전통혼례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활쏘기, 투호, 제기 만들기, 떡메치기처럼 직접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기본 체험과 선택 체험으로 구분돼 있어 비용에 맞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비용은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만 원에서 2만5천 원 정도다.

체험 방문객은 2009년 약 5천4백여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2011년에는 1만 명, 그리고 향후에는 3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여 방문객 수를 늘려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체험으로 얻는 소득은 방문객수와 체험 비용으로 산출이 가능하고 여기에 함께 판매하는 농산물 소득을 합치면 한 해 매출이 약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통 문화 체험 외에도 세심마을에는 또 하나 특별한 곳이 있다. 바로 도차체험관이 그곳이다. 비록 개인 시설이긴 하지만 마을체험사업과 연계하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시설과 마을체험사업이 서로 상생하는 또 다른 성공 모델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더 큰 무대로 나설 때

(1) 해외 방문객 유치에 위한 노력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이 주 방문객이었지만 이런 추세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천년 도읍 경주가 지닌 관광지로서의 이점을 적극 활용, 한국 문화와 예절을 체험하고 싶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에는 일본 오사카 부립 쿠니지마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약 300여 명의 방문에 대비해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해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주의 시티투어 같은 여행사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체험 비용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경주 지역은 여행사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및 일일투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외국인이 많이 다녀가는 지역이니 만큼 이런 여행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방문객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단,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개별 관광이나 가족 관광으로 한국을 다시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추가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상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험 후에는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문객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비수기에도 꾸준히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세심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체험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2)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문객 다각화와 법인화 작업

세심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수려한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자옥산과 도덕산에는 매년 줄잡아 수십만 명의 등산객이 다녀간다고 한다. 세심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등산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저잣마당을 만들어 특산물과 전통음식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등산객 방문이 향후 체험 방문객 유치로 연결되어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안을 마련 중이다.

세심마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후에는 보다 활발한 체험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심권역은 현재 체험사업을 하고 있는 옥산1리를 포함해 옥산 2~5리 등을 포함함 6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된다. 앞서 등산객 유치를 위한 저잣마당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필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세심마을에는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회 꿀밤축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 농촌마을개발사업이 세심마을의 체험사업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짐작케 했다.

무엇보다 세심마을의 체험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한데, 2011년 안에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마치기 위해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법인회원 참여를 확실하게 하고 회계와 이익 배당에 있어 보다 투명한 체계를 갖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와 꼼꼼한 의견 반영

세심마을의 체험사업은 정신적 전통유산과 보물급의 문화재를 발굴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잘 연계시켜 마을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한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물론 지금까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사체험 프로그램의 중단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마을 주민간의 갈등 같은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런 문제점들도 하나 둘 해결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화, 프로그램의 다각화 그리고 해외 방문객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 방문객의 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세심마을은 세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소득 사업으로 연계시킨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심권역은 경주라고 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를 배후로 갖고 있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체험객을 유치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를 장기적인 발전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와 체험객의 만족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심마을 따라하기>

1. 마을에 내려온 오랜 문화유산을 체험 프로그램의 아이টে으로 활용, 대외적으로 그 가치를 알리고 소득 증대로도 연계시킨다.
(예:회재할배 배우기, 전통혼례 프로그램 등)
2. 국내 방문객뿐 아니라 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예:일본 오사카 부립 쿠니지마 고등학교 수학 여행단 방문)
3. 국내 방문객 층을 넓히기 위한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예:저잣마당)

4.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예:법인화, 회계와 이익 배당의 투명성 확보)

준비된 친환경 농업을 뿌리로 한 새 활로 찾기

금계권역

25년 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일구어 온 일곱 마을. 이들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익혀 온 친환경 농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누룽지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마을에 새로운 소득 창출을 실현시켰다. 이른바 금계권역이라 불리는 일곱 마을 주민들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사업 추진을 통해 이제 어느 곳보다 활기와 에너지 넘치는 마을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일곱 빛깔 무지개가 기다리는 더 희망찬 미래를 향해.

글 | 최진용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20여 분 남짓.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손님을 맞고 있었고, 곧 권역의 중심 마을인 공근리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인터넷에서 본 누룽지 공장이 저만치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금계문 화교류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금계권역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를 중심으로 한 일곱 개 농촌 마을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마을 특색을 잘 살리자는 취지로 일곱 색깔 무지개를 마을의 브랜드로 했다는 것이 이곳에서 만난 추진 위원장의 설명이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친환경 농업에서 새 희망을 찾다

(1) 새로운 판로를 열어 준 친환경 누룽지

무지개를 상징하는 브랜드 로고처럼 각각 색이 다른 일곱 마을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친환경 농업이었다. 이 권역의 친환경 농업은 자못 역사가 깊다. 약 25년 전, 농사가 비료와 농약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몇몇 뜻있는 농민 운동가들이 주민을 설득해 시작한 친환경 농업은 이후로 이 마을의 생업이자 주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이제 또 다른 소득 창출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됐다. 오랜 세월 전에 시도된 노력이 지금의 소득 자원이 된 것이다. 물론 시작할 때는 여러 반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친환경 인증이 시작된 이래로 2004년 57헥타르였던 면적이 현재는 127헥타르에 이르게 됐다. 산촌 지역인 횡성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면적임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이어 온 친환경 벼농사로 탄탄한 사업 기반이 마련된 금계권역은 친환경 농업으로 관계를 갖고 있던 한살림생협의 추천과 협의 과정을 거쳐 누룽지 사업에 발을 들여 놓게 됐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농산물 가공을 통해 생기는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융합을 의미했다. 누룽지 가공공장을 통해 일자리가 생겼고, 쌀을 판매할 때보다 가공품을 판매하는 쪽이 수익 창출에 좀 더 유리했다. 누룽지 사업을 시작하자 공장의 설립과 생산품의 품질 관리 및 판매를 위한 유통망 확보, 그리고 공장의 경영 등이 다음으로 풀어야 할 숙제였다. 다행히 새 농어촌건설운동에 지원해 받은 5억 원이 공장 설립을 위한 종자돈 노릇을 했고 이 사업에 참여한 60명의 주민이 100만 원씩 출자함으로써 공장 건립이 현실화됐다.

(2) 한살림생협과의 인연, 그리고 경영의 힘

품질 관리와 판매는 한살림생협에서 도와주었다. 생산한 누룽지의 95%를 한살림생협에 납품함으로써 자동으로 판매망이 확보된 것이다. 1년에 약 60여 톤의 친환경 쌀을 누룽지로 가공하는데, 이를 포장된 완제품으로 치면 그 양이 만만치 않았다. 이 정도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살림생협이라는 판매망이 있어 가능했던 일. 긴 세월 동안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맺어 온 한살림생협과의 특별한 인연 덕분이었다.

한살림생협에 납품하기 위해 품질 관리에도 역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방문자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히 출입할 시에는 위생 커버를 신발에 신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품질이나 위생 상태에 하자가 생길 경우 한살림생협으로부터 바로 반품 신청이 들어오고 이는 제품의 신뢰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다.

다음 문제는 경영이었다. 2010년 5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2011년 11월 현재 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누룽지 공장은 보다 투명한 수입·지출과 이익 배당을 위해 여섯 명의 이사를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삶의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활기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계권역의 누룽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장기간 숙성된 잠재력이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5년 동안 지속해 온 친환경 농산물 생산, 판로를 만들어준 한살림생협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 그리고 이 두 가지 강점을 활용한 친환경 누룽지 사업 선정과 개발까지. 이는 분명 주민들의 합심과 투명한 리더십이 이뤄낸 성공 사례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마을의 도전과 성과

(1) 또 다른 2차 소득원이 될 배추절임사업

누룽지 가공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경험은 또 다른 농산물 가공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으며,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금계권역에서 기대를 갖고 추진 중인 또 다른 소득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통해 지역에서 재배된 배추를 절여서 판매하는 배추절임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배추 가공 공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수권역 선정으로 받은 인센티브 5억 원에 마을 자체적인 자부담으로 1억 원을 보태 총 6억 원의 자본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자부담은 현재 설립돼 있는 삼배영농조합(삼배리)과 금계영농조합이 각각 25%를 출자하고 개인 7명이 나머지 50%를 출자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판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1사1촌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텔 인터콘티넨탈, 신한카드, 한국공항공사, 횡성축협, 서울시 금천구청 등을 통해 판로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매결연 회사들에만 배추를 공급해도 공장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2) 체험 사업으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마을의 활력

금계권역에는 친환경 농업의 산실답게 폐교를 이용해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꿈꾸는 품당이 체험 교실이 있다. 체험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체험객 유치까지 경영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 만큼 2년 전부터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직영 체제

를 갖추는 것이 좋긴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많아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것이 위원장의 설명. 공근리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 기업 체제로 운영되는데, 식사 제공 및 농산물 판매 수익과 임대 수입 등을 통해 2차적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임대 수입이나 농산물 판매 같은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많은 체험객이 다녀감으로써 얻는 간접적인 마을의 홍보 효과도 중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친환경 농산물과 생산품의 수요가 증대되는 것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녀노소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가고 체험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마을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 체험 사업으로 얻는 더 큰 이득이라고 하겠다.

친환경 농업에 의한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농산물 판매. 즉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의 조합이 이루어 낸 금계권역의 소득 창출 구조는 매우 이상적이다. 이는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일구어 온 친환경 농업이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소득을 마을에 선사한 아이디어도 좋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만든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신뢰의 리더십이 알찬 소득 구조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곱 빛깔 무지개로 빛나는 마을의 미래

농산물 생산의 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친환경 농업의 특성상 사업화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으로 인해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묵묵히 일구어 온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2차, 3차 산업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낸 금계권역을 살펴보면 역시 탄탄한 소득 기반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현재 가구당 평균 소득이 약 3천5백여만 원을 상회한다는 금계권역은 자연스럽게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소득 사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 분위기와 농촌다움을 지켜 가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에 이미 이곳을 방문해 본 여러 가구가 마을로 이주하여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소득 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아가는 마을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위원장. 금계권역의 미래는 이렇듯 탄탄한 소득 기반을 근간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과 리더의 관계, 그리고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컨셉트가 더해져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일곱 빛깔 무지개로 빛나고 있다.

금계권역 따라하기

1. 마을 주민들이 가장 친숙하고 잘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다.
(예:친환경 농업에 기반한 친환경 누룽지 사업)
2.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 오며 다져 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한다.
(예:한살림생협을 통한 판매망 확보)
3.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결합시킨 입체적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낸다.
(예: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농산물 판매)
4. 경제적인 소득과 함께 마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예: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객 유치, 대외적 마을 홍보)

1년 365일 행복한 일터

달고개 모시마을

[전문]

농촌마을은 노인들만 사는 따분하고 심심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 같다. 절반 이상을 노령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서천 달고개 모시마을은 효율적인 단계별 도농교류 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으로 1년 365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마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모시송편사업 덕분에 신바람 나는 실버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

글 | 서정민

달고개 모시마을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옆으로는 금강을 끼고 있으며,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군산, 장항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한산모시로 유명한 서천군 한산면과 5분 거리에 있으며, 2000년 국내 개봉되어 전국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던 흥행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두 남자주인공 이병헌과 송강호가 만나는 배경 장소가 됐던 신성리 갈대밭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남원 양씨 집성촌이기도 한 달고개는 총 56호의 마을가구 중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로만 구성된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 대부분은 여느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노부부 또는 홀로 생활하는 노령 단독 가구가 많다.

마을의 내일을 위한 작은 도전의 시작

(1) 마을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

전형적인 수도작 지대인 달고개 모시마을은 원래 벼농사 이외에 내 놓을 만한 경제작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쌀값이 하락하면서 주민 소득은 줄고 벌이가 마땅치 않아진 마을은 당연히 활기를 잃어 갈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싹든 졸든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2005년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몇몇 주민이 의기투합하여 마을가꾸기사업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마을의 활기를 되찾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현실적 선택이었다. 사업추진단은 마을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단계적 실천에 착수했고, 1단계로 생각해낸 것이 벼농사를 대신할 대체 작물의 개발이었다. 무엇보다 농업 생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수도작 중심의 생산 구조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 다음 2단계로 추진한 것이 도농교류사업이었고, 3단계에서는 지역 농업 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사업에 도전했다.

마을의 중장기 비전과 단계적 실천 과제는 마련했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주민간의 신뢰와 화합이었다. 주민 화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과제를 하나씩 추진

해 나가고자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이 ‘마을공동생일잔치’. 도시에 사는 자녀들은 주말에나 다녀가고 정작 생일날은 쓸쓸하게 홀로 보내야 하는 마을 노인들의 생일을 마을잔치로 꾸며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처럼 만든 것이다. 사업추진단이 구성된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마을공동생일잔치는 현재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 사업추진단은 겨울철 주민공동점심식사, 공동장례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서로가 함께 나누고 발전해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갔다.

(2) 드디어 도농교류의 첫 발을 떼다

마을공동생일잔치나 주민공동점심식사, 공동장례 등은 소소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돼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업추진단의 공동체활성화사업은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들이 마련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 2005년 마을가꾸기사업추진단을 꾸려 마을공동소득사업을 계획한 지 1년 만인 2006년, 달고개 모시마을은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장차 도농교류의 장이 될 전통테마관이 마련됐고, 이곳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마을회관 같은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모시짜기 체험, 천연염색체험, 향토음식만들기체험(한과, 소곡주, 모시송편, 모시차 등), 벚짚·모시공예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운영하면서 바야흐로 도농교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2008년에는 수도작에만 의존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우리밀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농한기에도 할 수 있는 우리밀 재배로 주민들은 더 이상 겨울철을 할 일 없이 시간 낭비하듯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밀 수확철인 5~6월에는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밀서리축제도 개최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판로는 (주)우리밀에서 전량 수매하기로 약속하고, 1사1촌 자매결연까지 맺어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우리밀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 마을의 비전을 새로 밝혀 준 전통 먹을거리, 모시송편

도농교류와 우리밀 재배가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단에서는 마을중장기발전계획의 3단계인 가공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다. 사업추진단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어머니들이 예전부터 빚어 먹던 모시송편을 생각해 냈다. 모시의 고장 한산면과 인접해 있어 모시잎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절미나 절편처럼 어느 마을에서나 만들 수 있는 떡이 아니라는 점이 선택의 이유였다.

2010년 사업추진단은 모시송편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이에 동의한 것은 고작 일곱 농가뿐이었다. 이들 일곱 농가를 묶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 사업추진단은 농가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사업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모시송편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모시송편으로 유명한 영광 모시송편마을에 견학도 다녀오고, 서천 관내 모시송편을 만드는 어머니들의 자문도 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쌀과 모시잎의 최적 배합 비율, 간을 하기 위해 넣는 소금의 양, 그리고 모시송편에 가장 적합한 소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채 고민과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드디어 표준 레시피를 완성하게 됐고 이는 다른 도움 없이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낸 레시피이기에 더욱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2011년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달고개 모시마을의 모시송편을 맛봤던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모시송편 판매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떡 판매를 시작하면서 당초 8천만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 것이 9월 추석 대목을 전후해 목표치를 훌쩍 넘겼다. 추석 전 2주 동안만 1천여만 원의 송편을 팔아 마을 주민들은 더욱 신바람이 났다. 모두가 놀랄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너도나도 모시송편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자 사업추진단은 주민회의를 열어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사업에 주민들이 순번제로 참여하여 소득을 고르게 배분하고 소득의 일정액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만들었으며, 주민들도 이에 동의했다.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순수익의 5%를 서천군장학회에 기부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하기로 한 것. 또한 올해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배추를 생산하여 이를 이용한 절임배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생산한 배추의 3분의 1은 지역의 복지시설에 기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심은 9천 포기의 배추 가운데 3천 포기는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요양 시설 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가롭던 마을에 찾아온 활기찬 희망

(1) 모시송편사업에 날개를 달아 준 행정지원

달고개 모시마을의 모시송편이 입소문을 타고 서천군에 알려지면서 행정 당국에서도 뒤늦게나마 지원에 나섰다. 향토음식 전문가를 투입하여 레시피 제작을 돕도록 한 것. 주민들은 반죽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모시잎 비율이라든가 송편 냉동 시 주의해야 할 점 등 남아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갔다. 이 밖에 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산모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포장재 개발과 제품 홍보를 지원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은 제품 홍보를 고민하고 있던 달고개 모시마을 주민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업추진단은 주민들 스스로 지원을 받을 준비가 된 이후 행정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원만 받는다면 시행착오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덜컥 받았다가 주민 간에 불화만 생긴 마을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아온 것도 큰 이유였다.

(2) 즐겁게 일하며 돈도 버는 신나는 마을

모시송편 판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처음 가공사업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참여를 희망했다. 1년 간 모시송편 개발을 위해 노력한 일곱 농가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었지만 애초부터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기에 사업추진단이 나서 일곱 농가를 설득했다. 덕분에 희망하는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단, 참여 농가 모두가 1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를 표하도록 했다. 이로써 마을의 50여 가구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20여 가구가 10만 원씩 출자하여 2011년 9월부터 총 34가구가 참여하는 모시마을 **가공사업체**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모시송편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시마을에 달라진 점이 있다. 모내기와 추수를 제외하고는 한가롭게 지내던 마을 어른들, 특히 어머니들의 일손이 바빠졌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모여 모시송편을 빚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업장에 모여 송편을 빚으며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한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주민들 간에 소중한 소통의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예전 같으면 집에서 텔레비전에 의존해 쓸쓸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던 노인들. 매 끼니 때마다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고역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여럿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즐거운 밥상을 나눈다. 달고개 모시마을 주민들은 돈 버는 재미를 넘어 사는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에 무엇보다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남아 있는 숙제, 그리고 또 다른 도전

불과 2년이 채 안 된 짧은 기간에 모시송편이 달고개 모시마을의 주요한 주민소득사업으로 자리 잡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달고개 모시마을 주민들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사업추진단의 구상대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의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모시송편의 생산과 배달, 직판장 운영 등 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적절히 업무를 나눠 주고 그에 맞게 소득을 배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레시피의 표준화 작업도 걸림돌이다. 얼마 전 모시송편을 만들면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모시송편 레시피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오던 어머니가 작업장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 입원을 하게 된 것이다. 떡 주문은 밀려들었지만 남은 어머니들끼리 1년 동안 모시송편을 빚어 오며 채득했던 노하우만으로 며칠 간 별 문제없이 떡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결국 며칠을 못 버티고 사고가 나고 말았다. 반죽할 때 사용하는 굵은 소금이 떨어졌는데, 떡을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대로 집에 있는 맛소금으로 간을 맞춘 것이다. 기어이 모시송편을 주문한 소비자로부터 송편이 짜다는 항의 전화를 받게 됐고 그제야 간이 제대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던 사례였다.

또 한 가지 숙제는 여러 어머니가 송편을 빚어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다 보니 판매 중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량과 크기,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결국 사업추진단에서는 항상 일정한 품질의 모시송편을 생산하기 위해 표준 레시피와 동일한 재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송편 성형기를 구입하여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모시송편을 만들도록 하였다.

달고개 모시마을이 주민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7년.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행보가 이제 하나씩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달고개 모시마을의 도전은 미완성이고 지금도 그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달고개 모시마을 따라하기

1. 마을의 장기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 실천 과제를 마련한다.

1단계 : 수도작 중심의 생산활동에서 탈피하여 농외소득 증대 방안 모색, 도농교류사업 추진

2단계 : 우리밀 생산 등 생산 구조의 변화 추진

3단계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가공사업 추진(모시송편, 절임배추 등)

2. 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예:마을생일잔치)

3.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한다.

(예:1년간 주민 스스로 모시송편을 만들어 레시피 완성)

4. 마을 주민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주민 간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7농가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34가구 모두 수용하여 마을 사업으로 추진)

5.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조금이라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도움을 받는 지역 주민 모두 경제적 이익 이외에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갖도록 노력한다.

(예:순수익의 5%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 지역의 복지시설에 김장김치 제공)

지산지공(地產地工)을 실천하는 와룡마을

[전문]

‘지산지공(地產地工)’ 전략을 10여 년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신와룡마을(이하 와룡마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產地消)’는 이미 잘 알려진 말이지만, 지산지공은 모두에게 생소한 용어이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모두 가공해 판매한다는 의미로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 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사업이 아닌, 10여 년 동안 묵묵히 그 저력을 보여 주고 있는 곳, 바로 와룡마을이다.

글 | 서정민

전라북도 용담면에 위치한 와룡마을은 1996년 용담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된 와룡마을 주민 일부가 이주해 새롭게 조성한 마을이라 하여 ‘신와룡마을’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수몰 전 와룡마을은 65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을이 수몰되면서 주민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외지로 이주했고 고향을 차마 떠나지 못한 11가구가 남아 지금의 와룡마을을 구성하게 됐다. 와룡마을이 조성된 이후 귀농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현재는 23가구, 48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됐다.

마을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발전 전략

(1) 주민간의 결속 위에 세워진 마을발전계획

용담댐 인근 산촌에 터를 잡은 와룡마을의 경지 면적은 논이 23헥타르, 밭이 2헥타르, 임야가 6헥타르로 총 29헥타르에 불과했다. 30헥타르도 안 되는 농경지에 의존해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만 했다. 진안이라는 작은 지역에 주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만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수몰로 고향을 잃은 아픔을 함께 겪은 이웃들뿐이었다.

와룡마을 주민들은 마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농사를 짓기 위해 힘을 합쳐 임야를 개간하여 밭을 일구고 마을회관을 지었으며, 마을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간의 결속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렇게 주민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완성될 즈음인 2003년,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으뜸마을가꾸기 대상 지구로 와룡마을이 선정됐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 간의 화합과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와룡마을은 이를 계기로 마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게 된다. 남다른 아픈 역사가 만들어 낸 주민간의 결속과 단결력이 마을 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 셈이다.

와룡마을은 마을 주민 수가 많지 않아 다른 곳에 비해 주민 간의 단합이 잘되는 편이었지

만,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다. 주민마다 마을 발전에 대한 생각이 나 비전도 달랐고,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그때마다 와룡마을은 주민 회의를 열었다. 주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하고, 다른 주민과 자신의 입장이 왜, 어떻게 다른지 경청하도록 했다. 주민회의를 통해 답을 찾지 못해도 상관 없었다. 와룡 마을에서 주민회의는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대안적 소통이었기 때문이다.

(2) 준비된 마을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와룡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러 애쓰지 않았다. 마을 형편에 맞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부러 하나씩 실천했고,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덧붙여 마을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수몰 직후 현재의 터전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회관을 짓고 척박한 농업 생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도농교류사업도 시작했다. 물론 숙박시설 부족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미숙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외부에 의존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었다.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정부 지원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와룡마을 주민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와룡마을은 1996년 마을이 조성된 이후 처음으로 2003년이 돼서야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지구로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마을 정비도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고,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섰기 때문이다. 또한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는 마을 여건에 맞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 보조사업과는 달랐다. 이를 계기로 와룡마을은 마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뒤이어 2008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에서 필요로 했던 체험장 겸 단체 숙박 시설을 마련했다.

지산지공(地產地工)을 실천하다!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사업 전략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경지에서 농업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주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웠던 와룡마을. 그래서 택한 것이 고부가가치 창출이었다. 이를 위해 다품목 소량 생산을 지향하고 마을에서 생산한 모든 농특산물을 가공 판매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생산 품목의 특성상 시장 유통을 통한 일반기업과의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마을을 찾게 하여 직거래를 실현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와룡마을의 지산지공 전략이다.

와룡마을의 가공 사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실 마을로 이주한 후 임야를 개간해 여러 가지 농작물을 경작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아 시장에 출하해 봤자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와룡마을 주민들의 숙제가 됐고 가공 판매 사업에서 그 해법을 찾은 것이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참깨, 들깨로 참기름, 들기름을 짜는 것은 기본. 마을 임야에 산초나무를

심어 산초 기름을 생산함으로써 와룡마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특화시켰다. 홍삼의 원조답게 인삼을 재배해 홍삼즙을 추출하고 마을의 솜씨 좋은 어머니들이 모여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도 담았다. 또한 각종 장아찌 등 절임류까지 만들어 마을에서 생산하는 가공품만 10여 가지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 산에서 채취한 각종 나물과 버섯 등을 말려 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공 제품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했다.

(2) 와룡에 별 보러 온 도시 사람들이 판로가 된 사연

와룡마을의 가공 사업이 본격화되고 생산 품목이 하나 둘씩 증가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판로를 걱정하게 됐다. 시장을 통한 대량 유통도 힘들고 대도시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와룡마을 주민들은 도시민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많은 회의와 고민 끝에 농촌 마을에서 도시민, 특히 도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학습적 효과까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다. 바로 별자리 체험이 그것이다.

2006년, 와룡마을은 지자체 보조 4천7백만 원, 자부담 1천5백만 원 총 6천2백만 원을 투자해 마을 천문대를 건립했다. 마을회관 옥상 공터에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고 양철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좋은마을 천문대가 완성된 것이다. 와룡마을의 천문대는 도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었다. 와룡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들은 별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했고, 천문대를 통해 별자리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재미와 감동을 잊지 못해 와룡마을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와룡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는 모두 현지식이 제공된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각종 산나물과 버섯, 김치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만든 재료들로 식사를 마련했고 이는 곧 지산지공 전략의 실현이었다. 와룡마을에서 음식을 맛 본 도시 소비자 특히 주부들은 “이 된장 여기서 만든 거냐? 이 고추장, 간장도 살 수 있냐? 이 나물은 왜 이렇게 부드럽냐?”라며 대부분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

와룡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 가운데 절반가량은 마을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구입해 가며, 도시로 돌아간 뒤 택배로 주문을 하기도 한다. 와룡마을에서 체험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단순히 한 끼의 식사만이 아닌, 중요한 판로 개척의 방안이라는 더 큰 의미를 부여 받는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와룡마을 주민들이 계획했던 지산지공이 현실화되는 과정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3) 합리적인 소득의 공동 분배

와룡마을은 매년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총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배분한다. 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 모두에게 공동 배분한다는 것을 이미 주민 동의를 거쳐 마을 규약에 명문화했다. 마을 소득이 오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인 2006~2007년경에는 가구당 400만 원 가량 배분됐던 것이 현재는 2배 이상 증가해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마을 수익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를 구입해야 할 경우 수익 배분 과정에서 적립금을 따로 빼 조성하기 때문에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었다.

와룡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인데, 와룡마을은 더더욱 일손이 부족한 편이다. 마을 주민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누구 한 명이 병이라도 나면 당장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을로 함께 이주해 온 주민들은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워낙 마을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늘어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와룡마을이 10여 년 이상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간의 결속과 상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갈 와룡의 새로운 주민이 더 필요한 상황.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는 것이 싫은 일은 아니지만, 와룡마을 주민들은 여느 마을처럼 여기저기 유명세를 타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그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민들끼리 하루하루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통해 마을의 삶이 조금씩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겉모습만 요란한 와룡마을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고 오랫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와룡마을 따라하기

1. 마을의 장기발전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다.

1단계:마을 발전 기반 조성 / 2단계:경제 활성화 / 3단계 : 지속 가능한 마을 모델 만들기

2.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예:주민회의, 주민회의는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한 것이다)

3. 마을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을 모색한다.

(예:마을 농특산물의 가공식품화 추진)

4. 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는 100% 현지식 식사를 제공한다.

(예:마을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

5. 밖으로 내세우기 위한 화려한 사업보다는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

(예:정부 보조사업 등 외부 지원은 구체적인 용도와 사업계획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아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

관광

바다체험 일번지

해바리마을

[전문]

단순 관광에서 체험형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휴가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해바리마을은 이러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로 성공한 대표적 마을이다. 마을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해바리 체험을 비롯해 여러 체험 상품을 마련했고, 다채로운 재미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조용한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경에 흥미로운 체험을 입힌 해바리마을로의 초대.

글 | 강신경

마을개요

위치 경북 남해군 창선면 신흥마을

인구 총 160명

가구 100여 가구

홈페이지 <http://heabafi.go2vil.org>

연락처 양명용 이장 010-3867-4884

삼천포에서 남해군으로 진입하자마자 만나는 창선면에서 남해 본섬과 연결되는 창선교를 지나기 직전, 우회전해 왼쪽으로 지족해협을 끼고 약 2.5km만 가면 해바리마을이 나온다. 창선면은 지금은 남해와 삼천포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창선도(昌善島)라는 섬이었다. 해바리마을은 이 창선도 서쪽 바닷가에 자리한 전형적인 반농반어형(半農半漁型) 마을이다. 해바리마을의 행정 주소는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신흥마을로, 정식 이름은 신흥마을이지만 최근 외지인들에게는 '해바리마을'로 불린다. 해바리란 이름은 한밤중 썰물 때 햇불을 들고 나가 게와 낙지, 바지락 등을 잡아내는 이 마을의 전통 어로방식인 '해바리'에서 비롯된 말로, '해'는 햇불을, '바리'는 남해에서 굴이나 조개 등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어로방식에서 '해바리'라는 단어를 차용해 마을 이름을 지었지만 지역민과 경상도민이 '해'자 발음이 잘 안 되는 탓에, 부르기가 좋고 마을 브랜드로 사용하기 쉬운 '해바리'로 부르고 있다. 더불어 해바리마을은 '해'변에서, '바'다에서, '리(마을)'에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을 가진 동네'라는 뜻도 지닌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무한 변신

1) 체험 마을로의 변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해바리마을은 100여 가구 160명의 주민들이 마늘, 고사리, 잡곡, 벼농사 등을 지으며 사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바다와 인접해 전어와 낚지, 꾸꾸미, 바지락, 꼬막 등 고기잡이와 어패류를 채취하며 생활을 유지해왔다. 남해의 특산물인 **유자를 처음으로 재배할 한때** 유자마을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농지가 부족하다보니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이내 나이 든 사람들만이 이곳을 지키게 되었다. 그런 조용한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하는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되면서 부터다. 이때부터 이곳은 체험마을로 변신하게 되었고, 해바리마을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2)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 끌어안기

체험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해바리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마을의 지형과 전통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 고민의 끝에 여러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를 모은 것은 마을의 전통을 담은 해바리 체험이다. 해가 지고 썰물이 되면 햇불을 밝혀두고 갯벌에 나가 직접 낙지와 게, 조개 등을 잡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맛, 흥미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바리마을은 물때에 맞춰 3월 말부터 6월까지, 10월에서 11월까지 봄과 가을에 격주로 해바리 축제를 개최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1일 어부가 되어 배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기잡이에 도전해보는 선상체험도 이곳의 효자 상품이다. 죽방렴 열치잡이를 가까이에서 관람하거나, 청정해역 남해의 푸른 바다에서 직접 낚아 올린 신선한 생선회를 맛보는 색다른 경험은 도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물 빠진 갯벌에서는 바지락과 조개를 캐고 **고동**을 잡거나 굴(석화)을 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바리마을은 남해군에서 유자를 처음으로 재배한 역사성을 살려 유자 따기, 유자청 담기, 핸드메이드 유자비누 만들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해바리체험이나 갯벌생태체험와 달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 단골 체험메뉴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마늘 파종, 마늘쫑 뽑기, 마늘 수확, 고구마 심기와 수확, 고사리와 나물 캐기 등의 계절별 농사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약1ha의 잘 가꾸어진 마을 뒤편 편백휴양림에서 느긋하게 삼림욕을 하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해바리마을의 낙조를 감상하거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도 있다. 이때 마을이장이 주관하는 보물찾기 순서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유자청 등 해바리마을의 특산품을 경품으로 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밤에는 마을주민들이 귀신으로 등장하는 담력 테스트와 극기 훈련, 밤마실가기 체험도 있다. 밤마실가기 프로그램은 마을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창선-삼천포대교의 야경과 바다 건너 삼천포 시내 야경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3)정감어린 민박도 상품이다

해바리마을은 이런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덕분에 연간 약 1만 명의 도시민이 찾고 있다. 이 중 약 75%가 1박2일 체류형 방문객으로 숙박을 한다. 야간 체험프로그램과 내 집처럼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민박 덕분이다. 민박은 20호에 56실을 갖추고 있으며 27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꼬마네 집', '좋은 집', '덩실한 집' 등 친근한 이름을 달고 있는 민박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마을사람들의 푸근한 인정을 듬뿍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가운데 10농가는 농진청의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노후된 농촌주택을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을 살린 현대적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해바리마을은 1박을 하는 방문객에게 보통 마을회관에서 첫날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조식과 석식은 민박집에서 주고 있다. 마을 단체식사는 지난해 전국 농촌전통테마마을 식단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김숙선(52)씨에 의한 마련된 해물된장국과 다채로운 반찬이 열 가지 이상 준비된다. 생선 미역국과 완두콩 칼국수, 유자 주스 등 마을고유의 먹거리는 도시민을 다시 찾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참가비용은 1박 3식, 3가지 체험기준으로 성인 4만3000원 아동 4만원이며, 1박 3식, 4가지 체험일 경우에는 성인 5만8000원 아동 5만원으로 패키지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득과 화합의 반비례 공식 깨기

1)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가져온 조화

하지만 체험프로그램의 성공이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소득이 증가하자 주민 간 불협 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관광객을 자신의 민박집과 선상프로그램으로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물밑 경쟁이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양명용 이장은 마을 전체의 화합과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이른바 ‘하나 팔고 하나 버리기 운동’인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펼쳤다. 방문객이 마을을 다시 찾고 농특산물까지 기꺼이 구매할 수 있도록 3感(감탄·감명·감동)을 느끼는 서비스를 팔고, 테마마을 전체의 화합과 조화로운 운영을 깨는 일이 없도록 과욕을 버리자는 운동이었다.

우선 25호의 민박농가에게 순번을 정해 손님을 받되 손님이 특정 민박집을 지정할 경우 우선권을 줘 서비스 경쟁을 유도했다. 고기잡이배를 가진 15호의 선상 체험프로그램 참여 어가 역시 마찬가지다. 마을 청년회는 캠프파이어와 천막 설치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부녀회는 조리교육을 받은 10여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맛깔스런 단체식사를 준비하며, 노인회는 구수한 입담으로 갯벌생태체험의 재미를 돋우도록 했다. 이밖에 기관단체 전문가와 출향인사들을 자문위원과 홍보위원으로 대거 위촉해 측면지원을 이끌어냈다. 120ha의 바지락밭은 10구간으로 나뉘 4구간을 체험장으로 활용하는데,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관리해 체험객이 언제 와도 바지락이 풍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주민 소득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각종 경비를 충당하면서 정기적으로 내왔던 마을기금을 없앴다. 또한 체험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에게도 연간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간접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모든 체험사업은 전표를 끊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와 체험객간 시비를 없애고, 수입과 지출은 전산회계프로그램에 기록해 누구나 언제든지 마을체험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했다.

2) 100% 주민 참여 유도가 만들어 낸 아름다운 성적

전국에서 많은 마을이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예산을 투자했지만 아직 성과가 미미한 마을이 많다. 가장 큰 이유가 동네 사람끼리 수시로 벌이는 시비와 갈등이다. 한 동네에서도 힘을 합치지 못하니 변변한 프로그램 하나 꾸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바리마을은 주민 160명 전원이 100%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비결은 이렇다. “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은 절반도 안 돼요. 딱히 할 일이 없는 동네 어르신이 훨씬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따로 부탁을 해요. 동네에서 손님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시라고. 손도 흔들어주고 웃으며 ‘어디서 왔어?’ ‘고놈, 참 푹푹하게 생겼네’ 식으로 한마디만 붙이시라고. 이게 그분들에게는 마을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연말에 수익 나눌 때 어르신들에게 수고비를 드려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나도 마을에 도움이 되는 구나’라며 좋아하시고, 손님들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할 마을이 있나’라며 고마워해요.” 양명용 이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해바리마을은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으로 2006년 2억5천여만 원에 이어 2009년 약3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게 됐다. 이제 해바리마을의 연매출은 5억 원을 웃돈다. 이는 특산품 판매수익은 뺀 액수다. 해바리마을 세대수가 100호니까 세대마다 연 5백만 원이상 농외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앞으로는 주 소득원인 유자를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해 특산품 판로를 보다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해수욕장을 복원해 1박2일에서 2박3일로 체류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해바리마을이 농어촌의 미래를 말하다

도시인이 휴가 때 시골 마을에 가는 이유는 향수 때문이다. 삭막한 아파트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농촌다움을 느끼기 위해 여러 불편과 수고를 감내하고 찾아간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맞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남해안의 작은 마을은 꿰뚫고 있었다. 연간 방문객을 1만 명 정

도로 제한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친절한 서비스로 이들을 맞았고, 이러한 마음이 통했는지 해바리마을은 재방문율이 40%를 웃돈다. 전국 농어촌체험마을의 평균 재방문율이 10%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해바리마을의 양명용이장은 “도시민들의 여가는 놀이에서 체험으로 다시 편안히 쉬는 휴양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만의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찬·반 주민들을 꼭 참여시켜야 하며, 운영할 때는 리더가 주민과 합심하여 사업을 일궈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2011년 여름 휴가를 앞두고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내 여름 휴가지를 소개하면서 꼭 짚어 ‘해바리마을’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2004년 농촌진흥청 지정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된 이후 해바리마을은 2009년 11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제8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 체험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마을을 이끌어 왔던 양명용 이장도 농촌 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해바리마을 홈페이지 구축, 마을 운영체계 구축 등 농촌관광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1년 4월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도농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협중앙회장상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해바리마을은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대한민국 대표 체험마을에 걸맞게 앞으로 단체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수기능을 갖춘 마을 체험관을 새로 마련하고 마을경영을 이어갈 인재를 키우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남해군내 11개 체험마을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순회축제 등을 통해 관광자원개발모델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바리마을은 농촌체험과 휴양 기반여건, 프로그램운영 및 고객관리, 친환경 농업실천, 체험마을 운영효과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마을의 자원에 체험을 덧붙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소득과 보람을 만들어가는 해바리 마을에서 우리 농촌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캡션>

- 1 갯벌에서의 보물찾기. 갯벌 속에 꼭꼭 숨은 낙지와 조개 등을 찾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
- 2 해바리마을에서는 1일 어부가 되어 배 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선상체험도 즐길 수 있다.
- 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관광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되어 해바리 마을은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4 밤에 횃불을 들고 해바리체험에 나선 참가자들. 전통 방식으로 낙지를 잡아 올리며 흥겨워하고 있다.
- 5 관광객을 반기는 해바리마을의 민박집 간판이 정겹다.
- 6, 9, 10, 7, 8 한적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평화로운 해바리마을 전경.
- 11, 12 해바리마을을 이끌고 있는 양명용 이장.
- 13 해바리마을 한켠에는 관광객을 위한 체험 장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해바리마을 따라하기>

- 1 마을의 전통 어로 방식을 특화해 ‘해바리 체험’이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2 정감있는 민박으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방문율도 높인다.
- 3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주민 100%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민 간 불협화음을 개선한다. (예 : 민박농가 순번제, 바지락발 휴식년제 도입, 소득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총당 등)
- 4 유자따기, 유자청담기 체험 등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시에

상품 개발도 추진하면서 특산품 판로 개척을 통해 제 2의 소득을 기대한다.

5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사과의 전환, 행복을 부른다

의야지마을

[전문]

기나긴 겨울과 한없이 퍼붓는 눈으로 힘든 겨우살이를 해야 했던 강원도 오지의 의야지마을. 이 가난했던 마을이 얼마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찾는 명소 중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부자마을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긋지긋한 눈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보자는 사과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했다. 주민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관광객에게는 흥미로운 재미를 선사한다는, 놀랍지만 작은 발견이 마을의 풍경을 바꾼 것이다.

글 | 강신경

대표적인 겨울 관광지 ‘용평리조트’와 겨울관광 경쟁을 자처하고 나선 작은 마을이 있다. 해발 750~8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리 ‘바람마을 의야지’이다. 예부터 의로운 사람들이 산다고 하여 의야지(義野地)라 불리는 산촌마을이다. 마을 뒤편에는 국내 최대의 초지단지인 삼양목장과 한일목장, 그리고 동해에서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바람을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의야지의 다른 이름이 바람마을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의야지마을의 가장 큰 자량은 천혜의 자연 풍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이를 가꾸려는 주민의 노력이 더해져 2007년에는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협의 팜스테이마을,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등 다수의 농촌관광마을 타이틀을 갖고 있다.

오지마을, 관광마을로 거듭나다

1)지긋지긋한 눈을 활용하는 역발상 지혜

사실 의야지마을이 처음부터 살기 좋은 마을은 아니었다. 봄은 늦게 시작되고 겨울은 일찍 찾아와 농사는 일 년에 4개월 남짓밖에 지을 수 없었다. 연중 절반이 겨울인 탓에 고랭지 채소와 씨감자, 당근으로 얻은 약간의 소득만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갔고, 급기야는 2005년 당근값이 폭락해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별다른 희망이 없는 주민들은 술자리로 소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이때 임근성 마을발전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민들을 보다 못한 임근성 위원장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이색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주민들이 별의견없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겨울철 노는 땅, 노는 장비와 시설, 노는 인력을 활용해 뭔가를 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들이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바로 눈이다. 지형상 첫눈이 일찍 내리는데다, 한번 내리면 그 양이 너무 많아 늘 ‘골칫거리’였던 그 눈을 소재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긋지긋한 눈을 이용하자는 역발상의 아이디어였다.

마침내 2005년 의야지마을은 국내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7천3백만 원과 마을기금 1천만 원을 합해 8천3백만 원을 출자해 영농조합법인 '의야지청년회'를 설립하고, '대관령 스노우 파크'라는 종합 눈 놀이 시설을 만든 것이다. 감자와 배추를 심는 밭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놀이터로 변신했다. 마을 차원의 눈 놀이 시설이라고 해서 작은 눈썰매장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약5만평(16만5,250㎡)에 달하는 넓은 터에 스노우래프팅, 튜브썰매, 봅슬레이 썰매, 스노우모빌, 설상 사륜바이크, 눈썰매장 등 누구나 즐겁게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을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스노우모빌 뒤에 래프팅보트를 매달아 관광객을 태우고 설원을 달리는 스노우래프팅은 짜릿한 스릴과 남다른 재미로 최고의 인기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2) 시행착오라는 성장의 밑거름

농민들이 모여 눈 잔치를 벌인다 하니 여기저기서 관심을 가졌고, 그 덕에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5만 명이 찾아왔다. 그러나 제설기 등 고가의 장비 구입에 따른 과도한 초기 투자와 노하우 부족, 무료입장객으로 인해 2억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다. 어렵게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지주의 요구로 거액의 시설비를 날리고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관심만 쏟는다면 주변 어디서든 훌륭한 체험상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주민에게는 손쉽고 자연스럽게 것도 관광객에게는 흥미로운 상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얻은 교훈이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2006년의 목표는 우선 전년도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눈썰매장의 입장료를 법인의 직접수입원으로 하고 부대시설은 임대로 운영했다. 그러나 그해 따뜻한 겨울 날씨로 매출은 형편없었고, 이는 결국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이때부터 여행사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동남아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3년차이던 2007년부터는 눈썰매장 부지 일부를 마을에서 구입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면서 겨울철 스노우파크 운영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입장료 1만원(초등학생 7천원)이면 눈썰매·전통스키 등을 탈 수 있고 얼음조각·이글루(얼음집) 등도 즐길 수 있다. 약간의 비용을 더 내면 봅슬레이·스노우모빌·4륜바이크로 스릴을 좀 더 만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서 초기 투자비와 마케팅 기법이 모자라 적자를 기록했던 2005년과 달리 2006년부터는 투자규모를 줄여 손익분기점에 도달했고, 2007년부터는 3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 3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정리할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혹하는 다채로운 체험 퍼레이드

1) 외국인도 반한 마을의 매력

주목할 것은 이 마을에 매일 80~100명씩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간 전체 방문객 7만 명의 80%인 5만6천명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찾아온 외국인이다. '뭐가 볼게 있어 외국인들이 몰려오나?' 싶지만 평생 눈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동남아 관광객에게 눈은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강원도 특히 용평리조트는 한류 바람을 타고 동남아 관광객들 많이 찾는 관광지다. 그런데 막상 스키장에 와도 스키에 익숙하지 못하다보니, 관광객들은 스키타기보다 그저 눈 위에서 눈싸움하며 노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 하지만 스키장에는 이들이 눈에서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기회였다. 주민들은 관광객들을 마을로 끌어 들일 아이디어를 내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의 마을 체험은 겨울철뿐만 아니라 사계절로 이어졌다. 그간의 실적을 평가 받아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Rural 20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R-20프로젝트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개 마을을 선정, 농촌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 사계절 내내 신난다, 체험프로그램 완전정복

마을 체험대표를 맡았던 김영교씨는 우리가 동남아 여행에서 악어농장을 신기하게 찾아 가듯,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양목장도 신기한 체험이 될 수 있다며 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찾아온 이들에게는 신기한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 체험장 내에 양 농장을 조성, 양털 깎기, 양 먹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콜리라 불리는 양몰이 개가 신호에 맞춰 양을 자유자재로 모는 광경은 이 마을 최고의 볼거리다. 또한 고령지 딸기를 이용한 잼 만들기, 드넓은 초원 위에서 자란 젖소의 신선한 우유로 직접 치즈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4륜오토바이를 타고 고령지 채소밭 주변을 달려 보기 등 다양한 체험상품도 개발했다. 치즈만들기는 임근성 마을발전위원장이 독학으로 제조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철에만 집중되는 관광객을 분산 유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고원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독특함을 자원으로 차별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바람마을은 대통령이 퇴임한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낸 곳으로 2008년 7월 풀썰매를 타며 즐거워하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매스컴을 타면서 화제가 됐다. 이 풀썰매타기는 평창에서 촬영한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한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한 것으로 마을 내 둔덕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감자굽기, 야생화 심기, 감자와 당근캐기, 채소육묘장 견학과 채소비빔밥 만들기 등 사계절 프로그램도 방문객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마을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하는 치열한 고민 속에서 수많은 체험상품들을 개발한 것이다. 덕분에 계절에 상관없이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지금도 계속되는 행복한 내일 프로젝트

1) 합리적 운영과 높은 소득의 상관관계

의야지마을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합리적인 운영 방식과 주민들의 젊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초기에는 주민들의 공동출자와 공동참여로, 각자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출자배당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공동참여는 이론에 불과할 뿐 비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책임감 또한 부족했다. 운영 방식 개편이 시급했다. 그래서 법인이 전체 관리를 맡고,

주민 중에서 역량있는 사람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자기 사업으로 운영한 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제는 출자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영농조합법인에 내고 스노우파크 안에서 음식점, 4륜바이크 등 8개 사업에 참여해 농가별로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초창기에는 주민 간 이해 부족으로 마찰도 있었지만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 의야지마을의 최대 장점은 젊다는 것이다. 평균 연령 46세로 50대 이하의 ‘젊은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4년 전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눈 놀이를 착안하게 된 것도 바로 젊은 마을이기에 가능했다. 젊은 마을 리더들은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에 다니며 농촌관광 개발과 경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배워 나갔다. 과감하게 주민출자방식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출자금액이 가구당 10만~1천만 원으로 다양했지만, 마을의 공동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해부터는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2010년에는 약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수익과 특산물 판매 등으로 모두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업 수익 3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2) 있는 자원을 똑똑하게 활용하기

바람마을 의야지의 성공은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 ‘눈’을 상품화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자체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나만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살길을 찾았기에 가능했다. 마을이장인 함길수 씨와 청년회장인 김원익 씨, 마을발전위원장인 임근성 씨, 영농조합법인의야지청년회 대표인 최태현 씨와 전대표인 김영교 씨 등 젊은 리더들의 헌신과 열정도 있었다. 이들이 주축이 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공론화해 토론에 붙였고, 어르신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마찰 없이 추진됐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전략도 중요했다. 마을 내 펜션을 최소화해 지역 숙박업체를 살리고 마을 체험장 내 식사준비를 인근 식당에 맡김으로써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하도록 한 것이 좋은 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마을에 있는 자원, 주민들이 잘하는 것을 활용한다는 마을개발 원칙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부도난 공장을 임대하여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물을 뿌려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했다. 농자재 창고를 개조해 치즈체험장으로 만들고, 마을 뒷동산을 풀썰매장으로, 채소육묘장을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사업초기 적자를 보면서도 리더를 믿어 주는 등 주민 간 신뢰와 협력도 큰 힘이 되었다.

의야지마을은 이제 연간 관광객 1백만 명 이상 유치라는 야심찬 목표를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함길수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마을’이 되도록 행사내용과 수준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뚝뚝 뭉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마을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한다. ‘세계는 열려있다. 우리는 오늘도 준비한다’는 바람마을 의야지마을의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이다.

<의야지마을 따라하기>

1. 마을 발전의 장애물이었던 ‘눈’을 활용해 독특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처럼 각자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2 주변에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 상품을 개발한다.

(예 : 마을 내 둔덕을 활용해 풀썰매장을 만들고, 부도난 공장 건물을 실내스케이트장으로 활용)

3 지역 사회와의 상생 전략도 함께 모색한다.(예 : 지역 숙박업체를 살리기 위해 마을 내 펜션을 최소화함, 체험장 내 식사 준비를 인근 식당에 일임함)

4 외국 관광객의 취향과 니즈를 파악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예 : 눈이 생소한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

5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리더들과 마을 주민간의 협력과 신뢰를 잃지 않는다.

사계절 골라 즐기는 재미 꽃내미풀꽃이랑마을

[전문]

이름에서부터 꽃향기와 풀향기가 은근히 베어 나오는 마을이 있다. 바로 공주시 정안면에 자리한 꽃내미풀꽃이랑 마을이 그 주인공이다. 곳곳에 펼쳐진 꽃 군락지에서 각양각색의 꽃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자태를 과시하고, 밤, 서리태 등 특산품도 많아 먹거리가 풍부한 이곳으로 최근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다. 봄에는 봄꽃축제, 가을에는 알밤체험 등 사시사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며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그 이름만큼이나 향기롭고 즐거운 재미를 선사한다.

글 | 이희찬

꽃내음, 풀내음 향연 속으로 도시민을 초대하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에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약 300년 전에 형성된 이 마을은 초기에는 그룻과 항아리를 굽는 장인들이 사는 마을로 도곡동이라 불렀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현재의 명칭인 고성리로 바뀌게 되었다. 마을의 명칭은 구름으로 지은 궁궐(운궁리)을 지나 별들의 골짜기(은하골)에 올라서면 성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고성리)에 이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농촌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이름을 새로이 정하였는데, 인공위성 사진으로 살펴보면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이 풀꽃의 형상을 닮았고 꽃내음 나는 향기로운 마을이란 의미를 더하여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1)농촌관광사업의 수줍은 첫 출발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각종 볼거리가 풍부한 마을이다. 마을 초입에는 초봄만 되면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모이는 할미꽃 군락지가 넓게 자리하고 있고, 고성저수지변으로는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방문객을 유혹한다. 먹을거리도 넉넉하다. 주요 특산품인 밤과 서리태인데, 특히 밤은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품질이 우수해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서 채취한 각종 약초와 나물 등이 많아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곳곳에 맛과 멋이 넘치니 농촌관광사업을 시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 마을이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매킨컴에 비춰진 여러 성공적인 농촌관광마을의 모습에 고무된 탓이다. 성공 사례들을 보며 용기를 얻게 된 6명의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되어 소득증대와 활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약 3년간의 교육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도 8월에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이란 이름을 정식으로 상표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영농조합도 설립했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농촌관광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첫해에 농협중앙회로부터 1사1촌 시범마을로 지정돼 3억 원의 팜스테이 자금을 지원 받았고, 그 자금으로 체험관과 체험마당과 소형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체험관은 현재 단체관광객을 위한 세미나, 숙박, 휴식을 위한 용도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체험관 주변에는 연못을 조성하여 연꽃과 옥잠화 같은 수생 식물을 심고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이러한 노력으로 매해 약 1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공적인 관광마을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의 주요 고객은 1사1촌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가족단체, 동호회 등이다. 2008년도부터는 '벗꽃이랑 풀꽃이랑 축제'를 개최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각종 체험프로그램뿐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2010년도에 28개의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 중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의 성공 비결

영농에만 익숙해 있던 마을 주민에게 농촌관광사업은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농촌관광마을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그 성공 비결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람을 모으는 섬김의 리더십

관광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전적으로 마을리더가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 덕분이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몇몇 리더들이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참여 주민에게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 투명하게 노력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주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농촌관광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노동력과 물품을 제공한 마을주민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2) 1사1촌으로 함께해요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이 성공적으로 농촌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동력은 외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이다. 앞서 언급한 체험관 외에도 공주시의 재정지원으로 전통음식체험장, 전통체험시설, 조경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2008년도에는 1사1촌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농협에서 지원받은 1억2천만 원으로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농산물가공체험장을 만들었다. 같은 해에 녹색농촌마을로 지정되면서 받은 2억 원의 지원금으로는 정자를 조성했다. 2009년 산림청이 건설한 사방댐은 여름 관광객들을 위한 물놀이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외부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과 시설 지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 것이다.

1사1촌이나 5도2촌 주말도시 등과 같은 사업은 시설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꽃내미풀꽃이랑마을과 1사1촌을 맺고 있는 단체는 현대모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로타리클럽 등 총 7개이다. 이 단체들과의 연대로 중요한 시기에는 봉사 및 체험활동을 통해 농촌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단체의 워크샵이나 세미나 같은 행사를 통해 직접적인 관광 소득도 올리고 있다. 또한 추석과 같은 명절 전에는 단체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공주시에서 진행하는 도농교류 사업인 5도2촌 주말도시 사업 또한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관광사업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짧은 시간 안에 농촌관광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었다.

3) 계절별로 즐기는 농촌체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관광객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인절미만들기와 두부만들기 등 상시적인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김장, 겨울에는 정월대보름놀이 등 계절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알밤줍기 체험은 관광객의 향수를 자극하여 흥미를 유도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는 생태 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인기를 모은다. 1만원의 체험료를 지불하면 3kg용량의 봉지를 받을 수 있는

데, 관광객들은 이 봉투에 알밤을 하나 가득 채워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무농약 알밤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판매로 연결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으로 공주시의 5도2촌사업의 일환인 알밤오너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밤나무의 일정수량을 도시민에게 1~3년 동안 임대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분양된 밤나무의 전반적인 관리는 오너와 밤 생산농가가 공동으로 하고, 그루당 수확한 알밤은 임대 기간 동안에는 모두 도시민 오너가 가져가게 된다. 임대가격은 일반적으로 밤나무 1그루당 3만원(10년생 이하)과 5만원(10년생 이상) 내외로 정해져 있다. 소유권은 밤 생산농가와 오너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되며 세부적인 임대수량 및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마을의 대표 특산품인 알밤에 대한 홍보와 직거래 판매로를 확보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한다.

성과와 실패, 그 경계선에서

1) 성공이 남긴 과제

하지만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다. 농촌관광사업이 예상 외로 성공을 거두어지만, 여타 다른 농촌관광마을과 마찬가지로 꽃내미풀꽃이랑마을도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마을주민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노동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초기인 4~5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집에서 민박을 했었다. 그러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관광객을 응대할 수 있는 주민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개별 민박을 중단하고 체험관에서만 단체 숙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관광은 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변화하는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순발력 또한 필요한데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농촌관광사업을 전담할 마을지도자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에만 전담할 수 있는 리더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현재 마을의 리더는 마을 이장, 팜스테이 위원장, 녹색농촌마을 위원장, 5도2촌 위원장, 영농조합 대표이사 등 다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에게만 집중되다보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과의 잠재적인 갈등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힘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도에 결성되었던 영농조합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대표이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2010년에 해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2010년 말에 새로운 마을이장이 선출되면서 영농조합이 재결성되었지만 리더에게 과도하게 업무량이 집중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촌관광을 통한 수익이 증대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일부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수익금의 배분과 운영방안을 둘러싸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더디게 하는데, 이 문제들을 리더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다.

2) 그래도 해결책은 있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단기간에 농촌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범적인 마을 중 하나이다. 이는 사람과의 교류 및 관리에 탁월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초기의 성공요인들이 다소 퇴색하면서 리더십과 주민 참여의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안은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젊은 인력의 부족은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다. 이러

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귀농인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배후도시와 인접해 있고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귀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촌관광이 도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의 문화에 모두 익숙한 귀농주민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농 주민에게 농사외에 농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마을의 원주민들도 귀농주민을 마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귀농인들이 농촌관광사업의 새로운 활력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마을 내부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지닌 인력을 찾기 힘들다면 기존의 사무장 제도를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농촌마을인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사무장의 보수를 현실화해 관광관련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이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농교류사업이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현재 1사1촌사업과 5도2촌 주말도시 등 도시민과의 연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사업 덕분에 이 마을을 찾는 방문객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관광사업도 기본적으로는 도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서는 확대하는 전략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꽃내미풀꽃이랑마을 따라하기>

- 1 마을 형상을 따서 이름을 '꽃내미풀꽃이랑마을'로 짓고 상표등록을 한 것처럼, 자신의 마을을 브랜딩할 수 있는 컨셉트를 정한다.
- 2 외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과 시설 지원을 받는다. (예 : 체험관 설립, 농산물가공체험장 건립)
- 3 상시적인 프로그램 외에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알밤줍기 체험' 처럼 마을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양성한다.
- 4 도농교류 사업을 확대해 도시민을 끌어들인다.(예 : 5도2촌 주말도시 사업)
- 5 수익사업을 위한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수익금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배분한다.

원시 자연이 숨 쉬는 곳

덕풍계곡마을

[전문]

삼척의 덕풍계곡은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다. 하지만 단지 자연경관만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덕풍계곡마을은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야기를 입히고, 다양한 재미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인심을 엮었다. 이렇게 숨겨진 자원들을 가공하고 채색해 관광 상품화한 덕풍계곡마을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 | 이희찬

덕풍계곡마을은 강원도 최남단인 삼척시의 가곡면 풍곡리에 125가구 290여명이 터를 잡고 사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마을을 품고 있는 응봉산은 매봉우리라는 이름처럼 험난하고 신비롭다. 덕풍계곡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수많은 폭포와 깊은 소(沼)들이 찾는 이를 반긴다. 한 굽이를 돌면 또 한 굽이의 계곡이 열리는 장관이 장장 14km에 걸쳐 펼쳐진다. 이곳의 험한 산세가 그동안 인적을 허락지 않은 탓에 오랜 세월 깨끗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올 수 있었다. 덕풍계곡은 신라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날린 나무기러기 세 마리 중 하나가 이곳 덕풍 용소에 떨어져, 천지개벽 후 이처럼 아름다운 산과 물을 가지게 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처럼 탄생한 위대한 자연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전히 성황제를 지낸다.

덕풍계곡은 천혜의 비경 못지않게 내부에 숨겨진 자원도 넉넉한 곳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연은 서려있다. 최근 레일을 제거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긴 하였으나 덕풍계곡 내에는 일제 강점기 때 설치했던 임목 수탈용 철로의 잔재가 마을 입구까지 4km에 걸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옛날, 경북궁 종건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황장목을 나를 때 부르던 노래가 '목도소리'로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 마을은 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90%를 넘는 아연 광업소가 있었던 곳으로 당시 상주인구가 2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구가하기도 했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곳의 특산물은 대부분 산에서 나는 작물들로 도라지, 찹, 두릅, 송이, 능이, 그리고 다양한 산나물 등이 있다. 특히 찹 생산량이 많아 찹가루, 엑기스, 전병 등 여러 찹 가공품을 체험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어류 중에는 산천어, 버들치, 메기 등이 풍부하다. 덕풍마을과 인근지역은 산양의 국내 최대서식지이며, 수달의 서식지로도 유명하다.

비경과 전설이 가득한 아름다운 산간마을

1) 덕풍계곡마을, 세상에 드러나다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로 진입하기 전, 이 마을은 찾는 사람들이라고는 이웃 울진의 덕구온천을 통해 유입된 일부 관광객과 응봉산을 거쳐 덕풍계곡을 트레킹코스로 삼아 내려온 등산객이 전부였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다. 협소한 농지로 인해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였고, 심산유곡에서 채취한 임산물이 주요 소득원이기는 해도 주민들의 삶을 풍족케 하지는 못했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소득화하는데 아직 등한했던 주민들은 이곳을 찾는 낯선 방문자들의 구경꾼에 불과했다. 이미 이웃 도계읍의 신리너와마을은 2002년 강원도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금으로 받은 5억원을 종자돈 삼아 활발하게 농촌관광마을을 가꾸고 있던 터였다. 여기에 고무받은 당시 이장과 현 이장이 서너 명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에 공모하기로 한 때가 2005년이다. 그리고 이듬해 덕풍마을은 본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덕풍마을은 이때 받은 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관광마을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게 된다. 이후 덕풍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가꾸기경진대회 우수상, 산촌생태마을, 그리고 올해 농촌건강장수마을 등에 지정되기에 이르기까지 거침없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 그러는 사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마을회관, 공동식당, 통나무집, 체험관, 펜션단지, 방갈로, 농산물판매장, 야영장, 대형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마을이장의 표현에 의하면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은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진 듯하다.

2) 귀농 귀촌인의 조용한 응원

전형적인 산촌임에도 불구하고 덕풍마을의 인구수는 많은 편에 속한다. 더욱이 특징인 것은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마을인구 중 50대 이하의 비중이 60%를 훌쩍 넘는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혈연·지연 등을 찾아 들어온 귀농·귀촌인이다. 이전의 살던 곳을 떠난 사연들이야 다양하겠지만 마을에 동지를 틈 것은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엿본 것도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농촌관광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장 역시 서울에서의 15년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부인과 함께 덕풍마을로 귀촌한 12년차 주민이다.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굵직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젊음이라는 추진력이 한 몫 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덕풍마을의 이러한 연령분포는 자생단체의 구성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 마을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한 조직이 몇 개 더 있다. 그 중 하나로서 20여명의 진짜(?)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응봉산구조대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덕풍마을을 찾는 방문객의 규모와 증가추이는 여타 농촌관광마을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미 4만 명에 육박했던 2008년의 방문객의 수는 3년이 지난 올해 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방문율이 약 40%에 달한다고 한다. 덕풍계곡마을은 오지다. 여간한 매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 많은 관광객이 이 작은 마을을 찾을 리 만무하다.

덕풍계곡마을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이유

1) 천혜의 자연과 인간적 노력의 산물

그렇다면 덕풍마을이 이렇듯 많은 방문객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이를 수용한 인간적 노력의 산물을 꼽을 수 있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자연 환경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다. 덕풍마을의 자랑은 응봉산 정상으로부터 마을입구까지 끝 모르고 펼쳐지는 덕풍계곡이다. 이 계곡은 깊이와 크기가 제각각인 수많은 연못을 품고 있는데, 그 계곡과 연못의 모양에 따라 물놀이, 뗏목타기, 산천어잡기, 야영, 플라이낙시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펼쳐진다. 계곡 내에 위치한 펜션과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차량은 계곡입구의 주차장 또는 건너편 펜션단지에 주차해야 한다. 시골마을에 있는 것처럼 주차장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 덕풍마을은 사업지원금의 상당부분을 펜션단지, 통나무집, 방갈로, 마을식당 등, 숙박부분에 투자했다. 마을의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은 직원간 수익분배에 따른 갈등, 민박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개별사업자와의 상충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지만 관광소비행위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다. 마을에는 각기 직능을 달리하는 많은 자생조직이 있다. 하지만 마을입구정비, 꽃길조성, 계곡 쓰레기청소, 산천어치어 방류, 그리고 축제 및 각종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는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한다.

2) 자원을 이용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둘째,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흥미로움이다. 이 마을의 방문객 규모를 설명하는데 있어 덕풍계곡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덕풍마을은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접근성의 어려움을 극복 중이다. ‘덕풍계곡과 삼죽(三竹)의 울림’은 마을이 자랑하는 축제다. 이 축제를 통해 전통소리 음악회, 노래자랑, 체험마당, 먹거리장터, 농산물판매, 민박체험 등이 3일 동안 진행된다. 축제 연계프로그램이기도 한 산천어 맨손잡기, 메기 방낙시, 한 여름밤의 쿨시네마, 산촌음악회 등은 여름내내 인기몰이에 일조한다. 또한 조를 이루어 진행되는 전투게임인 서바이벌체험과 원시계곡에서의 플라이낙시는 소비성향이 높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효자상품이다. 그밖에 여름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뗏목타기와 농사체험 등이 있으며, 천연 칩비누와 대나무단소 만들기는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다.

3) 예사롭지 않은 홍보 마케팅

셋째, 홍보의 덕을 무시할 수 없다.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덕풍마을의 자구적 홍보노력도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언론매체의 홍보효과에는 비견할 바가 못 된다. 덕풍마을은 언론매체에 노출이 유독 많았다. 천혜의 비경에 묻혀 있는 오지마을의 이야기가 좋은 소재거리임에는 틀림없을 성 싶다. 6시내고향, VJ특공대, 무한지대 큐, 1박2일, 영상앨범 산 등 중앙매체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중앙과 지역의 신문·잡지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드라마 세트장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2009년 10월, 덕풍계곡과 용소가 1박2일이라는 TV프로그램에 연속 2회나 등장하는 바람에 비수기인 가을민박에 장사진을 이룬 바 있다. 이 프로그램 덕에 타 방송매체의 줄 이은 촬영이 있었고, 그 홍보효과는 아직도 유효하다. 마을자체의 홍보노력도 남다르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정보가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온·오프라인과 SMS 등을 통한 회원관리에도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다. 문득 들어가 본 덕풍마을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바로 엇그제 올라온 따끈한 마을소식들이 가득하다. 자체 제작한 배송박스과 셔츠, 유인물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내의 강릉단오제와 삼척대보름제,

연수회 등에 참가하여 연중 마을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불협화음 속 협화음을 찾다

1) 해결해야 할 과제들

관광마을로서 덕풍계곡마을의 미래는 밝기만 할 것인가? 방문객이 모여 소득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자라면서 조직이 탄생하고 바뀌면 작은 시골마을에는 대개 갈등이 조장되기 마련이다. 덕풍마을 역시 깊고 얕음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외는 아니다.

우선 다양한 인적구성과 가구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정보교류의 어려움이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산촌마을의 특성답게 덕풍마을의 가구도 여러 곳에 산재하여 퍼져있다. 마을의 125가구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여덟 개 반으로 나뉜다. 사업구상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마을운영은 개발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장, 감사, 노인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여덟 개 반의 대표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사안이 각 반의 대표에 전달되는 순간 더 이상 같은 반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묻혀버리는 경우가 잦다.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이러한 지리적 전달체계에 얽혀 때로는 그릇된 정보와 오해를 낳음으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동사업자와 개별사업자 간의 상충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다. 덕풍마을은 펜션단지, 방갈로, 통나무집,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과 마을식당 등 주요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의 지출은 대부분 마을 구성원의 또 다른 수입원으로 환원된다. 수익금의 분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2009년에는 마을의 전체 가구에 대해 호당 20만원씩을 배당하기도 했다. 반면에 다수의 민박과 펜션, 그리고 식당이 개별 사업자에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숙식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주민인 공동사업자와 20여 가구의 개별사업자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개별사업자는 이러한 연유로 홈페이지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에 있어 자신들이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한다. 공동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운영에 대해 개별사업자의 비협조를 하소연한다. 마침 계곡입구 맞은 편, 목 좋은 곳에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가 2012년에 폐교될 예정이어서 시설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곳이 숙박시설로 개조될 경우 사업자간 갈등이 표면에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따른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덕풍마을이 빠른 시간에 농촌관광마을로 성장한 동력이기도 하다. 덕풍마을은 주민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다양하며 귀농·귀촌인도 많다. 덕풍마을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된 이면에는 도시의 소비자로서 살아 본 경험이 있는 귀촌주민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귀촌주민과 토박이주민이 같은 민박이나 펜션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양편에는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일종의 지역적 문화양상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다. 더불어 세대 간 불협화음도 일부 존재한다.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 어른들은 30~40대의 사업운영 방식에 때로는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마을운영을 위한 개발위원회의 의결사안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 것과는 무관치 않다.

2) 화합과 조화의 길

덕풍마을은 아직도 사업구상에 골몰 중이다. 우선은 내년 폐교예정인 풍곡분교의 활용방안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플라이낫시 활성화를 위해 원시계곡에 수시로 송어와 산천어 치어

를 방류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등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물속 관찰이 가능한 창경보트도 여러 대 구입할 예정이다. 태백눈꽃축제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터라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 참가자들을 붙잡기 위한 연계관광사업도 구상 중이다. 2010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것을 기회로 술 등 특화된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덕풍마을엔 일할 사람들이 많다. 이 마을의 관광사업은 계속 확장일로를 걸을 듯하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부쩍 커버린 관광사업인 만큼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동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별사업자와의 상충이 주민 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는 달리 개별 사업자에게 공동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별사업자의 비협조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이 이들을 위해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일 수 있다. 공동사업이 자라나면서 수익금의 활용과 분배를 놓고 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현 이장 이전의 조직은 2년을 못 버티고 물러났다. 그 후 전 이장은 이 마을을 떠났다. 자연 하나만으로는 사람을 모으지 못한다. 농촌마을의 관광은 더욱 그러하다. 도시를 맛 본 주민과 토박이 주민 간의 화합, 세대 간 소통, 주민 간 협심을 일으키는 것이 덕풍마을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덕풍마을은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다.

<덕풍마을 따라하기>

- 1 적극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그 지원금으로 공동식당, 통나무집, 체험관, 야영장, 대형주차장 등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관광 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한다.
- 2 물놀이, 뗏목타기, 산천어 잡기, 야영, 플라이낚시 등 자원을 활용해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3 마을에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를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과 SMS 등을 통해 철저하게 회원 관리를 한다. 또한 도내의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 연중 마을 홍보에 힘쓴다.
- 4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 알리기에 나선다.
- 5 도시의 소비자로 살아 본 경험 있는 귀촌, 귀농인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도시민의 니즈를 잘 파악한다.
- 6 숙박시설과 마을식당 등 주요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마을에 환원한다.

추억 속으로 떠나는 건강한 시간 여행 보릿고개마을

[전문]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아련함을 동반한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가족과 주변에 대한 따스한 온정만큼은 풍부했던 시절, 경기도 양평군 보릿고개마을은 바로 그 시간 속으로 현대 도시민을 초대한다. 보리밥과 보리개떡 등 투박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어린 손맛이 녹아있는 추억의 맛과 각종 전통놀이 등 보릿고개마을에서 체험하는 모든 즐거움은 현대인의 노스텔지어를 달래기에 충분하다.

글 | 이희찬

농촌관광을 하는 많은 도시민들은 농촌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오래전 삶의 모습을 추억하곤 한다. 경기도 양평군 보릿고개마을은 방문객에게 어려웠지만 따뜻한 인정이 살아있던 고향의 모습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여행을 제공한다. 용문산 자락에 위치한 보릿고개마을은 산세가 좋고 아직도 반딧불을 볼 수 있을 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친환경마을이다. 하지만 농토가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전농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다소 곤궁했던 과거의 기억을 연관시켜 보릿고개마을이란 명칭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대인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골의 온화한 정서와 마주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나지막한 돌담길은 마치 외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마을에 방문한 것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한 보릿고개마을에서 맛볼 수 있는 슬로우푸드는 외할머니의 정성어린 손맛을 떠오르게 해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준다.

추억이 흐르는 마을의 소소한 탄생기

보릿고개마을은 전통적으로 산세가 강하고 농토가 넉넉지 않아 화전민이 마을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경제적인 풍요를 겪어보지 못한 마을이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마을의 성장 동력으로서 농촌관광사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양평군 연수리는 농촌관광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인 2004년 몇몇 마을 주민들의 주도 하에 보릿고개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농촌관광사업에 뛰어들었다. 보릿고개라는 명칭에서 나타나 있듯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 농촌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보리밥이나 보리개떡과 같은 시골 음식을 제공하며,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 사는 정을 잃지 않았던 따듯함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첫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슬로우푸드 체험마을로 지정되면

서 농촌관광사업을 위한 기틀로 연계되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농촌마을들과 마찬가지로 보릿고개마을도 그 시작은 미미했다. 첫해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당일체험 관광객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관심 또한 크지 않았다. 마을 부녀회의 일부 회원만이 참여했을 뿐이고 한해 총수익금 역시 2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보릿고개마을의 성공 속 숨은 이야기

1) 교육을 통한 소통과 교감

변화의 조짐은 2005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되면서 노인회에 매해 지원금 4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교육이 3년 동안 제공되었다. 목공예, 농악, 토봉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전반에 대한 내용도 학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차츰 농촌관광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근본적으로 '왜 관광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마을주민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덧붙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후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다. 예를 들어 습득한 목공예 기술을 이용해 마을 입구에 보릿고개마을을 상징하는 장승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농촌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공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한기에는 노인들이 집안에서 목공예 제품을 제작하여 1점당 2천원에 사단법인 보릿고개에 납품하기도 하여 목공예 활동을 취미 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공감대가 형성되자 보릿고개마을의 콘텐츠도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다. 농촌의 따뜻한 인심과 지금은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시골음식들을 테마로 하여 체험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주요 절기인 대보름날과 정월초하루에 대보름맞이행사와 새해맞이행사를 개최해 도시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관광객들은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듯, 소박한 전통음식을 나누어 먹고 쥐불놀이, 윷놀이, 솟대걸기와 같은 전통놀이를 같이 경험할 수 있다. 이 마을이 방문객들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마을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교류 때문에 재방문객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입소문을 통해 다른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첫해 2백 명 남짓에 불과했던 관광객의 수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2009년에는 9천명, 2010년에는 1만 5천명을 넘어섰다.

2) 투명하고 공정한 이익분배

보릿고개마을이 농촌관광마을로서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된 또 다른 계기는 투명하고 공정한 이익분배 체계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해 사단법인 보릿고개마을의 회원은 20명 남짓이었고, 이후 몇 년간도 참여자의 수가 정체되어 있었다. 농촌관광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생소한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이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수익금에 대한 관리와 배분의 문제를 둘러싸고 마을주민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보릿고개마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빠르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정한 감사체계를 도입했다. 매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회계감사와 결산총회를 진행하고, 결산보고서는 매달 모든 가구에 빠짐없이 전달한다. 또한 수익금은 사단법인 보릿고개마을에 회원으로 참여한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 회비 5만원을 납부하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농촌관광사업을 위한 숙박, 식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참여 시에는 일당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연평균 일인당 참여일 수는 50일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연말에 마을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일한 날 수에 2만원을 곱하여 추가 지급하고 있다. 덧붙여 건강상의 문제나 고령으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연말에는 회원 모두에게 7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주민들 사이의 불필요한 의혹과 갈등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마을주민 대부분이 사단법인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농촌관광이 실질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익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초창기 자신감이 부족했던 여러 노인들도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농한기에도 취미활동 겸 일자리로서 농촌관광사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농촌관광사업이 주민들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날개짓

여러 성공 요인 중에서도 보릿고개마을이 짧은 시간에 성공적인 농촌관광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원동력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슬로우푸드 체험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체험관이 농촌관광사업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선 체험시설과 양평군으로부터 지원받은 화장실 시설 등이 농촌관광사업 규모와 질을 높이는데 톡톡히 기여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컴퓨터시설이 들어섰고 관련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농촌관광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들은 시설물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하드웨어의 향상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능력배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얘기했듯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면서 수혜 받은 3년간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마을주민들의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태도를 전환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고,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체득한 여러 기술은 현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기초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덧붙여 1사1촌사업을 통해 시작된 기업과의 교류는 마을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현재 보릿고개마을과 1사1촌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NH증권, 삼성전자, KTIS이다. 이들은 마을 내 두 곳의 정자와 마을회관 내 복사기와 같은 사무용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농번기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또한 해당 기업의 단체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이 마을에서 개최하다보니 참여직원들이 훗날 관광객으로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새로운 전설이 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

보릿고개마을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농촌체험프로그램들을 개

발하는 동시에 마을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촌관광마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사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여러 잠재적인 문제 또한 지니고 있다. 첫째, 최근 들어 급속하게 유입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주차공간의 부족이다. 이 마을의 숙박시설로는 단체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마을 체험관과 주민들이 참여 하는 민박시설뿐이다. 마을 주변으로 다수의 펜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펜션들은 직접적인 농촌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에게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부담될 수 있는 숙박료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이다. 둘째, 이질적인 주민의 유입에 따른 불협화음이다. 양평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전원주택지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보릿고개마을에도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다수의 외지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귀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주민과의 교류가 적고,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참여 또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숙박과 주차 시설 같은 시설물 확충을 고려하는 동시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수요를 마을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많은 관광객은 이미 고령화된 마을주민의 피로감을 가속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릿고개마을의 가장 큰 매력인 농촌체험의 진정성도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마을주민의 구성비에 있어 외지인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참여가 제한된다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지인과 전통적인 마을주민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 마을의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지인의 참여와 협력이 점진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릿고개마을 따라하기>

- 1 소득창출을 위해 '보릿고개'라는 컨셉트를 바탕으로 보리밥과 보리개떡 같은 시골 음식을 제공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 2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예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교육 활성화)
- 3 이익 분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예 : 회원 등록 후 프로그램 참여시 일당 지급, 건강상의 문제나 고령으로 참여가 어려운 주민에게도 인센티브 지급)
- 4 1사1촌사업으로 지자체와 기업들과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 특화된 전통경관자원을 찾다 모평마을

[전문]

같은 경관자원도 마을마다 각 지역의 역사와 특색이 담겨 있다. 그것을 얼마나 차별화시켜 소득 창출과 마을 발전의 밑거름을 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천년의 역사가 마을 곳곳에 살아 숨쉬는 모평마을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유산을 특화된 경관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고 그 운치와 미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통해 전통 마을에서 성장 마을로 도약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글 | 김봉원

수도권에서 3시간, 광주광역시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함평 모평마을. 함평이라는 지명은 조선조 태종 9년에 함평군이 함풍현(咸豊縣)과 모평현(牟平縣)을 통합하면서 함풍에서 '咸'자를, 모평에서 '牟'자를 따 '咸牟'이라 이름 짓게 됐다. 상모평과 하모평으로 이루어진 모평마을은 상당히 유서 깊은 마을이다. 천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마르지 않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고려시대 모평현의 안샘, 조선시대 상모마을의 천석꾼이 지었다는 영양재, 소나무를 바닷물에 7년 동안 담갔다가 견져 15년을 건조시킨 후에 지었다는 윤여운 고택, 벼슬길까지 버리고 부모님의 삼년상을 치르고자 지은 귀령재, 그리고 마을의 화를 물리치려고 조성했다는 500년 된 마을숲 등은 모평마을의 자랑거리다.

마을 북쪽에는 금계리에 위치한 불갑산(516m)과 모악산(348m)이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험준한 산지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천재봉(378m)이 위치하고 있다. 두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자리한 원산마을과 운곡마을도 모평권역에 속한다. 해보천과 만나는 지점에 상모평과 하모평마을이 위치하는데, 마을 북쪽에는 옥녀봉(339m)이 영광군과 군계를 이루며 솟아 있고 주변으로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동쪽에는 월야천(月也川)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해보천이 상모평과 하모평마을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하천 유역으로 평야가 펼쳐진 모습이 아름답다.

천년의 역사가 숨 쉬는 전통특화경관자원으로 새 길을 찾다

(1)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경관자원

모평마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고인들은 이곳이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던 지역임을 말해 준다. 이처럼 이 마을에는 오랜 역사와 세월을 담은 유산들이 특히 많다. 지석묘군과 모평현 관아터, 동호정, 청계정, 영양재, 임천사지, 귀영재, 수벽사, 추당재, 모평선돌, 강정터, 신청강씨지려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더불어 마을 내 해보천 옆 마을숲에는 수령이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돼 1982년에 마을나무로 지정된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팽나무, 왕버들 등 43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 마을숲은 마을 뒤의 임천산과 자양산 사이 해보천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서쪽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물을 막는 수구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기(地氣)를 통해 복을 얻으려는 의미에서 형국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조성한, 풍수적 목적의 전형적인 비보림이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한옥고택은 한국적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최고의 경관자원이다. 이 특별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친환경 농업 특산물 판매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귀촌 증가와 토지 가격 상승의 성과까지 만들어 내어 마을 소득 증대의 새 길을 찾는 결정적인 토대로 자리잡아 왔다. 한국관광공사가 가볼만한 3대 한옥마을로 영암, 안동과 함께 함평 상모마을을 선정했을 만큼 이곳 한옥의 정통성과 아름다움은 특히 남다르다. 때문에 모평마을은 남도한옥의 특징을 살린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마을숲 같은 전통경관을 적극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2) 전통특화경관자원의 관리와 마을환경개선사업

모평마을이 추진하는 행복마을조성사업은 한옥고택의 활용도를 높이고 한옥마을 조성과 연계해 진행했다. 현재 한옥마을은 공동 관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인근 오두마을과 협약을 체결해 한옥민박 및 시골밥상 등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관광객 유치 및 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에는 한옥뿐 아니라 마을숲과 안샘, 문화재 같은 전통특화경관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마을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선행됐고, 터만 남았거나 방치돼 있던 유산들을 직접 나서 복원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모평마을이 어느 곳보다 고즈넉한 전통 마을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유명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마을을 거닐며 볼 수 있는 돌담과 마을안길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고풍스러운 옛 정취를 한껏 살렸다. 초기에는 시공 전문 회사가 마을안길의 돌담을 조성했지만 마을안길의 돌담은 전통적인 기술을 전수받아온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작업을 도맡았다. 주민이 참여해 자신의 손으로 마을 돌담을 복원하고 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생겨나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된 사례. 또한 마을 앞 농지에 녹비식물인 유채꽃과 자운영 등의 경관작물을 주민이 직접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 진입로에는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친환경농법의 실천과 함께 계절별 볼거리도 제공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3) 예스러움과 휴식이 공존하는 마을숲과 안샘

이곳의 경관자원을 논할 때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또 하나는 마을숲과 안샘이다. 방풍과 수해를 방지해주는 역할과 함께 풍수적으로도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해보천변 마을숲. 사업 전에는 할머니 혼자 거주하던 낡은 주택과 폐기농기구 같은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장소였다. 마을숲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주민들은 집주인과 협의를 해 주택을 이전하기로 하고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후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게이트 볼 경기장을 만들었다. 낡은 주택을 대신해 마을숲 뒤쪽으로 한옥을 신축했고, 체험객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만들어 죽어 있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마을숲 내에는 임곡정이라는 정자와 연못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진 것을 주민들이 나서 직접 복원하고 연꽃을 식재해 초록 물빛을 자아내는 예스러운 경관을 되살려냈다. 풍수상 임천산이 화산(火山)이어서 화기를 막고자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곳의 좋은 기운까지 되살아난 듯 기분 좋아지는 공간이다. 정기적으로 풀베기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주민들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

숲은 산책도 즐기고 운동도 하는 공간으로 건강증진과 활력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한국전쟁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탓에 옛 동헌터와 객사터 등 관아건축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동헌터에 위치한 안샘만은 다행히도 천년의 세월동안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2005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안샘 주변에 성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주변 돌을 헐어낸 자리에 수입대리석을 쌓아 국적 불명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복원했다. 동헌의 내아터에 위치했다 하여 안샘이라 불리는 이곳은 뒤편 임천산에 왕대나무와 야생녹차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군락지 덕분에 물맛이 상큼하고 뒷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 연중 13°C를 유지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천년 동안 마을 주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안샘에는 정유재란 당시 마을의 윤희라는 장군과 부인이 일본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이 집의 노비 사월과 그의 남편 도생이 윤희의 세 살 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이 안샘에서 새벽마다 정안수를 떠다가 치성을 드린 덕분에 그 아들은 참의공이라는 벼슬에 오르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옥 숙박객들은 안샘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정안수로 밥을 지어 먹으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곤 한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안샘을 이용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떠온 정안수와 임천산의 야생녹차를 이용한 녹차시루떡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경관 복원을 통한 소득과 마을 가치 상승

모평마을은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고 2008년 행복마을로 지정된 이래 농협중앙회 팜스테이마을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옛 모습을 복원했다. 이에 힘입어 2009년 환경부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됐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었다. 현재 숙박시설과 체험휴양 관련시설, 공동화장실과 샤워장, 주차장 등 위생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더불어 장류단지 조성, 숲과 등산로 정비, 물레방아 복원, 산책로와 쉼터 조성, 역사자원 정비 등의 사업을 통해 기반 시설이 완료된 상태다. 이러한 시설 조성과 정비를 토대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며,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도시민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전통 고택을 활용한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박객 유치를 늘리고, 안샘, 전통담장, 마을숲 등을 정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2010년 농가 소득 증대가 1억천5백75만 원인데, 이 중 한옥 민박이 10동 890건으로 9천백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고, 특산품으로는 누에환과 한과, 산나물 등 총 170건 판매로 천8백만 원을 벌어들였다. 오디, 딸기따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견학 프로그램은 27건이 진행됐으며, 6백75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 외에 6세대 18명이 이주해오는 등 인구 유입도 이어지고 있으며, 토지 가격도 만6천 원/㎡에서 5만 원/㎡으로 312%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가는 전통과 문화의 경관자원

모평마을이 산빛, 물빛, 마음빛이 고운 마을로 변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특화자원인 고택과 마을경관, 특산물의 활용, 친환경농업 확대, 적극적인 다양한 홍보 등의 노력이 토대를 이루었고 그 핵심에는 집성촌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작부터 함께 한 사무장과 추진협의회 등 마을 리더들은 모평마을만의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램을 개발하고 마을의 전통 및 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힘썼다. 추진협의회 이외에 부녀회와 노인회 등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마을의 주요 대소사를 결정하며, 매주 마을 청소를 하는 등 현재의 모평마을을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행복마을로 가기 위한 더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은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 내 풍부한 역사자원과 전통자원을 직접 복원하고 보존·관리하면서 그 활용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모평마을은 역사탐방안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주민들이 직접 그 역사와 자원, 설화 등을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출향 인사들 중심으로 한 후원단체 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과 마을숲, 안샘 등 문화재의 관리와 더불어 개인당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출향인도 동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모평마을 따라하기

1.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가 깃들인 대표적 경관자원을 꼼꼼히 복원하고 가꿔 소득 창출의 자원으로 삼는다.

(예:한옥고택의 복원과 한옥마을 조성)

2. 마을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통특화경관자원을 발굴하고 만들어 낸다.

(예:마을숲과 안샘, 다양한 문화재들)

3. 경관자원을 알리고 방문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속 이야기들까지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접목한다.

(예:안샘에 얽힌 역사 속 이야기와 이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로 방문객 호응도 증대)

4. 전통특화경관자원을 다양한 소득 활로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 사업을 꼼꼼히 추진한다.

(예: 숙박시설과 체험휴양 관련시설, 공동화장실과 샤워장, 주차장 등 위생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더불어 장류단지 조성, 숲과 등산로 정비, 물레방아 복원, 산책로와 쉼터 조성, 역사자원 정비 등의 사업을 통해 기반 시설을 완료)

청정 경관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웰빙 프로젝트

대티골

[전문]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순수한 농민들. 그들에게 주어진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티골 사람들은 돈을 버는 만큼 아름다운 자원을 지키고 가꾸고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마을의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덕분에 요즘 대티골은 그 가치와 즐거움을 맛보려는 도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 | 김봉원

경북 영양군 면적은 815.1km²로 서울의 1.3배 정도지만 인구는 1만8천5백여 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 대티골마을은 군청 소재지와 28km가량 떨어진 해발 1219m의 일월산 기슭에 자리한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이다. 봉화와 영양의 경계이기도 한 대티골은 해발 500m의 고산마을이라 일교차가 크고 연강수량이 적은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다. 또한 낙동강의 상류 지류인 반변천(半邊川)이 발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신라시대 때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간 후 이곳에 용화사라는 절을 짓게 됐다고 하는데, 행정구역상 용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며, 과거 용화사의 자리에는 현재 용화3층 석탑이 남아 있다. 새롭게 붙은 대티라는 마을 이름은 큰 고개를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윗대티는 충주 지씨(忠州池氏)가, 아랫대티는 고성 이씨(固城李氏)가 처음 개척했다. 이곳에는 황씨부인당 설화, 일월설화 등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일월산, 황씨부인당, 용화사, 용화3층 석탑, 선녀탕, 용화제련·선광장, 동학유적지 등이 있다. 대티골에는 모두 30여 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 은퇴자 등을 제외하고 14가구 24명의 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마을의 생태적·역사적 가치도 높이고 부자도 되고

(1) 자연 경관이 사람에게 곧 치유의 힘이 되는 곳

2005년 대티골의 아름다운 경관에 반해 이곳으로 이주한 권용인씨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발전협의회 대표가 된 그는 오랜 생각 끝에 자연치유생태마을이라는 주제로 마을 발전에 대한 장단기 구상을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동의를 구했다. 도시인들이 마을에 찾아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연치유생태마을을 테마로 한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다. 이에 대해 농민들 사이에서는 도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선사해주는 것이 곧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치유의 역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민들이 한데 뜻을 모으게 된 데에는 권용인 대표의 역할이 컸다.

그 결과 2009년 생명의 숲 주관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어울림상 수상 외에도 2010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2011년 환경부 주관 1사1하천 콘테스트에서 자연정화연못(습지)으로 격려상 수상 등 마을의 노력은 다양한 결실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산나물 판매와 황토구들방, 숲길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한 주에 500~600명에 이를 만큼 도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과 더불어 자연치유생태마을로서의 인지도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러 결실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다. 2008년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부자마을만들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황토펜션 9동, 발효식품가공공장 1개소, 생활하수 정화시설, 쉼터 및 농산물 판매장, 등산로와 산악자전거도로 정비 등의 기반 시설 조성 작업을 진행했다. 자연 생태와 경관자원, 그리고 생활 인프라에 대한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과 터전을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황토구들방의 경우 워낙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이 많다. 황토와 금강송으로 집을 지어 구들을 놓고 손님을 위해 나무를 해와 장작도 패야 하며, 일일이 방구들의 온도를 확인해 가며 불을 지펴야 한다. 기름보일러만 설치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건만 대티골 사람들은 자연치유생태마을이라는 기본 이념을 지키기 위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말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다. 주민들이 황토구들방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황토방을 농가별로 흠어 지어 도시민과 1촌 관계를 형성하는 사랑방처럼 활용하기 위함이다. 체류형 자연치유생태마을로서 도시민과 사랑, 나눔,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만들었다.

(2) 아름다운 숲길 만들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어울림

대티골에는 2009년 생명의 숲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길’ 공모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한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있다. 숲길 탐방로는 윗대티 마을에서 출발하는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 5km의 옛 국도와 2km의 산판길, 1km 남짓의 마을길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난다. 마을 내부와 연결돼 접근성이 좋고 완만한 경사와 2~3m 폭의 비포장 동선, 소나무림과 활엽수림 등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식생이 잘 보전돼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노랑제비꽃, 꿩의바람꽃 등 희귀식물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옛 국도와 연결돼 있는 산판길은 일제 강점기 때 광물 수탈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일제의 광물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애환의 흔적이기도 하다. 용화제련소(현재는 일월산 자생화공원으로 조성)에서 광물을 일본으로 반출해 갔던 길이 지금의 대티골 숲길이다. 현재는 청송-영양-봉화-영월의 마을길과 산길을 잇는 ‘외씨버선길’ 영양 1차 구간에 속한다.

이 길을 새롭게 탄생시킨 권용인 대표는 많은 눈이 내리던 어느 해 겨울 날, 마을 주변을 산책하다가 숲길을 발견한 후 이 길이 지닌 생태학적, 역사·문화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길 가꾸는 일에 동참하기를 권유했다고 한다. 오랜 세월 방치됐던 길을 주민들이 삽과 곡괭이로 원형을 살려 잇고 넓히고 다듬었다. 길목마다 방향과 거리를 알리는 팻말도 세웠다. 또한 막히거나 무너진 숲길을 직접 보수하고 나무다리를 놓고 끊어진 길을 복원했으며, 풀을 베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길 중간 중간에는 운치 있는 그네와 의자 등을 갖춘 쉼터를 만들고 이정표를 세웠다. 텃골, 깃대배기, 깨밭골, 칠밭목, 말머리등, 샘물내기, 왕바우골, 그루목, 쿵쿵목... 길을 걸으며 만나는 이정표들이다. 길을 걷다 보면 나무의 자와 쉼터가 있는 곳에 빨간색과 연녹색의 우체통 2개가 보인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 만든 희망우체통이다. 빨강 우체통에서 엽서를 꺼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연녹색 우체통에 넣으면, 주민들이 1년 뒤 엽서를 부쳐 준다.

(3) 경관 체험을 통해 오지(奧地)가 아닌 오지(吾知)의 공간이 되다

전국 1사 1하천 컨테스트에서 격려상을 수상한 것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다. 자연정화연못(습지)을 자발적으로 조성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반변천 발원지 수질 보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마을 12가구 마당에 설치된 자연정화연못은 창포와 미나리 등 자연정화 식물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한다. 생활하수를 2-3일간 담아 두어 자연적인 침전과 정화 과정을 거치게 한 뒤 맑은 물을 방류하는 방식이다. 덕분에 3차 정수 기능을 하는 각 농가의 연못은 올챙이가 살 정도로 깨끗하다. 이렇게 대티골 사람들은 손수 아름다운 숲길을 가꾸고 자연정화연못을 만들어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장작으로 불을 때는 황토구들방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지친 삶을 충전시킬 수 있는 쉬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들과 산에 나는 풀로 몸이 심신이 행복한 식탁을 차리고 아름다운 숲길 산책을 통해 자연이 주는 교훈을 깨닫고 편안한 휴식공간인 황토방에서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켜 삶을 충전시키는, 평범하지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권용인 대표는 "오지는 이제 오지(奧地)가 아니라 진정한 나(吾)를 알아(知)가는 곳입니다."라고 말한다.

일월산 경관자원이 키워낸 웰빙 먹거리

주민들은 일월산 산비탈을 개간해 만든 밭에 영양의 특산품인 고추와 함께 산마늘, 야콘, 두메부추, 쑥부쟁이, 눈개승마(산나물), 섬초롱, 미역취, 곰취 등 자생산나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산마늘은 울릉도 특산품으로 알려진 명이나물이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목반을 만들어 산마늘 농사를 시작했는데, 영양 고추가 자라던 고추 밭까지 산마늘 밭으로 바뀌어 이제는 재배 면적만 약 7천 평에 달한다. 특히 산마늘 효소, 산마늘 김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산마늘 김치의 경우 유산균이 배추김치보다 약 4배나 많다. 서울의 고급식당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뿐 아니라 수원 영통 1동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어 도농교류로 진행하고 있다. 2008년 산마늘과 두메부추를 납품하게 되면서 봄철(3~5월)이면 특별한 소득이 없던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됐다.

김종수 이장(61)은 “주로 고추농사만 짓다가 산마늘 등 토종 작물로 재배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곳을 찾는 도시민들의 구입량이 늘어나면서 농가당 소득이 3년 전에 비해 연간 500만 원 정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티골은 토종 작물과 풀꽃으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계절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전하는 야생초로 푸드 디자인한 음식들을 손님들 밥상에 내놓는 것. 이 역시 반응이 매우 좋다. 이렇듯 대티골의 경관과 자연자원이 키워내는 웰빙 먹거리들이 하나 둘 명물로 재탄생하고 있다.

5감 자원을 통한 더욱 풍요로운 삶의 창조

숲길 관리와 야생화 꽃길 조성, 마을 청소와 분리수거 등 이제 모든 일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을 생활하수 100%를 자연 정화하는 연못 조성,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숲길을 활용한 생태교육, 야생화 교육, 자연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자연 보전 관리를 넘어서 자연 복원을 등은 자연 보전관리를 넘어 자연복원을 통해 마을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다.

김종수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대티골 사람들이 조금씩만 양보하

고 화합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만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티골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만들려는 주민들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질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물질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대티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이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건강을 나눠 주고자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히 자연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다. 권용인 대표처럼 머슴을 자처한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대티골 자연치유생태마을은 앞으로 1차(농산물 생산)+2차(식품 가공)+3차(향토방, 자연식 밥상)를 연계하고 자연치유 체험 프로그램도 체험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체류형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장기적 구상도 가지고 있다.

대티골은 '5감'을 가진 마을이다. 야생화와 곤충(시각), 푸른 산내음(후각), 맑은 물과 청정 채소, 산나물(미각),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청각), 자연생태치유체험(촉각)이다.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은 쉼의 문화, 느림의 문화, 웰빙 음식의 문화 등 건강 회복과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낼 계획이다.

대티골 따라하기

1. 특산물 판매나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서 도시민들에게 더욱 큰 가치와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한다.

(예:자연치유생태마을사업으로 도시민들의 심신을 치유해주는 마을 컨셉트)

2.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특산물을 키우고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올린다.

(예:일월산 산비탈을 개간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웰빙 먹거리)

3. 활용 가능한 경관자원을 찾아내 도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가꾸고 마을의 생태학적·역사적 가치를 높인다.

(예:아름다운 숲길)

4. 주민들 스스로 한 마음 공동체가 되어 경관자원을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행한다.

(예:자연정화연못, 숲길 및 쉼터, 산악자전거 도로 등의 정비)

자발적인 환경관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화동마을

[전문]

하류 지역에 속했던 원평천이 새만금간척지사업으로 상류 지역으로 바뀌자 화동마을 사람들은 새삼 물과 환경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하지만 훼손된 경관자원을 되살리고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들이 택한 길은 주민 커뮤니티 강화와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영화제작.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원을 물려주고 좀더 탄탄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려는 화동마을만의 승부수였다.

글 | 김봉원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화동마을은 김제시의 서남쪽에 위치한 곡창 지대로 새만금 간척지로 유입되는 동진강의 지류인 원평천이 중앙을 관통하는 마을이다. 죽산면은 전국 제일의 미곡 생산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농업 중심 지역이며, 잘 정리된 경작지와 더불어 영농과 관련된 관개수로가 발달돼 있다. 화동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대창리로 편입됐는데, 이곳에 이영최라는 사람이 명당을 찾아 선대의 묘소를 만들었는데, 주위에 꽃이 있어야 한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자손들이 사는 터전에 꽃나무를 많이 심고 이화동(李花洞)이라 부르던 데서 유래했다. 원평천 하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과거부터 물이 풍부하여 논농사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현재 43가구가 논농사를 하고 있다.

훼손된 경관 자원을 지키기 위한 비점오염원저감사업

마을의 지형적 특성상 일제 강점기부터 방조제를 쌓아 간척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대창방조제와 서포방조제가 해일의 침해를 막아 주었다. 방조제 주변에는 서해바다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정박했던 큰 포구가 있었고 해창갑문을 설치해 자원 교류가 활발했었으나, 물길의 막힘에 따라 마을은 점차 쇠퇴했다.

새만금방조제와 유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원평천에 수관문을 설치해 물을 막아 하천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하천 관리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됐다. 동진강 최하류 지역이었던 원평천 일대가 상류 지역으로 바뀌면서 물 관리가 중요해졌다. 새만금지역개발사업으로 동진강이 상류지역이 되면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주민들은 아랫동네 사람들을 위해 물을 깨끗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금강권역 동진강 수계에 속하는 원평천은 동진강의 제1지류로서,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김제시 및 정읍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 1번지에서 봉남면 원평천 국가하천 기점까지의 지방 2급 하천과 금구천 합류 지점인 봉남면에서 죽산면까지의 국가하천으로 구분된다. 전체 유역 면적의 50% 이상이 농경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형 권역에 해당된다. 원평천의 수질은 연평균 BOD 농도가 5.0mg/L 정도로 양호하나 주요 오염원은 축산계와 토지계 오염원이며, BOD와 T-P에서 비점오염배출 비중이 각각 84.1%, 77.3%로 점오염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로터리와

함께 시비를 투여하고 모내기 전 인위적인 낙수를 억제함으로써 비점오염부하량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새만금 비점오염저감기법 개발사업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원평천 주변 지역의 환경의식에 대한 조사 및 비점오염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인구 고령화율과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비점오염 관리 등에 대한 환경의식이 낮은 화동마을을 선정했다. 먼저 특별한 교육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정기적인 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화동영농법인을 결성하고 비점오염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주민 참여형 하천 가꾸기 사례 학습, 마을 환경지도 그리기, 주민 환경커뮤니티 만들기 등의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환경수칙 공표, 분리수거장 설치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중심이 된 주민 커뮤니티

하천 정화를 위해 어릴 적 원평천에서 물장구 치고, 물고기 잡고, 수영하면서 놀았던 세대가 대부분인 주민들에게 과거 마을지도 그리기를 통해 예전 깨끗했던 원평천 마을의 환경을 회상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기억과 추억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의 오염지도를 그려 과거에 비해 원평천과 마을의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의 원평천과 마을의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는 동기를 자극했다.

주민들은 하류 지역의 설움과 고통을 이해함과 동시에 내가 사는 마을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어릴 적 뛰어놀았던 것처럼 내 손자·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을에 찾아와서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 마을에서는 화동리 깨끗한 마을가꾸기 모임이라는 명칭의 주민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깨끗한 하천, 건강한 농산물,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원평천의 사라진 어종이 되돌아올 수 있는 깨끗해진 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손자·손녀가 찾고 싶은 깨끗한 마을환경만들기를 목표로 수립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영농 환경 개선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환경을 되살리며, 정기적인 환경모임 주최와 환경정화의 날 추진을 위해 마을환경조례도 제정했다. 뒤이어 2011년 1월 12일에는 화동영농위원회가 결성됐으며, 마을 공동부지에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한 마을환경정비를 시작했다. 또한 화동영농위원회의 토의를 통해 마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주민 숙지사항을 공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주민 커뮤니티의 활동을 추진했다.

영화를 통한 환경의식 개선과 마을 공동체 강화

하지만 소수의 관심과 활동만으로 주민 전체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마을의 리더들은 주민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직접 영화 제작에도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마을환경영화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소재 찾기, 시나리오 만들기 등 초기 교육 중심의 진행 방식에는 낮은 참여율을 보여 주민 주도의 시나리오 만들기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영화따라잡기(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주민들이 배우가 되어 연습하는 프로그램), 영상편지(도시의 자식들에게 영상으로 편지 보내기), 촬영에 앞선 고사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높아졌

다.

드디어 마을환경영화의 촬영이 끝나고 마을회관 앞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사회가 진행됐고 주민들과 죽산면 행정 담당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마을환경영화 시사회는 화동마을 주민들과 죽산면의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다. 영화를 함께 관람하면서 화동마을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고, 향후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계획 및 주민활동의 지역 확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실 마을환경영화 제작은 영화를 제작하는 초기부터 지역 방송매체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적인 이슈가 됐으며, 외부 홍보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적인 관심을 받게 된 화동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으며, 이 또한 마을주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 기여하게 됐다.

그대에게 가는 먼 길, 건강한 자연을 되찾는 길

주민들이 만든 마을환경영화는 ‘그대에게 가는 먼 길’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이라는 어머니를 노모를 잃은 아들의 심정에 빗대어 표현한 영화로 어머니가 계신 바다, 그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을 그대에게 가는 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독립영화다. 이 작품은 2011년 전북독립영화제에 출품해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은, 수준 있는 작품으로 영화제 수상은 주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크게 하는 계기가 됐다.

영화제작 등을 통해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된 주민들은 올해 추석 기간 중에 도시 가족들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대회를 기획해 성공적인 마을잔치를 치렀으며, 내년 설 명절에는 바비큐 잔치를 계획하는 등 정기적인 행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훌륭한 작품을 직접 만든 주민들, 그 과정에서 느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손자·손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 때까지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적인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화동마을의 환경영화를 시발점으로 죽산면, 김제시, 원평천 유역의 주민들로까지 참여와 관심의 폭을 확대하고 마을이 비점오염 저감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동마을 따라하기

1. 훼손돼 가는 경관자원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주민 자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예: 비점오염원저감사업)

2. 환경자원과 마을 인프라를 되살리기 위한 책임감과 동기 부여를 위해 마을 공동체를 강화한다.

(예: 화동리 깨끗한 마을가꾸기 모임이라는 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마을 환경 정비)

3. 스스로 지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예: 주민 참여형 하천가꾸기 사례 학습, 마을환경지도 그리기, 주민환경커뮤니티 만들기 등의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4. 주민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실시한다.

(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환경영화 제작)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이 귀한 성장 자원이 된 곳 수하마을

[전문]

오지 마을이라고 해서 발전과 성장의 대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수하마을은 오랜 세월이 깎아내고 다듬어 놓은 이곳만의 특출한 경관과 산림자원을 더욱 슬기롭게 가꿔 알찬 소득원으로 탈바꿈시켰다. 그저 보고 감탄하는 자연이 아닌,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체험 자원으로 승화시킨 기획과 추진력의 승리였다.

글 | 서정원

우리는 흔히 영양군을 오지(奧地)라 한다. 그 중에서도 영양의 끝자락, 내륙 깊숙이 들어 앉아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오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산과 맑은 물, 그리고 청정한 자연과 더불어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하1리 마을. 이곳의 동쪽에는 울런산과 불기산, 서쪽에는 일월산, 남쪽에는 검마산, 북쪽에는 주마산 등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을 둘러싼 산들은 모두 낙동정맥의 줄기이다. 마을 주변의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계곡이 깊어 맑은 물이 흐르는 수하계곡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연의 건강한 에너지와 휴양을 선사하는 검마산자연휴양림,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 중 금강송이 자생하고 있는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등은 마을이 지닌 훌륭한 경관 자원이다.

깨밭골, 송방, 오무, 심천 등 4개의 자연 부락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은 산세가 아름다우며 냇물이 맑고 깊은 장수포천(長水浦川)까지 아울러 수하리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수하마을은 영양군 북부에 위치하며 '자연과 문학이 함께 어우러진 반딧불이의 고장'이라는 슬로건처럼 천혜의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자연 상태의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딧불이 생태체험특구 지정으로 생태체험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역 내의 축제·문화 행사로는 일월산 해맞이 행사, 일원산 산나물축제, 고추문화축제, 원놀이, 달맞이, 장승제, 씨름왕 선발대회 등이 있다. 수비면 수하마을은 영양 군청에서 백암온천 방향 31번 국도를 타고 가다 917번 지방도를 만나 반딧불이 생태체험특구 방향으로 4킬로미터 가량 가면 만날 수 있다.

자연이 준 선물이 마을에 또 다른 미래를 선물하다

(1) 산림 경관자원으로 첫 발을 뗀 마을 사업

수하마을은 봉화, 울진과 함께 금강소나무가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는 지역으로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금강소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마을을 포함하는 약 3천3백 헥타르의 이 지역은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금강소나무림과 함께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산림자원의 식생 유형은 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이다. 식물 군락으로는 소나무, 신갈나무, 그리고 소나무나 신갈나무가 공생하는 군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와 함께 마을 내에는 300년 이상 된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이루어진 마을 숲과 성황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을과 어우러진 귀중한 산림 경관자원이다. 수하마을은 다른 산촌마을에 비하여 마을 주변이 깨끗하고 훌륭한 경관 및 환경자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개선사업보다는 산림자원 및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녹색체험시설도 입사업에 주력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동체 사업이 추진됐다.

[박스]

* 금강소나무(geumgang pine, *Pinus densiflora f. erecta uyeki*) : 소나무과
우리 조상들이 소나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에 궁궐재, 건축재나 조선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의 종류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다. 소나무는 습기에 강한 송진이 함유되어 있어 잘 썩지 않고, 기둥이나 보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도 강하다. 옛날에는 소나무가 소금 생산을 생산하기 위한 뿔감으로도 이용됐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생육 지역에 따라 수형의 형질 변이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강소나무는 나무가 곧고 장쾌하게 자라는 당당함과 겉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무엇보다도 소나무 중의 소나무이기 때문에 금강소나무라 부른다.

(2)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빛을 발한 주민들의 결단

김거연 운영위원회 총무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 추진 초기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서로간의 갈등이 많았으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설명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조성 및 공동 참여가 확대됐다고 한다. 주민회의에서는 마을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거론됐다. 풍부한 특산임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가공시설 설립처럼 주민 소득 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산림휴양, 경관자원,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소득 창출 등의 방법이 고려됐다.

마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회의와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으면서 그 방향을 수립해 나갔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수려한 마을 경관을 생태적으로 해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새로운 마을의 소득 사업이 될 녹색체험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마을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2006년~2008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사업 추진으로 생겨난 주요 시설은 목조주택인 산림휴양관(45평), 숲속의 집(8평, 12평), 마을공동작업장 및 저온저장고, 오수처리시설, 새롭게 보수한 성황당, 자전거보관소, 다목적 구장 등이 있고 하천경관 개선작업(목교, 사방댐 등),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같은 생산기반 조성작업이 실행됐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마을의 단결된 힘이 빛을 발하기도 했다. 당초 마을은 공동부지와 인근부지 30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시설물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는 900평이었다. 마을 인접 부지의 소유주와 합의해 군에서 군비로 300평을 매입하고 부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 300평과 마을 소유부지 300평을 군에 회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업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900평의 사업부지 위에 세워진 시설은 군의 소유지만 시설의 운영은 마을에서 맡고 있다.

(3) 경관자원과 산림자원 활용이 부른 시너지 효과

사업의 추진과 함께 방치돼 있던 마을 숲이 정비돼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었고, 매년 당제를

지내는 성황당은 보수를 거쳐 고색창연한 마을의 유적으로 거듭나게 됐다. 마을 숲과 성황당은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주요 경관자원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은 방문객들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경관자원의 활용에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제 또 다른 소득 증대를 위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와 MOU를 맺어 국유림인 마을의 울련산을 활용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경영활동을 통한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 현재도 국유림을 임대 받아 송이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산림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벼농사를 비롯한 고추 콩, 약초(천궁) 등이며, 송이버섯과 산나물 등 산림부산물의 생산도 적지 않다. 마을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가구 수, 규모, 생산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송이버섯은 1,200kg(10가구, 20헥타르, 2억원), 장뇌삼은 10,000본(10가구, 5헥타르, 1억 원), 공취, 나물취 등의 산채류는 3,000kg(30가구, 30헥타르, 3억 원)을 생산했다.

수하마을이 주민들에게 남겨 준 가치와 비전

(1) 이익 배당을 받는 우리는 수하리 마을 주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을 이장과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수하리 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마을 주민 48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다. 법인은 1인당 10~20만 원씩 출자해 마련한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된다. 마을 공동 체험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연말에 정산을 하여 출자액에 맞춰 10%씩 조합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기금 적립을 위해 마을공동소득사업(산채가공식품 판매:두릅장아찌, 엄나물장아찌, 고깔나무김치 등)을 추진, 매출액의 10%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2) 끝없는 꿈을 이뤄 나가는 젊은 마을

수하마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마을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방면의 홍보 활동을 벌임으로써 주민의 단합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금도 마을 노인들은 지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을가꾸기를 위한 공동부역에 참여하고 있다.

수하마을은 분당 야탑동 동사무소, 수원 제일 평생학교 등과 1사1촌을 맺고 있다. 특히 2011년 하계 휴가 때는 야탑동 동사무소가 어린이 농산촌 체험을 위한 관내 학생들을 모집해 수하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농사일로 바쁜 중에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을 알리고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선사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듯 수하리 마을은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단합을 이루어 냈으며, 뛰어난 산림자원과 경관자원을 활용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주민들 중에는 노령 인구도 많지만 함께 화합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하마을은 늘 활기찬 꿈을 꾸는 젊은 마을이다.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해 채워가야 할 5%

2008년 사업이 완료되고 지금까지 마을을 운영해온 영농조합법인은 마을 운영에 대한 내용

점검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을 체험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및 숙박시설이 하절기인 5~9월(10,000명/년)에만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눈이 많이 내리는 동절기에는 날씨 등의 이유로 운영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마을과 주변의 청소년수련원, 반딧불이 천문대, 반딧불이 생태공원 등의 다양한 청소년 교육시설과 검마산 자연휴양림,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등의 산림휴양자원 및 체험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의 총무와 운영매니저의 헌신으로 마을시설의 운영은 잘되고 있으나, 한 단계 마을 발전의 도약을 위해서는 마을홍보와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수하마을 따라하기

1. 주어진 생태적 조건 속에서 열악한 생산 기반과 생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다.

(예:경관자원 및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녹색체험시설 도입사업)

2. 마을사업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예:마을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의 지속적 개최)

3.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사업부지 확보 시 부족한 부지를 땅 소유자인 주민의 회사로 해결)

4. 법인 설립을 통해 이익 배당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고 출자금을 마련, 앞날을 위한 재투자 의 원칙을 마련한다.

(예: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한 이익 배당과 공동기금 적립)

자연과 생태 환경을 벗삼아 밝은 내일로 가는 위안마을

[전문]

곳곳에서 산수유나무를 만날 수 있어 일명 산수유마을로 불리는 위안마을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운치 있는 돌담길 하나도 좋은 관광자원이 되는 축복받은 곳이다. 하지만 타고난 축복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 하나 둘 마을의 모습이 변모돼갈수록 주민들의 삶과 표정에도 약속이나 한 듯 웃음과 기쁨이 함께 커나갔다. 마을이 처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보다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위안마을로 가본다.

글 | 서정원

산수유는 봄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다. 보통 봄을 알리는 꽃으로 매화를 꼽지만 산수유는 살얼음이 채 녹기도 전인 2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4월초까지 노란 빛깔을 수놓으며 만개한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전국의 상춘객들과 사진작가들이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로 몰려드는 이유다. 위안마을에 들어서면 두고 온 고향집처럼 정겨운 골목길과 돌담, 그리고 담 너머로 가득 들어찬 산수유나무가 다정스레 손님을 맞이한다.

산수유마을이라는 별칭은 먼 옛날 중국 산동성의 한 처녀가 지리산에 시집을 오면서 산수유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심은 것이 오늘날 널리 퍼지게 됐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구례 산동(山洞)과 중국의 산동(山東)은 의미가 다르지만 양쪽 모두 산수유 주산지라는 점에서 그 유래가 된 전설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것 같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매년 3월이면 산수유꽃축제와 산수유꽃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13회째 접어들어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아름답게 변하는 마을, 늘어나는 소득의 일거양득

(1) 산수유, 골목길, 돌담으로 대변되는 경관자원

마을은 지리산 노고단, 만복대 아래 45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며 산수유, 고로쇠수액, 지리산 산채 등 특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생태 지역이다. 지리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산수유나무 숲에서부터 사시사철 청정한 계곡물이 흐르는 지리산까지 어느 곳보다 뛰어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 1996년 개장한 지리산 온천지구 개발에 따라 현재는 연중 약 20만 명의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아오는 관광·휴양 연계형 마을이기도 하다.

위안마을은 상위와 하위 두 개 부락과 월계마을까지 포함, 세 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의 계곡과 길가에까지 산수유나무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마을의 계곡 부근에 위치한 산수유나무와는 다르게 마을 내의 산수유나무는 대부분 오래 전에 식재된 것들로 수령이 150년 이상 된 고목들이라 많은 꽃과 열매를 맺고 있다.

또한 위안마을은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수유 주산지다. 위안마을 주민들에게는 산수유나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효자 나무였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해 주는 귀한 소득원이었다. 마을회관 옆에는 오래된 산수유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과거 산수유열매를 많이 수확할 때는 이 나무에서만 건피로 120근 가량을 거둬들었다고 한다. 작황이 그리 좋지 않은 올해는 산수유 건피의 산지 가격이 1근(400g)에 5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120근 건피를 현재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만 원인 셈이니 마을 주민들에게 산수유나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산수유와 함께 마을의 뛰어난 경관 자원이 돼주고 있는 것은 돌담으로 이루어진 골목길이다. 상위마을 내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는 여지없이 돌담이 늘어서 있다. 구형근 마을개발 추진위원장은 “과거에는 더 많은 골목길과 돌담이 있었으나 무분별한 환경개선 작업을 거치면서 가치 있는 옛 것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좁은 골목길과 돌담을 없앤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추진위원장은 골목길과 돌담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마을의 경관자원이자 소득자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2) 다양한 사업으로 마을 가꾸기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사업추진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마을의 강점인 경관자원을 보완하고 취약한 마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한다는 것이 위안마을 개발사업의 핵심이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돼 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상·하수도 시설 공사, 마을 안길 보수 및 마을 마당 조성, 마을회관 신축 등이 시행됐고,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원 도로 확장, 주차장 확장 및 포장, 고로쇠나무 식재(12헥타르) 사업 등이 진행됐다. 또 융자 사업으로 소득원 개발을 위한 한봉 재배(75군), 산나물 재배(7.6ha)와 주택 신축 및 증·개축, 그리고 화장실 신축 등도 포함됐다.

마을의 뛰어난 경관자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산림청 소관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3km에 걸쳐 가로수(산수유나무)를 식재했으며, 마을의 계곡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방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방댐을 건설했다. 현재는 물놀이장으로 활용되면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마을의 소득 향상과 산림자원의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됐다. 먼저 산림 내 임도를 5.5km 신설하고 마을 뒷산 4개소에 12헥타르의 대단지 고로쇠나무를 식재해 관광객을 상대로 한 고로쇠 수액 판매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했다. 한 그루에서 약 18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데, 이로써 주민 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산지에는 고사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산림환경을 조성했는데, 이는 고사리를 품질 좋은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사업들은 마을공동소득사업의 추진이라는 의미에서 큰 중요성을 띠며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마을 소득원의 기반을 단단히 구축해 나간 것이기에 여러모로 더욱 뜻깊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야 했던 아쉬운 순간

마을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마을회관을 저온저장고, 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민박시설을 겸한 회의실 등 복합적인 용도의 시설물로 변모시킨 것이 인상적이다. 저온저장고에는 고사리, 두릅, 산나물, 고로쇠 수액 등을 보관했다가 관광객에 판매를 했다. 앞마당을 넓혀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만들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됐던 마을 안길을 말끔히 정비해 관광객의 차량 출입과 민박집 이용을 용이하게 만든 것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마을에는 현재 14가구가 민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모두 깨끗한 방과 세면 시설, 수세식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잘 갖춰 놓았고 음식물도 판매하고 있어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묵어갈 수 있다.

위안마을은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과 주차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마을 오피수를 3km 떨어진 온천지구의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계곡물을 지키고자 했던 것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물론 사업 추진 당시 계획은 세웠지만 그 진행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사안들도 있었다. 휴양림 조성의 경우 대상 사업지구 내에 산림의 개발 정성평가와 사유림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예 추진이 불가능했다. 용자사업으로 계획된 산림소득사업 역시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으나 사업 실행 기간 중에 닥친 IMF의 영향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마을 주민의 담보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주민 상호 간에 보증서 주는 일을 꺼려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위안마을에서 산수유마을로, 성장에서 도약으로

위안마을 마을가꾸기사업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마을 경관의 개선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소득증가로 이어졌다. 마을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을 바꾸고 불결한 위생 시설을 마을 아래 온천지구 오피수 처리장으로 옮김으로써 청정 자연도 지키고 마을의 이미지 역시 깨끗해졌다. 마을의 중심이 되는 마을회관을 다양한 기능적 공간으로 바꾸고 단체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늘어났다는 사실은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 마을회관 앞에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보다 많은 관광객이 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관광소득이 가구 당 약 백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소득액은 5천만 원 정도로 이는 다른 산촌마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위안마을은 2008년 실시된 전국 산촌마을 경영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돼 8천3백만 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 상금은 마을의 돌담을 복원하고 경관 확충을 위한 산수유 식재 및 주민들 쉼터를 조성하는 데 쓰였다. 이런 성과 덕분에 마을사업 이후 11가구가 귀농하여 정착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렇게 늘어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산수유 수확기와 과육 분리기 등의 기계를 도입해 좀 더 효율적으로 산수유를 채취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와 직거래,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적으로 건피 판매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마을은 향후 산수유를 테마로 하여 산수유 건피 생산뿐만 아니라 산수유 술, 산수유 환, 산수유 차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안마을 따라하기

1. 마을의 소득원이 되는 경관자원을 복원하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돌담길 복원, 산수유나무 식재, 마을 마당 조성, 마을 인프라 구축)

2.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을 동시에 확충함으로써 균형 있고 내실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

(예:상·하수도 시설 공사, 마을안길 보수, 마을회관 신축, 소득원 도로 확장, 주차장 확장 등)

3.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경관자원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어 낸다.

(예:고로쇠나무 식재, 한봉 재배, 산나물 재배 등)

4. 경관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에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예:다용도 시설로 바꾼 마을회관, 재래식 화장실과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 시설 개선)

5. 마을에 걸맞은 테마 사업을 찾아 향후 지속적인 소득 향상을 꾀한다.

(예:산수유 술, 산수유 환, 산수유 차 등 산수유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행복한 생태공동체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전문]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통영 부근의 작은 섬 연대도. 이 섬에 작은 변화가 감지된 것은 에코아일랜드 사업지로 연대도가 선정된 이후부터다. 연대도 마을은 태양광발전기 설립과 저에너지 건축물로 에너지 자립을 시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태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행정기관, 그리고 이들의 가교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가 삼위일체되어 에코아일랜드로 향해 떠나는 즐거운 향해 속으로.

글 | 이윤하

섬에는 온통 생태적 기운이 감돌았다. 양지바른 섬 자락에서 섬사람들은 따개비같이 오순도순 어깨를 맞대며 살아가고 있다. 에너지 자립과 생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몇 년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을을 가꾸어 온 연대도 사람들. 그들의 모습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

연대도는 통영에서 남쪽으로 40리길 뱃길로 이어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속한 작은 섬으로 정확한 주소는 경남 통영군 산양면 연곡리이다. 마을 동쪽은 가파른 언덕이고, 북서쪽 해안은 바닷가로 비스듬히 이어져있다. 오랫동안 물에서 소외되었던 이 섬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자립 섬으로 탈바꿈하고 난 이후다. 에너지와 생태를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했기 때문이다. 48가구 80여명의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오랜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박을 활성화해 전통적 생업과 생태 체험 관광 사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열개를 촘촘히 짜고 있다.

1) 민관협치의 어려운 난관 극복하기

사업의 초기에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외지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비교적 폐쇄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주민을 잇는 지방의제 추진기구인 ‘푸른통영21’의 지속적인 가교역할이 연대도 주민들을 움직였다. 생태성 조성위원회는 ‘에코아일랜드’ 선정을 위해 연대도 등 7개 섬을 후보지로 3개월간 답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경관, 문화, 생태, 주민자립도, 경관훼손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연대도를 최종 사업지로 확정했다. 연대도는 외출낙시로 친환경 어업을 하고 폐교를 마을 소유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어촌계와 부녀회 같은 자치기구와 마을 주민 상호간의 신뢰가 깊었다. 사업을 추진할 역량있는 젊은 주민들의 적극적 의지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석기시대의 패총과 조선시대 봉수대 등 유적이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고, 깨끗한 백사장과 몽돌해수욕장, 숲 등을 잘 보존해 관광 자원화하기 좋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업이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섬마을 주민의 충분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통영시를 비롯한 의제21의 사무국은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 더 나아가 이 사업이 가져올 삶의 변화에 대해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갔다. 이러한 의견 조율에는 푸른통영21의 역할이 컸다. 푸른통영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지역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민관협치 기관으로, 연대도 ‘에코 아일랜드’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지역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구체적 실천안을 마련해 주민과 함께 연대마을을 재구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 것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이지만, 이 마을을 유지하고 미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섬마을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더욱 함께 공감하고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NGO활동가의 뒷받침과 더불어 마을 구성원의 실천의지가 있어야한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와 비전제시에 다소 반신반의 하며 거리를 보이던 주민들도 푸른통영21의 소통 노력으로 차츰 마음을 열고 동참하게 되었다.

에코아일랜드를 향하여

1) 에너지 자립 섬으로 거듭나기

연대도 공동체는 에너지 자립과 생태 공동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통영시는 이 섬마을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역사적 가치와 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한 에코아일랜드로의 순항을 위해 튼튼한 돛대를 마련한 것이다. ‘생태 섬 심사위원회’는 생태 섬 지원, 조성계획 수립과 변경, 신재생에너지 설치, 생태건축 등을 심사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주민 6명을 비롯해 푸른통영21, 지역 언론, 전문가,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에코아일랜드까지 향해 할 거대 함대와 이를 운영할 승무원들이 무사히 승선을 마친 셈이다. 주민이 노를 짓고, NGO 전문가가 향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이 키를 잡아 함께 나아가는 방식이다.

첫 번째 축인 에너지 자립 섬 만들기의 시작은 2011년 4월 마을회관 겸 방문자센터와 경로당을 화석연료를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 기법을 도입해 완공한 것으로 출발했다. 패시브하우스 설계기법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에서 에너지 최소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모델로써 기존 건축물에 비하여 총에너지사용량이 1/8정도이다. 연간 평방미터당 난방에너지가 15kW 이하로 계획되는 건축물로, 고기밀, 고단열, 삼중유리로 외벽의 열관류율을 낮추고, 실내에 좋은 공기를 유지하면서 열회수장치로 난방열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이다. 초기비용이 다소 많이 들지만 약 십년 후에는 초기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에코체험센터도 이 기법으로 설계되었다.

2011년 3월에는 마을 뒤편에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었다. 총생산량 150kW 규모로 연대도 전체 가옥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화석연료의 의존에 탈피하는 에너지 자립이야말로 이 섬마을의 미래적 자립공동체로서의 시금석인 것이다.

2) 생태공동체 함께 꿈꾸기

다른 한 축인 생태공동체를 향한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어촌계가 나서서 마을단위 공동소유로 폐교를 사들였다.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장이 될 ‘에코체험센터’를 만들고, 숙박과 더불어 전시 및 세미나, 체험교육을 포함하는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체험센터는 해수욕장과 다랭이 꽃밭 등이 인접해있고, 섬마을의 특성이 살아있는 숲이 어우러져 있어 생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학교 옆구리 언덕에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해 그대로 묵혀있는 다랭이 밭이 있었는데, 이 밭주인들을 설득해 무상임대 형식으로 다랭이 꽃밭도 조성했다. 공공근로 형태로 양귀비, 수레국화, 민들레, 분꽃, 부처꽃 등 여러 야생화를 가꾸다보니 고용도 창출되었다. 주민들은 새로운 형식의 노동을 체험하면서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섬 가꾸기에 참여하면서 주인의식과 동참 의지가 커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생겼다.

2010년 7월에는 연대도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지깃길’을 조성했다.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땀감을 하러 지계를 지고 다니던 길의 원형을 살려 섬 전체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교적 쉽게 주민동의를 얻어낸 사업이다. 1시간 30분 정도의 도보를 통해 과거의 길을 걸으며 오늘의 가치를 되새길 수도 있고, 섬마을의 생태계가 온전히 유지되어 있는 숲길과 바다경관,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은밀한 장소들을 즐길 수도 있다. 이 지깃길과 연계해 몽돌해수욕장과 패총무지, 봉화대 등은 새로운 체험 관광의 요소가 된다.

3) 주민과의 눈맞춤으로 함께 성장하기

무엇보다도 연대마을의 공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주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민 교육의 장인 ‘주민대학’은 마을지도자 교육으로 시작해 차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연대도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패시브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단지 시설물 설립으로만 그치면 오히려 무의식중에 대량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매뉴얼 학습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0년부터 시작한 ‘주민대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법과 사례를 들려주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2011년 6월에 진행된 주민대학은 ‘우리 마을 차 만들기, 유기농으로 농사짓기, 재활용 방법, 마을에너지 관리하기, 마을 해설 및 행복하게 사는 법’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에너지부터 농사와 부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워 주었다. 신안군 증도 슬로우 시티, 꽃박람회, 부안 시민햇빛발전소 등의 선진사례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지역개발의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의견을 나누며 그들만의 미래를 구상하고 꿈꾸기 위해서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키워가며 마을의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의 길, 그 아름다운 희망사항

1) 그래도 남겨진 과제는 있다

연대도 에너지 자립마을은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이다. 시민단체격인 ‘푸른통영21’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소통을 담당하며 사업을 기획 및 진행하고, 행정기관인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의지를 보태 에너지 자립을 통한 경제적 지속성을 담보하고 더불어 생태체험관광으로 지역소득의 기반을 형성해 고품질시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것이다. 에코아일랜드라는 큰 그림 아래서 행해진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주체 간 역할분담이 오늘의 연대도로 이끌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로 모범사례가 되려면 각 가정 단위의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에 앞서 노후화된 가옥 형태로 인한 에너지 낭비부터 예방한 후에, 공동적인 대규모 발전시설의 설치를 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추후에는 에너지에 비효율적인 노후주택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창문을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고 지붕을 개량하며 벽체단열 등을 통해 진정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야한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한 발전소 보다는 섬마을에 필요한 소규모 적정기술을 설치해 생활밀착형 에너지시스템을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립마을을 실현해 나가야할 것이다.

2) 연대도에 켜진 희망의 등불

연대도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는 여러 면에서 포착된다. 건강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 경관, 선사시대 이래로 간직해온 역사성을 결합한 스토리텔링, 민관의 지혜로운 소통,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뚜렷하게 보여진다. ‘푸른통영21’의 윤미숙 사무국장은 이상백 번이나 물에서 섬을 드나들면서 어느덧 주민이 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된다. 말 한마디라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주민의 것이 된다. 에코체험센터와 방문자센터, 태양광 발전소 등의 공공 건축물은 모두 주민들의 것이니 스스로 설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말한다. 지자체와 NGO단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의 자립적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렛대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푸른통영21’은 2013년까지 연대도를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 계획을 수립중이라 한다. 이 섬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행안부 지정 ‘명품섬 베스트10’, 2009지속가능발전대상 최우수상, 생생도시 행안부장관 표창, 2010녹색경영대상 지경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생태적 공동체 실험이 여러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눈길조차 주는 사람이 드물던 통영 앞바다의 작은 섬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리는 연대(煙臺)를 이 섬에 설치했다고 하여 연대도라 불리는 이 섬이, 이제는 에너지 자립과 생태공동체라는 햇불을 켜고, 물을 향해 밝은 미래의 희망을 알리는 봉화대 역할을 하고 있다.

<연대도마을 따라하기>

- 1 ‘푸른통영21’처럼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 줄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 후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한다.
- 2 마을 공동 시설은 패시브하우스 기법을 활용한 저에너지 건축물을 설계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 에너지 자립의 기초를 다진다.
- 3 주민대학을 통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매뉴얼 교육을 시작한다.
- 4 폐교를 체험센터로 개조하고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5 가속화된 노령화로 그냥 묵혀 있는 밭은 무상임대 형식으로 빌려 꽃밭을 조성한다. 이때 야생화 가꾸기를 공공근로 형태로 진행해 고용을 창출한다.
- 6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생태탐방로로 개발해 관광자원화한다.

새로운 농촌자립마을의 좌표 산청 민들레마을

[전문]

화석연료 고갈, 방사능 유출 등 여러 위험 요소들이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청 민들레마을은 이러한 목소리에 해답을 제시한다. 민들레 홀씨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에너지 활용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면서 말이다. 이제 민들레마을이 자립 농촌의 새로운 모델이 된다.

글 | 이윤하

가을걷이를 시작한 공동체의 손길이 분주하다. 들판에 나선 주민들은 가을햇살을 머금어 광광 여문 낱알처럼 건강해 보였다. 이곳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립적인 삶을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마을이다. 외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함께 삶을 일구어 가는 민들레마을이 이곳에서 꿈과 함께 영글고 있었다. 마을의 전체분위기는 어느 농촌과 유사하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건축물의 모습들은 색다른 풍경으로 다가왔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 녹화(綠花)된 흙 등을 이고 진 모습에서 에너지자립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엿보였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힘찬 역동성을 읽을 수 있었다.

민들레처럼 강한 생명력을 품다

1) 자립적인 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마을에 위치한 민들레마을은 1991년 둔철산 동쪽자락에서 시작되었다. ‘자발적 가난’을 선언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이곳에 동지를 틀고 공동체를 꾸린 것이다. 그리고 농업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신앙, 에너지 등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통합적이고 자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화와 같은 외적 변화와 물질문명의 급속한 진보에 의해 피해해지는 농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어려운 시대에 농촌이 보루가 되어야한다고 믿음이 이 마을 안에서 물 흐르듯 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여섯 가정을 포함해 36명이다. 여기에 외지에서 유학 온 민들레 학생 52명이 이들과 함께 마을을 꾸리고 있다. 자립적 농업공동체 실현에 앞장 선 김인수 대표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다양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삶의 층위가 구축되어야 안전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동체는 그 자체가 삶이고, 삶의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서야한다는 뜻이다. 이들이 일구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은 민들레를 닮았다. 바람을 타고 떠돌

다가 홀연히 내려앉은 곳에서 때가되면 어김없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태어나는 민들레,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겨운 모습으로 주변에 뿌리를 내려 농촌의 배경이 되는 민들레 말이다. 바로 이곳에서 민들레흙씨 같은 사람들이 돈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일구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민들레공동체는 이곳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능력에 맞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민들레공동체는 대안기술센터, 민들레베이커리, 민들레학교, 민들레공방, 그리고 농사공동체 및 제3세계 지원사업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곳의 삶을 구성한다. 각 기관은 책임자를 두어 자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민들레마을은 기본적으로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육, 의료, 먹거리 등도 공동생활 속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식사도 각 가정에서 순번을 두어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침회의를 통해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고, 각자의 일터로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 노동과 여가가 결합되고, 전체와 부분이 조화된 공동체생활인 것이다. 자급자족을 하고 남은 농산물은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얻은 수익금과 이곳에 견학 온 사람들의 후원금을 공동기금으로 마련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기관은 개인별로 기본임금을 지급해 개인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 더불어 민들레마을은 자립적 공동체 건립뿐 아니라 제3세계를 돕는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구조를 확대하면 복지사회의 새로운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좋아하는 착한 에너지

1) 대안기술의 진원지, 대안기술센터

민들레마을은 에너지를 포함해 농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기술을 실험하고 보급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대안기술을 개발해 실천하고, 그 기술을 나누기 위한 체험학습도 진행 중이다.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에너지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지구가 처한 위기들을 함께 고민하는 체험학습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마을의 에너지 자립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주택과 마을공동시설을 자연친화적이고 저에너지형으로 건축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마을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볏짚과 흙으로 지어진 스트로베일 하우스다. 스트로베일 하우스란 압축한 볏짚을 블록처럼 만들어 벽체에 쌓아올려 지은 집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구조는 목재기둥, 서까래 등을 사용하지만 벽체는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볏짚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50cm 정도의 두께로 지어 단열효과를 높임으로써 냉난방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이 폐기될 때도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건축물은 건축 자재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부터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된다.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까지 운송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고로 주변에 있는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 절약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민들레마을은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택을 모두 이 공

법으로 지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2) 자연에서 찾은 그린에너지

무엇보다도 민들레마을을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에너지에 관련된 대부분을 대안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과 바람 속에서 전기를 얻고, 농작물과 분뇨 등에서 연료를 얻는 바이오매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에너지 대안기술을 가지고 있다. 마을에서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다양하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로는 총 13킬로와트를 생산하는 태양광전지와 2제곱미터의 쉘플러 태양열 시스템 6기, 2제곱미터의 접시안테나형 태양열 시스템이 2기가 설치되어 있다. 태양열을 받아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48리터 태양열 박스 조리기도 3기 보유하고 있어서 실생활 및 체험학습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바람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500W급 풍력발전기가 4기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민들레학교 데크마당에는 4대의 500W급 자전거 발전기가 있어서 수시로 운동을 하면서 전기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0.8입방미터 바이오 가스 시스템과 200리터 바이오 디젤 제조기 2기도 제작해 사용 중이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근소장은 “일반적으로 손수 만들어 쓰는 에너지는 판매되는 것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 직접 만들어 쓰는 지혜를 통해 농촌공동체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돈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외부의존도를 낮춰야 자립적이고 안정성 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안기술센터로 체험학습을 나온 참가자들은 단순히 설명만 듣는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이라도 도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을 통해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 도시적 삶을 돌아보며 기존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을 이 민들레마을에서 찾는 것이다.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가는 길

1) 에너지 자립 마을의 출발점

민들레마을이 이렇게 에너지를 연구하며 대안으로서의 삶을 모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공동체는 미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단이다. 미래의 삶을 학습하고 다가올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기획한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고갈과 원자력발전의 높은 위험성, 그리고 찾아올 지구의 위기 등을 대한 현재의 고민이 대안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대안 기술을 연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대안기술센터의 이동근 소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퇴치 문제에서 에너지문제를 핵심적으로 도출해내었고, 지구온난화로 지구상의 미래 삶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며 동기를 밝힌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고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곤퇴치가 제일 큰 계기였다. 민들레 공동체는 설립초기부터 한국의 농촌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농촌부흥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왔다.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적정기술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비로소 마을 내에 (사)대안기술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화석연료 고갈, 원자력 발전의 문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었다. 현재 우리 삶의 기반은 석유와 원자력인데, 이 둘은 오래지않아 고갈된다. 또한 원자력은 방사능을 많이 함유한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크게 위협하는 잠재적

인 위험요소라는 결론이다. 고로 기존의 에너지원로부터의 독립은 지구온난화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시작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자 하는 민들레공동체의 철학이다. 큰 규모의 삶과 생활방식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소박한 삶의 방식은 작은 규모의 삶을 지향하며,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 말한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은 큰 규모의 삶의 지향하지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양식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만든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원자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이 설득력을 얻는다.

2) 주민들의 협력으로 이뤄낸 녹색체험마을

아무리 좋은 방향성과 로드맵을 가졌을지라도 마을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더불어 이 일을 함께하려는 동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견과 철학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공감하면서부터 자발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작은 규모의 삶으로 나아가기, 재활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약이 생활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약보단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엿보였다. 그 바람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및 연구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대안기술과 공동체적 농촌 삶이 결합되어 녹색체험마을의 토대를 이뤘다.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 덕분에 척박했던 농촌마을이 녹색체험마을로 지역사회에 부각될 수 있었고, 수입 또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에 성공하기 위해 이 마을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단계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반면, 적정기술을 연구 단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 대학이나 전문적 시민사회와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민들레마을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이다. 이 마을은 벤치마킹을 오히려 반기고 있다. 서로 연락을 통해 일정을 잡고 마을 견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도 가능하다. 민들레 흙씨가 태어난 터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듯 민들레마을의 사례가 담장을 넘어 좋은 기운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안을 넘어 삶이 되다

지구상에 꾸려지는 공동체의 유형은 여러 가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영성공동체는 종교성을, 생태공동체는 생태적인 삶의 구조를, 사회공동체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각각 추구한다. 그리고 민들레공동체는 좀 더 근원적인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립모형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의 시민사회영역에서 비껴나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체를 실현하며 공동체내 자치 기관을 만들어 발전시켜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협력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민들레베이커리가 경상도에서 선정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어 공장건물과 제조설비를 지원 받았고, 에너지대안센터의 확대 재편을 위해 건축물도 신축 중에 있다. 이는 마을이 먼저 자체적으로 브랜드와 내용을 만들고, 그 후에 성과

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설확장 자금을 지원한 보기 드문 사례다. 동시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차원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해 공적으로 지원을 한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좀 더 주변농촌과 연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정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의 농촌마을 규모를 꾸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 짓고 있는 대안기술센터의 면모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 지원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이 센터에서 얻은 다양한 연구성과가 명실상부한 대안기술로 인정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를 바란다. 또한 민들레마을의 바램처럼 현재의 중등부, 고등부 학교가 기반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농촌을 이끌어갈 리더쉽을 가진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마을공동체의 삶을 통해 실현될 것도 고대한다. 민들레공동체는 대안적 성격의 공동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자립적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민들레의 순환적 일생처럼 농촌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민들레마을을 통해 앞으로 자립하는 농촌의 확대를 기대해본다.

<민들레마을 따라하기>

- 1 외부 환경에 기대지 않고도 자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람, 자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예 : 풍력발전기 제작, 태양광전지, 태양열시스템 도입)
- 2 친환경적인 재료로 건축물을 지어 환경오염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인다. (예 : 스트로베일하우스)
- 3 농작물과 분뇨를 얻는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에너지 대안 기술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 4 도시민을 상대로 에너지 관련 체험 학습을 실시해 에너지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이를 통한 후원금도 마련한다.
- 5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생산한 잉여 농산물 일부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이를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한다.

에너지 대안 마을의 효시

등용마을

[전문]

전북 부안은 환경 문제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추진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안의 등용마을은 여느 마을보다 일찍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쏟았고, 그 결과 국내 최초로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대안을 추구하며 에너지 대안 마을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 등용마을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과 절전운동으로 에너지 대안의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한다.

글 | 이상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부안 IC로 나와 청호저수지를 지난 후, 14km쯤 가다 보면 장신 교차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 남쪽에 보이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등용마을이다. 이곳에서 새만금방조제를 향해 서쪽으로 3km 더 가면 정부와 전라북도가 조성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새만금 방조제에 닿는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산리 등룡2마을에는 30여 가구 50여명이, 등룡1마을에는 17여 가구 30여명이 살고 있다. 등용 마을 동쪽 어귀에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운치 있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 이 소나무 숲에 들어서면 '비녀등'이라 불리는 널찍한 평지가 나온다. 소나무 숲은 2006년 숲 전문 시민운동단체인 '(사)생명의 숲'의 도움으로 복원되었다. 이 작은 마을에는 1918년 부안에 최초로 세워진 등용성당이 있다. 조선 말 병인박해 때 조선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용산에서 순교한 후 그의 후손들이 내려와 정착하면서 천주교 교우촌을 형성하고 등용리 성당을 세운 것이다.

등용마을은 2005년 문규현 신부가 만든 생명평화마중물(사)이란 단체가 이곳에 동지를 틀면서 비료와 농약을 줄이고 우렁이를 활용하는 유기농업을 시작하였다. 마을에는 사라지는 우리 종자를 보관 및 재배하는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가 탄생했고, 유기농 쌀과 잡곡 등을 가공, 유통하는 '초록마을 공간'도 생겼다.

마을 단위에서 출발한 에너지 대안 찾기

1) 햇빛발전소 1호기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

부안은 200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반대 운동이 치열했던 곳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해 부안지역의 고통과 희생이 컸다. 부안 방폐장 사업이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후 주민들의 관심이 에너지 대안을 찾는 일로 옮겨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기반으로 2005년 부안시민발전소가 설립되었다. 시민발전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주가 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작은 단체이자 회사다. 부안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문규현 가톨릭 신부와 김인경 원불교 교무가 설립을 주도하였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반대 운동에 깊이 참여했던 이현민 씨가 소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5년에 기부금과 시민 출자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등용마을 1호기를 포함하여 부안에 3기의 시민 태양광발전소를 세웠다. 등용마을에 ‘햇빛발전소 1호기’가 세워지면서 에너지 자립을 향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농민들이 자주 찾는 에너지 대안 마을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사용의 진원지

1) 재생에너지 시설의 다채로운 전시장

2005년 등용마을에 3kW용량의 ‘햇빛발전소 1호기’가 들어선 후 2007년에 3kW, 2008년에 30kW, 2009년에 5kW 태양광발전기가 연이어 세워지면서 이 마을에는 총 41kW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 주체도 다양하다. 2005년 서울에 있던 ‘생명평화 마중물(사)’이 이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생명평화마중물 교육관 지붕에 20kW를 설치했고, 유한회사 시민발전도 같은 공간에 10kW를 설치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3kW 주택용 태양광발전기 외에 나머지 태양광발전소는 주민과 다른 지역 시민들이 출자해 세워졌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생산된 전기는 고정된 가격(kWh당 700원 내외)으로 15년간 한전에 판매된다. 에너지 자립을 넘어 태양광발전소들이 수익모델이 된 셈이다. 모든 전력판매용 태양광발전소는 부안 시민발전소가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연간 발전량은 등용2마을 가정용 전기소비량의 50%를 넘는다.

등용마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외에도 태양열 온수기와 난방기, 지열 냉·난방설비, 바이오펠릿 보일러 등 여러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있다. 2006년 12월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보급 사업의 지원을 받아 부안시민발전소에 지열 냉·난방시스템도 설치하였다. 마중물 교육관에 20RT¹⁾, 사무실과 식당, 사랑방 건물에는 10RT 규모의 지열 시설이 들어섰다. 인근 가정집에도 5RT 규모의 지열시설이 구비되었다. 2008년에는 200㎡ 규모 교육관의 난방을 보조하기 위해 14장의 태양열집열판을 들여왔고, 2011년 2월에는 마중물 교육관 등에 추가로 바이오펠릿 보일러를 3기 설치하였다. 그 밖에 2008년에는 재생에너지 교육을 위해 1kW 풍력발전기와 500W 자전거발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다양한 시설 구축에도 불구하고 지역냉·난방 시설 등 몇몇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현민 소장의 애를 태운 적이 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을 추구하면서 값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다. 잠깐 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등용마을은 부안지역과 주변에서 연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는 재생에너지 교육장이 되었다. 이 마을은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 전북의제21기후보호센터, 부안시민발전소의 도움을 받아 2009년부터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 체험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 온수기, 풍력발전, 지열시스템, 바이오펠릿 보일러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돌아보며 기술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해서 계란이나 감자를 익히거나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조명에 불을 밝히는 체험을 한다. 2009년 12월에는 이곳

1) Refrigerating Ton.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 얼음으로 만들 때 제거해야 할 열량. 3,320kcal/h.

에서 '전국의 풀뿌리 단체 에너지활동가 캠프'가 열려 참가자 30여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에너지 자립에 대한 등용마을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일군 공로를 인정받아 등용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부안시민발전소는 2009년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제정한 '2009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2) 에너지는 생산보다 절약이 포인트다

2008년부터 등용마을은 재생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기소비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전기 소비 10% 감축을 포함하여 마을에너지 절약의 목표를 수립한 후 집집마다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보급하여 전기낭비를 줄이는 등 구체적인 절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미 전기를 알뜰히 사용하던 노인들이 매년 10%씩 총 30%의 전기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목표였지만 등용마을은 포기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목표를 향해 내디뎠다.

그런데 겨울철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를 아끼려는 독거노인들이 전기장판으로 난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기소비가 잘 줄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한 탓에 등유나 경유를 이용한 난방 대신 전기난방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곳에도 만연했다. 더군다나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이기 때문에 난방 효율도 매우 나빴다. 그래서 2009년에는 주택 단열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의제21, 에너지복지센터가 추진하는 농가주택 단열 개선사업에 등용리 마을이 선정되자 7월 중순 홀로 사시는 방극순 할머니의 주택을 개량하였다. 낡은 창문을 2중창 사시 창문으로 교체하고 할머니가 기거하는 안방 벽체에 스티로폼을 덧대는 단열시공을 했다. 이렇게 외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낡은 주택의 단열 개선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2011년에는 겨울철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잘 수 있는 단열이 잘되고 난방 에너지가 적게 드는 마을 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느리지만 함께 도전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1)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그것이 해답이다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 온수기,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많이 설치된 마을은 등용마을 외에도 국내에 여럿 있다. 하지만 다른 마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비해 등용마을은 외부의 지원을 활용하되 함께 공부하는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 마을을 운영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등용성당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부안시민발전소와 생명평화마중물(사)이 정보와 아이디어, 자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마을의 대소사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부안시민발전소는 태양광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리뿐 아니라 잘사는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과 관련해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9년 12월 1일 부안시민발전소는 등용마을 에너지 자립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 자립형 에너지 체계 확립방안’을 발표하였다. 외부에서 들어온 부안시민발전소와 생명평화마중물이 등용마을 주민들과 하나가 되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진통을 겪었지만, 2010년 마을 만들기 교육이 진행되면서 ‘등용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는 명실상부하게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일이 되었다. 아름다운 재단의 2010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과 주민 부담금으로 마을 공동체는 강사초청 교육 2회, 선진지 견학 2회, 마을 작은음악회와 영화상영 등을 실시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등용성당에 모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는 지에 대해 강의를 두 차례 들었고, 충북 옥천의 안남면, 전북 진안의 와룡마을 등 도농직거래와 농산물 가공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곳을 견학하였다. 2010년 7월 말에는 등용마을과 인근 노인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동안 ‘어르신캠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1년 9월에도 등용성당의 도움으로 주민 40여명이 전북 완주 지역경제 순환센터와 안덕마을을 방문하여 잘사는 농촌만들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된장, 고추장 제조·판매에도 등용마을 주민들은 뜻을 모았다.

2) 자발적 참여와 지원의 적절한 균형감각

이현민 소장은 그동안 등용 에너지 자립 마을을 추구하면서 주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민의 인식 향상과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되지 못한 마을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받더라도 의미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라고 여겼다. 그리고 최근 이현민 소장은 “2012년 정부가 지원하는 그린빌리지사업을 신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등용마을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체적 기반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1년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을 건축할 때도 주민들은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영두에 두고 기초와 뼈대를 구성한 바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에너지 자립 마을에 걸맞게 에너지절약형으로 마을회관을 업그레이드할 생각이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이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등용마을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등용마을 따라하기>

- 1 부안시민발전소와 같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주체가 된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설립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관리를 운영한다.
- 2 태양열 온수기와 난방기, 지열 냉·난방설비, 바이오펠릿 보일러, 풍력발전기 등 여러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실천을 준비한다.
- 3 태양광발전소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킨다.
- 4 에너지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그 노하우를 알린다.
- 5 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절전운동도 함께 추진해 전기소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예 :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보급, 주택 단열 개선 사업)
- 6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

유채의 고장에 불어온 녹색 에너지 화정마을

[전문]

주산에 자리한 화정마을이 놀라운 녹색의 변화를 이뤄냈다. 친환경을 향한 화정마을의 힘찬 발걸음은 그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단순한 명제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우렁이논농사를 추진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더니, 이내 유채재배로 바이오원료를 생산하고, 석유없이 농사짓기에 도전하다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주택으로 그린빌리지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 자립 100%에 도전한다.

글 | 이상훈

부안읍에서 남쪽으로 5~6km 내려가면 넓은 들에 작은 호수, 아담한 언덕들이 잘 어우러진 주산면 화정마을이 나온다. ‘꽃밭정이’라는 예쁜 우리말로도 불리는 화정(花井)마을은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발전기나 태양열 온수기 덕분에 금방 눈에 띄는 마을이다. 35가구가 살아가는 이 작은 마을에는 60살 이하의 주민은 네다섯 명에 불과할 정도로 고령인구가 많은 곳이다. 비록 젊은이는 많지 않으나 화정마을은 매우 역동적이다. 화정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도량살리기운동을 시작했고 2005년에는 고산골 방죽에 자생하는 가시연꽃보전운동 전개했으며, 비닐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폐식용유 비누쓰기를 실천하면서 환경운동에 앞장서왔다. 지난 2005년부터는 바이오 기름생산과 폐식용유 수거 재활용, 우렁이 농법 등을 통해 친환경 운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기록들로 화정마을은 2008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에서 친환경 농촌마을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실천과 변화를 이끌어 온 주역은 ‘젊은’ 토박이 주민 김인택씨(50세)와 그가 몸담고 있는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주산사랑)들이다. 주산사랑의 살기 좋은 고향 만들기 노력을 바탕으로 화정마을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새롭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

1)우렁이논농사로 시작된 재생에너지 사랑

1980년대 중반 우연히 김지하의 생명사상을 처음 접한 김인택씨는 이후 크리스찬아카데미라는 시민 단체에서 ‘생명사상 기반의 주민자치’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다. 그는 한 강사로부터 “동네 안에 국가 있다”란 말을 듣고,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다. 조부모가 농사짓던 땅에서 처음 농사를 시작한 그는 1999년 관행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중 고장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부안의 배메산 석산개발 반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00년 이 모임은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발전했고, 다시 ‘주산사랑 영농조합’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이렇

게 탄생한 영농조합은 저농약 농법을 시작하고 우렁이논농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2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 미생물생산시설, 축분퇴비화시설, 왕우렁이 생산시설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이용이 시작되었다. 우렁이 양식장의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열을 이용하고 수온이 일정한 지하수를 퍼 올려 수온 유지에 활용한 것이다.

화정마을이 보여준 성장, 성숙, 그리고 성취(-> 화정마을이 보여준 변화와 성취)

1)유채농업 진보의 성과, 바이오디젤

주산 농민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협정이 발효되면서 보리, 밀 같은 이모작 작물을 대체할 품목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산사랑은 독일이 유채 농사를 짓고 유채기름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는 것에 착안해 유채재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3년 부안 방폐장 갈등을 겪으면서 대체 에너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라 유채재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흐름을 읽은 **김인택씨**는 2004년 당시 바이오디젤 생산을 선도하던 가야에너지사를 방문해 바이오디젤의 특성과 제조공정에 대해서 배우고, 2005년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주산사랑영농조합 총무 논에서 가장 먼저 유채재배에 돌입하였다. 이때부터 주산 농민들은 유채를 재배해 바이오기름을 생산,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구의 연료로 사용하고, 유채씨 기름을 짜고 난 유채박은 유기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폐식용유 재활용과 우렁이 논농법 등의 친환경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2006년 부안군 농민회는 유채 재배를 10만평으로 확대했다. 유채 재배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2009년에는 부안군에만 유채 재배 면적이 200만평에 달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채씨 기름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전개했는데 때마침 부안군이 이것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 유채씨 **재배가** 경제성을 맞추기 힘들다고 보고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지원을 종료하자 유채 재배가 다시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금 주산은 경관보전직불제에 따라 유채를 유채꽃밭 경관 조성용으로 재배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잠시나마 유채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주산 농민들은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유채기름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좋은 의도가 무색하게 곧 벽에 부딪히게 된다. 학교 버스와 농기계 등에 바이오디젤을 활용하려했지만 이런 방식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항 중에는 정유소를 통해 구입하거나, 자가 정비 시설 및 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 소속 차량만 바이오디젤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부안 농민들은 자격이 되는 부안군청이 소속 차량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법규가 완화되어 바이오디젤이 농촌에서 널리 이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2) 무모한 도전, 석유 없이 농사짓기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농사에도 석유가 필수적이다. 관행농법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는 생산과정에서 원료나 연료에 석유제품이 들어간다.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농기계도

석유가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듯 석유 생산이 한계에 달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가장 크게 타격받을 분야 중 하나가 농업이다. 주산사랑 회원들은 석유 고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탄소중립형 농사짓기 실천의 일환으로 ‘석유없이 농사짓기’를 하고 있다. 보통 트랙터, 콤바인, 광역방제기, 경운기에는 경유를, 이앙기, 살분무기, 예초기, 배토기 등은 휘발유를, 건조기에는 등유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와 윤활유를 탄소중립적인 식물성 연료로 대체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야 석유 없이 농사짓기가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김인택씨와 주산사랑은 농기계들에 경유 대신 가정에서 직접 소형 바이오디젤 설비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 1년간 주산사랑 회원들은 바이오디젤로 농기계를 움직여 농사를 지었고, 그 결실로 거둔 유기농쌀을 주산초교 동문들에게 판매해 28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다시 주산초등학교 급식을 위한 유채식용유 구입에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나온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재생산하고, 이를 부안군청이 청소차량에 활용하도록 하여 유채 농사의 순환시스템은 완성하려는 주산사랑의 희망사항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3) 화정마을, 그린빌리지로 거듭나다

2010년 2월 주산면 화정마을 주민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화정 그린빌리지’를 신청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희망주택 10호 이상인 마을이 대상이다. 그린빌리지로 선정이 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설치비의 2/3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었다. 주산사랑 회원들이 화정주민들에게 그린빌리지 신청을 처음 제안했을 때, 기대와 달리 주민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약 70세로 대부분이 고령인만큼 목돈을 들인 후 수년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3kW 태양광발전 설비 기준으로 주민들의 지출 액수가 약 5백만 원 정도라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주산사랑 회원들은 설비를 싸게 조달하고 시공비는 절감하면서 전북도나 부안군의 지원을 이끌어내면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영려 말라고 주민을 설득했다. 그리고 2010년 3월 그린빌리지로 선정되자마자 김인택씨와 주산사랑 회원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설비업체, 시공업체와 여러 차례 협상을 했고, 전북도와 부안군을 수차례 방문하며 화정마을 그린빌리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납품단가를 낮추고 지자체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화정마을의 각 가구는 백만 원 미만의 자부담만으로 태양광발전소나 태양열집열기 설치를 마쳤다.

화정마을은 38세대와 함께 마을회관, 자율방범사무소, 경로당, 주산초·중학교, 부안농협주산지소 등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 35세대와 마을회관, 자율방범사무소, 주산경로당 등에 태양광 30개, 태양열 9개, 지열 냉난방 3동 등 42개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2010년 12월 말까지 설치되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거나 점포, 사무실로 등록된 몇 가구를 제외하고 화정마을의 모든 가구가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공 여건상 태양광발전기나 태양열집열기가 기존 주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마을 경관이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린빌리지를 조성할 때 경관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립도 100%를 향하여

그린빌리지 사업에 동참한 민동식씨 집에도 3kW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되었다. 2011년 4월 한 달 동안만 살펴보더라도 425kWh나 되는 전기를 생산해 전기소비량 150kWh를 훨씬 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주산사랑 회원들은 '석유 없이 농사짓기'를 시도 하면서도 휘발유, 윤활유, 등유를 대체하지 못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니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적인 농사짓기가 가능해졌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10월 31일 부안 주산면 화정마을은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가 "탈 탄소 에너지자립을 향해 땀 흘리는 화정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화정마을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모든 화정마을 주민들이 친환경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유채를 활용해 석유없이 농사짓기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린빌리지 조성과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 화정마을은 그린빌리지를 넘어 에너지 자립 100%에 도전하고 있다. 주산사랑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100%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힌다. 부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농민, 학생 등 견학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늘어나자, 에너지 절약을 숭선수범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도 함께 강해지고 있다. 화정마을은 '탈탄소 에너지 자립'의 성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에 도전하려고 한다. 화정마을이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 실천이 더해져 명실상부한 탄소 중립형 농촌마을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화정마을 따라하기>

- 1 도랑 살리기, 비닐 쓰레기 소각 금지, 폐식용유 수거 등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친환경운동에 동참한다.
- 2 미생물생산시설, 충전퇴비화시설, 왕우렁이 생산시설 등을 통해 유기농법을 연구하고 친환경 유기농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
- 3 농기계에 사용되는 연료와 윤활유를 탄소중립적인 식물성 연료로 대체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 4 유채를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 석유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며 탈 탄소를 시도한다.
- 5 마을 주택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와 태양열집열기를 설치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다.

미래를 향한 마을의 문을 열어 준 달팽이 학당

삼지내마을

[전문] 백제 시대 때 만들어진 다양한 돌담들이 인상적이어서 일명 ‘돌담마을’로 유명했던 삼지내마을. 이곳은 요즘 우리네 전통과 생활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려는 사람들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슬로시티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달팽이 학당’을 통해 소중한 문화 예술을 전파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진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삼지내마을의 성공 스토리를 찾아가 본다.

글 | 김향자

담양군 청평면에 위치한 삼지내마을은 백제 시대에 형성된 돌담이 유명해 ‘돌담이 예쁜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삼지천마을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마을의 동편으로 월봉산, 남쪽으로 국수봉이 솟아 있고 마을 앞을 흐르는 천(川)의 모습이 봉황이 날개를 뻗어 감싸고 있는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지내마을은 백제 시대에 형성된 마을로 현재는 150가구 500여 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고씨 집성촌으로 90년~100년 이상 된 고택이 많이 남아 있어 다양한 질감의 돌담길을 걸으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삼지내마을에는 창평 쌀엿, 옛강정, 한과, 진장 등 전통음식을 만드는 명인들이 적지 않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식품인 창평 쌀엿은 이 지역에 부임한 현감들이 궁중 대감들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역사와 맛을 자랑하고 있다.

돌담마을에서 슬로시티로

전통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던 삼지내마을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7년 12월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한 이후부터다. 슬로시티는 유럽에서 시작된 일종의 커뮤니티 운동으로 ‘슬로우한 삶을 지향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타이틀이다. 다국적 기업의 음식 문화가 사람들의 입맛을 획일화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데에 반발하여 만들어진 운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농작물을 키우고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 전통적인 방식을 지키고 보급하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다. 슬로시티의 로고인 달팽이 문양은 마을을 등에 지고 가는 달팽이를 형상화한 것. 느림을 상징하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전통의 방식을 고수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삼지내마을의 돌담은 지방 문화재로 지정, 관리돼 왔을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다. 한데 슬로시티 가입을 계기로 이곳은 오히려 돌담마을이라는 이미지보다 슬로시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세를 타게 됐다.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컸다.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담양군 청평면이 비전으로 내세운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맛있는 마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눈 맛’의 전략, 창평 슬로푸드 육성 및 개발을 통한 ‘손 맛’의 전략, 생태 및 자전거 탐방로를 통한 ‘발 맛’의 전략 등 세 가지의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슬로시티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은 마을 주민의 생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

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슬로시티 운동이 자치단체의 주도로 흘러가면서 정작 주민들은 구경만 하고 떡이나 얻어먹어야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추진된 사업은 돌담길 개보수, 실개천 복원, 아스팔트 도로의 흙길 교체, 옛날 기와 복원 등 뻥한 수준의 물리적 시설 정비 사업 정도가 전부였다.

실질적인 마을 발전의 길을 터 준 달팽이 학당

(1) 달팽이 학당이 새로운 미래의 전통을 만들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9년부터지만 사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없었다. 제대로 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슬로시티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된 것은 2009년 4월, 달팽이 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다. 달팽이 시장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린, 지역과 마을 주민들의 행사였다.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수산물을 들고 나와 팔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임으로써 하나의 볼거리이자 즐길거리로 자리 잡게 됐다.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터를 비롯해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꿀짜가 일등이 되는 느림보 자전거 경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면서 달팽이 시장은 마을의 작은 축제로 발전했다. 시험적으로 추진한 달팽이 시장이 이제 마을 주민의 문화적 소통의 장소이자 이 마을만의 독특한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 입장에서는 마을의 문화와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생겨났다. 사무장을 비롯한 시장 사람들의 고민은 다시 시작됐고, 언제나 재미있는 체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처음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과 업체나 된장 명가 기순도 등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됐지만 소수 아이템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 주민 전체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폭넓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다시 고민하게 된 삼지내마을. 이들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미 방송매체 등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해져 있었던 빈도림, 수의, 자연밥상 등이었다. 결국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교사가 되고 관광객이 학생이 되어 마을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 마을사업협력단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존 달팽이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자 ‘달팽이 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곧 천천히,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즐기고 배워 나가자는 슬로시티의 정신을 담은 것이었고, 마을을 배움과 체험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지역 공동체 발전의 비전을 담은 것이었다.

(2) 배움과 체험, 마을 주민과 외지인들의 특별한 만남

마을에는 수백 년이나 이 터전을 지켜 온 어른들이 살고 있다. 어떤 이는 창평의 들녘과 산에서 채취한 약초로 음식을 만들고, 어떤 이는 전통의 방법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다. 또한 어떤 이는 손으로 직접 수의를 만들어왔다. 마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삼지내마을과 함께 지켜 온 이런 전통과 생활 문화가 달팽이 학당을 통해 외지인들과의 소중한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마을의 미래를 위해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현재 달팽이 학당은 크게 ‘민가에서 하루 교실’, ‘슬로푸드 밥상 교실’, ‘몸으로 배우는 생활 문화 교실’로 나뉘어 총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민가에서 하루 교실은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집에 담긴 문화와 매력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 한옥을 수리하거나 개량하여 손님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는 단지 한옥에서 민박을 하는 개념을 벗어나 집집마다 지니고 있는 다른 생활문화를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체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끓인 구수한 누룽지와 장아찌 밥상이 제공되기도 하고 정갈한 고택에서 향기 좋은 차를 즐길 수도 있다. 중부의 다실에서는 가문과 여인, 음식과 예식에 대한 전통을 배우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 볼 수도 있다.

슬로푸드 밥상 교실은 약초밥상과 텃밭밥상, 산골밥상이 운영 중인데 모두 자연이 선사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과 비용은 교실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약초밥상의 경우는 월, 수, 금, 토, 일요일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데, 직접 산에 올라 약이 되는 식재료를 찾아 내게 필요한 만큼 채집해 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1인당 1만 원의 비용으로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고 건강한 밥상을 체험할 수 있다.

몸으로 배우는 생활문화 교실은 손에서 손으로, 몸에서 몸으로 전수한 삶의 지혜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야생화 사진가에서 야생화 농부가 된 교사를 따라 산으로 오르기도 하고, 야생화 꽃밭에서 야생화를 채취하여 효소를 만드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산행 채취는 첫째 주 월요일마다 4명 정원으로 진행되며, 텃밭 채취는 넷째 주 월요일 5명씩 팀을 이뤄 참여가 가능하다. 비용은 모두 1인당 1만 원.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계절마다 잠시 피고지는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치유 효능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야생화 효소단지를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 빈도림 교사와 행복은 삶의 실천에서 온다고 믿는 이영희 교사 부부가 진행하는 빈도림 생활공방은 꿀초, 자연화장품, 생활바느질을 배우는 생활 공방이다. 비용은 3천 원에서 1만 원까지이며, 30분 혹은 1시간으로 진행된다.

달팽이 학당이 성공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

(1)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은 공동체험장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달팽이 학당은 주인이 개별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주민들 각각의 생각이나 특성을 살려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의 개인 역량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도 하고 평판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에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주민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각 주민들마다 n분의 1씩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은 예산 지원을 받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슬로시티 삼지내마을의 사무장이었다. 그는 불만을 들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재료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는 곧 마을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다양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득한 것. 덕분에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만을 들어 주고, 부족한 점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주민들도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됐다.

직접 체험을 하고 음식도 함께 즐기는 밥상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과 상관없이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직접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른바 상업화의 폐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도 역시 사무장은 주민 상호간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유도하고 진심어린 설득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2)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배워가는 자세

사실 달팽이 학당을 운영하는 주민교사들이 모두 학당을 꾸릴 만한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막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경우 운영 미숙으로 체험객들의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교사 스스로 배우고 노력한 결과 프로그램이 점차 좋아졌다. 이렇듯 달팽이 학당은 주민들 스스로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의 소그룹 모임 활성화도 큰 역할을 했다. 달팽이 학당의 모임 구성과 함께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조직적 운영이 빛을 발한 경우가 대규모 단체 예약이었다.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을 경우 집집마다 분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학당들이 서로 분산해서 밥은 어디에서 먹고, 잠은 어디에서 자고, 어떤 학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등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나갔다. 달팽이 학당의 책임교사인 '빈도림'의 이영희 선생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을 위한 서로간의 만남이 잦아졌고, 집집마다 직접 체험을 해 봄으로써 자체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또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집들은 서로 배우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명인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득해 갔다.

주민들의 자긍심이 마을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달팽이 학당 운영이 선사한 가장 큰 의미는 학당을 책임지는 '선생님'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이제 달팽이 학당 주민들의 얼굴에서는 자신감과 열정이 묻어난다. 야생화 효소를 운영하는 여교사는 달팽이 학당이 아니었다면 집 대문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고 가르칠 기회도 없이 그저 혼자만의 공간 안에 갇혀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팽이 학당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삶의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주었다며 환하게 웃는 그녀.

현재는 14가구만이 달팽이 학당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변화가 다른 주민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한 듯하다. 10여 가구 이상이 달팽이 학당 운영을 희망하고 있어 2012년에는 지금보다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팽이 학당은 주민 개개인이 교사가 되어 본인만의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인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동아리를 한다거나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공동체와는 그 운영 면에서 조금 다른 성격을 띤다. 누군가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사업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체험 교실은 달팽이 학당이라는 큰 틀과 체계 아래에서 운영된다는 점, 수시 및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 및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이 마을의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마다 장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이들이 힘을 합쳐 지역 공동체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향토 기술을 발굴하

여 상품화해 나가는 과정은 분명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삼지내마을 주민들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고민과 희망이 싹트고 있다. 체험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달팽이 학당에서는 물건의 판매가 어렵고 본래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일하기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달팽이 시장과 같은 비상설 판매가 아닌 특산품의 상설 판매 방법이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달팽이 가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달팽이 가게는 단순히 특산품 판매장이 아니라 대안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순환 시장의 개념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마을의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달팽이 가게는 주민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득 창출을,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소통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지내마을 따라하기

1. 달팽이 학당과 같은 그 마을만의 고유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
2. 주민들 스스로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기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
(예: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저마다 장인으로 성장해 가는 주민들)
3. 다양한 모임과 활발한 의견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시 및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 및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감)
4. 달팽이 학당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소득원 창출을 꾀하는 등 지속적인 도전 의식을 갖는다.(예:달팽이 가게)

문화로 하나 되는 마을 공동체의 롤모델 제주 가시리마을

[전문]

제1의 여행지로 꼽히는 제주. 그 중에서도 목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가시리마을은 독일의 우파 파브릭 마을처럼 문화와 예술의 향취가 가득한 곳이다. 가시리문화학교를 비롯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름다운 목장 마을에서 마음과 감성을 살찌울 수 있는 마을로 재탄생한 것. 섬 지역의 작은 마을이 한 마을 되어 시도한 문화적 실험이 지역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 놓는 획기적인 디딤돌이 된 셈이다.

글 | 김향자

제주시에서 표선면을 향해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동목장과 정석비행장이 나온다. 이곳이 가시리 지역이다. 경기도에도 가시리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다. 이곳은 액운과 귀신을 막아 준다는 가시나무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제주도의 가시리마을은 가시오름 마을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됐다. 원래의 마을 이름에서 느껴지듯 가시리는 설오름, 병꽃오름, 따라비오름, 갑선이오름 등 예쁜 이름을 가진 열세 개의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녹산로도 유명하며, 이곳의 유채꽃 길은 환상적인 코스로 소문나 있다. 600년의 설촌 역사를 가진 가시리마을은 중산간 지대의 분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선 최고의 군마를 키워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광활한 목장 길을 따라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 있는 잣성(목장의 경계를 나누는 돌담)은 이곳의 좋은 구경거리. 조선 시대 당시 갑마장이 위치해 있던 장소는 현재 마을 공동목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제동목장, 가시목장, 해림목장 등 개인이 운영하는 목장이 있다.

단절됐던 마을이 빗장을 풀고 세상과 만나다

가시리는 제주에서 비교적 잘 사는 마을에 속하지만 남다른 아픔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48년 4.3사건 당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고 1,100여 명의 마을 주민 중 절반이 희생당해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로부터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보내 왔고, 발전에도 무관심하여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이 마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 이후 딱히 마을 자체 사업이 없었던 이곳은 뒤늦게나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한 번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선정 탈락에 대비하여 신문화공간조성사업도 함께 신청을 했다. 운 좋게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두 가지 사업 모두 선정됨으로써 정부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3년간 지원받게 되는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

이외에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에도 선정돼 마을 외곽 지역에 풍력단지가 건설되는 등 적절한 시점에 두세 개의 정책 사업 추진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용하던 이 마을에도 드디

어 변화가 찾아왔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역 고유 문화 복원을 시도하고 문화를 매개로 하여 균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마을 공동체 문화의 시발점, 신문화공간조성사업

(1) 문화 공동체의 시작이 된 가시리문화학교

세 가지 사업 중에서도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마을 공동체 문화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창조적으로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비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다.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시리문화학교가 운영에 들어갔고 평소에 주민들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친숙한 동아리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가시리밴드, 타악 동아리 두드림, 어린이 영상 교실, 악초체험, 국궁 교실, 목공 교실, 전통 등 창작 교실, 천연 염색 체험, 노래 교실, 기공체조, 댄스스포츠, 어린이 댄스스포츠, 가시리 공부방, 승마 아카데미 등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

가시리문화학교는 단순한 문화를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다. 마을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며 소통의 장소다. 소리로 소통하고 눈빛으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고 습득하면서 함께 해 나간다.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 자산을 개발함으로써 마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동력을 구축해갔다.

가시리마을은 제주도의 어느 마을처럼 주민들의 생활 자체가 매우 분주하게 돌아간다. 복합 영농으로 4계절 내내 일이 이어지고 경조사, 잔치, 모임 등도 수시로 있어 제대로 된 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들이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주민들 중에는 악기 연주에 소질이 있거나 댄스를 즐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간이나 기회가 없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문화적 욕구에 불을 지핀 동아리 모임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오고 문화 활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2) 문화를 향유하면서 커가는 주민들의 자긍심

그동안 가시리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문화 활동 한번 하고 싶어도 때마다 도시로 나가야만 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디자인카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곳 주민들도 편안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향긋한 커피와 함께 책도 읽고 모임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카페가 가시리 마을 주민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덕분에 주민들은 ‘우리도 도시와 동일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향수를 자극하는 연필 모양을 형상화한 디자인도 독특한데, 연필 개수가 마을 주민의 수와 같다. 주민이 한 사람 더 늘게 되면 연필도 똑같이 늘어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낸 노력도 인상적이다.

또한 가시리에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창작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 창작지원센터가 있다. 작가를 선정하는 작업은 예술적 감성을 통해 마을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창조적 영감을 지닌 예술가와 마을이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문화 레지던시는 주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채 운영되거나 그저 예술가들만을 위한 프

로그래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가시리창작지원센터는 독일의 우파 파브릭 처럼 ‘머뭇예술가’를 초대하고 이들을 통해 좋은 문화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가시리창작지원센터에 이어 가시리사무소 옆에 조성된 가시리문화센터 역시 마을의 문화 인프라를 높인 소중한 성과다. 제주의 한 마을에서 이 만큼 큰 규모의 문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가시리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제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주민들은 일본 가나자와의 시민문화예술촌도 부럽지 않다.

이외에도 현재 가시리마을에는 목축문화박물관을 짓고 있는 중이며, 올 연말이면 가시리의 새로운 역사가 또 하나가 탄생될 것이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윤택한 문화 마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다.

무관심에서 진정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1) 주민들의 무관심병을 타파한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어떤 사업에도 어려움은 있다. 가시리마을도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마을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무관심.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그저 건물이나 짓는 개발 사업 정도로 넘겨 버리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태도였다. 이처럼 문화는커녕 기본 마인드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들을 어떻게 사업에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태도를 180도 바꿔 놓은 것이 바로 어린이 문화프로그램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디자인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을 따라온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어린이들의 문화 활동이 어머니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기반이 된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로까지 이어졌다.

이렇듯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문화 활동 전개가 가시리마을의 문화 공동체 확대에 중요한 키 역할을 했다. 어린이들의 문화 활동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옮겨가고, 이것이 확대돼 가족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사례. 결국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축제도 가능해졌으며, 더욱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2) 마을을 하나로 묶어 준 축제의 재발견

가시리문화센터 준공 기념으로 개최된 마을축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선보였지만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것은 동아리 모임의 발표회였다. 할머니부터 엄마, 삼촌,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들이 그동안 문화 동아리에서 같고 닮은 솜씨를 마음껏 뽐낸 무대였다. 축제가 개최되는 시간 내내 주민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이었다. 이런 감동적인 체험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실상 1억5천만 원이 지원되는 유채꽃 축제는 제주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축제지만 수익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로만 커져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주민들이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반면 단 하루 열리는 이 행사는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진정한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도 됐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참여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포인트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집행위원이 되어 함께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애乡심을 키울 수 있었다. 어린이 집행위원들은 결과 면에서도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더욱 많은 부모들의 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3) 문화기획자의 영입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가시리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성공에는 무엇보다도 마을 추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반적인 마을 사업들이 관련 사업체가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가시리에서는 마을의 추진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주관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기획력을 갖춘 문화기획자인 지금중 선생을 영입해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겼다. 이로써 기획에서부터 세부적인 실행까지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예 주거지도 가시리로 옮겨 마을 주민의 일원이 돼 함께 생활하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 없이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가시리디자인카페, 가시리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 조성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고, 12월에는 목축박물관까지 개관한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증가될 수밖에 없는 물류비용을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성과다. 조성된 건물들은 기능 및 역할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형태, 즉 디자인 측면에서도 독창성이 뛰어나다. 가시리문화센터의 내부는 열린 공간으로 디자인됐으며, 창작지원센터 또한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설계로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 더욱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뤄냈다.

마을의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위한 숙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마을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주민의 문화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은 가시리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학교의 문화 동아리 모임은 개인이 좋아서 모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지 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금의 동력을 끌고 가기 위해 상호 이해의 노력이 필요해지는 대목이다. 다행히 현재 문화센터는 장비대여, 식당 운영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익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공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마련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 추진위원회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계속해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문화 활동과 경제 활동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 생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숙제는 유채꽃 축제처럼 관광객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 마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인 성장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문화 발전의 새로운 롤모델로서 가시리마을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시리권역 따라하기

1. 마을에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킨다.

(예:가시리문화학교, 가시리창작지원센터, 디자인카페 등)

2.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바꾼다.

(예:어린이 문화프로그램)

3. 문화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고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예:창의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문화기획자 지금종 선생 영입)

4. 문화 공간 하나를 지어도 창의적이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다.

(예:디자인카페)

마을 원주민과 귀촌인들의 아름다운 어울림 해살이마을

[전문]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이를 근간으로 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성장 일로를 달리게 된 해살이마을. 이곳의 대표적 공연으로 자리잡은 관노가면놀이처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문화 예술 상품으로 더 풍족하고 행복한 마을을 일구어 가고 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관노가면놀이를 통해 원주민과 귀농인 간의 소통과 화해의 물꼬를 연 것처럼 해살이마을의 운명은 이제 문화 예술의 향기 안에서 늘 함께 할 것이다.

글 | 김향자

강릉의 웰빙 체험 마을 중에서 소문난 마을이 해살이마을이다. 2005년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해살이마을은 강릉시에서 북동쪽으로 20분 정도 가면 위치해 있는데,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 마을의 원 명칭은 사기막골이다. 200년 전 도공들이 사기 막사발을 만들던 움막이 많아 사그막 또는 사기막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 유래다. 지금도 마을에서 공사가 있을 때마다 사기그릇 잔흔이 발견되기도 한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시작될 즈음 때마침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등록되면서 단오와 연계한 마을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기획을 하게 됐고, 마을 이름도 단오를 연상할 수 있는 해살이로 정했다. 해살이는 창포를 말하는데, 별이 들기만 하면 잘 자란다 하여 '해살이풀'이라고 명명한 데서 나온 이름이다. 요즘에는 희귀식물이 된 창포이건만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한 환경을 자랑한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망이 피워낸 성장 스토리

(1) 마을 공동부지 매입이 당긴 성공의 불씨

해살이마을은 어느 곳이나 태백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강이 함께 흐르고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멋진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마을의 발전 방향과 환경 조성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가장 많이 고려해 진행됐다. 또한 마을을 특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요소와 마을 내 자원 및 자산을 활용해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었으며, 오염되지 않은 청정함도 지킬 수 있었다.

다른 마을보다 늦은 2005년에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해살이마을. 후발주자였던 만큼 관련 시설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마을을 알리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함에 따라 마을 홍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제를 고려하게 됐다. 이곳은 이미 10만 주 이상 되는 개두릅 나무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테마로 한 개두릅축제를 개최하게 됐고 이에 따라 개두릅축제 마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된 것은 마을에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받았던 2억6천만 원

의 보상비로 마을의 공동부지를 매입하면서부터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보상을 받을 경우 마을의 가구 수별로 배분하는 것이 상례였다. 가구 수가 총 120가구이니 한 집 당 100만원 정도씩 돌아가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인 김미령 농촌지도사의 권고로 마침 매물로 나와 있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살이마당과 체험관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마을의 공동부지 마련은 결국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 주었다. 이외에도 정보화사업, 문화원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점점 더 탄탄해지기 시작했다. 김미령 농촌지도사가 직접 기획을 담당하고 전문가가 마을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은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해살이마을은 2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5년 동안 지원받았는데, 이는 강릉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마을의 하나였다. 그동안 마을 축제, 문화체험 프로그램, 관노가면극 등 다양한 행사 지원이 있었고 29필지의 공동부지와 함께 가공장, 체험관, 해살이마당 같은 문화 시설이 들어섰다. 연간 7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해살이마당은 체험관, 한옥민박에서의 수입을 포함해 순수익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른다.

사업이 순탄하게 성장하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121가구였던 것이 이제는 142가구로 늘어났을 만큼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마을을 찾는 연간 방문객 수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체험관광객 및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연간 3만 명이 넘는 추세.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해 음식, 숙박,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면 총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문화 공동체의 중심이 된 관노가면극회

해살이마을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의 공동체적 추진을 위해 회원제 운영을 결정했다. 35명의 주민 회원들이 각 20만 원씩 출자금을 대고 매월 5만 원의 회비를 납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원제 사업과 마을 전체 사업을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한데 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일방적인 봉사만 강요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이에 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을에서 문화 사업을 추진해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살이마을에도 다른 농촌 지역처럼 귀촌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농촌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 전혀 연고가 없이 이곳이 좋아서 온 사람 등 사연은 다양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마을에 들어와 살아도 마을 주민들과 잘 융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마을을 일구며 살아 왔던 원주민들로서는 낯선 이들이 자신들의 터전에 들어와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걸 원치 않을 게 당연하다. 때문에 귀촌인들이 어떻게든 마을에 정착해 살아 보고자 원주민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원주민이 아니라 귀촌인들이었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일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마을 원주민보다는 귀촌인들이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해살이마을이 마을 사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 시작한 것은 관노가면극이다. 문화원 사업비를 받아 2006년도부터 관노가면극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 추진위원장이 직접 사람을 모집하며 구심점 역할을 했다. 초반에는 좀처럼 나서려 들지 않던 이들이 옆에서 신나는 연주 소리가 들리고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자 자연스럽게 북, 징, 팽과리 등을 직접 배워 보기도 하면

서 하나 둘 현장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30명으로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춤꾼이고 악사였다. 귀촌한 어떤 사람은 이 모임에 끼기 위해 두 달 동안 자비를 들여가며 혼자 연습했다고 한다.

현재는 단오제 때 세 번 이상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마을축제 때의 집중적인 공연 외에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공연을 할 정도의 연주 실력을 갖추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최소한 5년 이상 해야 ‘어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이니 사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대부분은 아직 초보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어떤 이는 공연을 하기 전에 청삼환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막걸리를 한두 잔은 마셔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니 웃음이 나기도 한다. 고생스럽게 공연을 하고 나도 언제나 미련이 남고 실수에 대한 후회가 찾아오지만 그들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건 내일의 발전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스]

해살이마을 관노가면극회

- 강릉에는 관노가면극회가 성인 6개팀, 학생부 10개팀으로 16개 정도의 관노가면극회가 있으며, 남녀혼합팀으로는 해살이마을의 관노가면극회가 유일하다.

- 관노가면극은 주신(主神)인 대관령국사성황과 대관령국사여성황을 봉안하고 음력 5월 1일부터 화개(華蓋)를 꾸미어 서낭당 앞에서 연희(演戲)하는 전통 민속이다.

-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4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 단원:24명(평균 연령 45세)
- 모임주기:매주 2회(월, 목 저녁 7시)
- 연습장소:해살이 전통문화체험학교

작은 시작에서 이뤄낸 큰 성공, 하지만 그 이후

(1) 마을 주민과 귀촌인들의 계속되는 소통의 노력

앞서 설명했듯 마을 주민들과 귀촌인들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공동체는 이들의 소통을 이어줄 수 있는 대안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그나마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문화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관노가면극회가 있었다. 주 3회 진행되는 연습 일정은 1시간의 공연 연습과 2시간의 친목 시간으로 활용된다. 상호간에 속마음을 털어 놓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져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함이다.

5년이 지난 현재에도 관노가면극 공연이 올려지기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고는 한다. 아직 서로 간에 불신과 부조화의 벽이 허물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노가면극회 회원들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있다. 방문객들이 체험을 원할 경우 관노가면극 공연을 해주고 공연 이후에는 그룹별로 나누어 쟁과리, 징, 북 등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춤은 가르치기 어렵지만 사물은 금방 배워 볼 수 있고 다들 재미있어 한다. 마을 주민들이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일은 주민들 간에 필요한 소통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돼 주고 있기도 하다.

(2) 버는 것만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지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20억 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했다. 강릉시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마을이었고 이것이 마을 발전에 실질적 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업은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업비 이외에 상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것이 문제였다.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만큼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고생 끝에 받게 된 상금이 정작 마을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자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 낸 것. 사업비의 경우 정해진 사업 과목별로 정확히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상금의 경우는 마을 자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명확한 내역을 알 수 없다. 전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상금을 사용한 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자 이에 대해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불신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농촌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추진력과 함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다. 사업비는 물론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1) 변화를 꿈꾸는 자의 리더십과 잘 따라준 주민들

마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한다. 알맞은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마을의 리더가 있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해살이마을이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변화를 꿈꾸는 리더들이었다. 전 추진위원장이 보여준 마을에 대한 비전과 행정가(담당공무원)의 열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컨설팅 업체의 전문적 기술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특히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의 김미령 농촌지도사는 5년 동안 마을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남다른 노력을 쏟았다. 그녀는 직접 기획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수시로 회의도 하면서 마을 발전에 대한 방향을 슬기롭게 잡아 나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발전 기반이 된 것은 마을 사업의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였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으나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잘 따라주었던 것이 지금의 해살이마을을 있게 한 것이다.

(2) 설화인형극, 마을의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대하다.

작년부터 마을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설화인형극을 시작한 것이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에서 우여곡절 끝에 2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받게 된 것. 덕분에 작년 6월부터 기획을 시작해 올해 개두릅축제 때 해살이마당에서 설화인형극을 올리게 됐다. 이미 많은 사업비를 받은 터라 한쪽 마을에 예산이 너무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테마가 창의적이고 특성이 있어 사업비를 받은 것이다.

설화는 개두릅 동박이소 할머니 이야기이다. 이를 설화인형극으로 엮어 내기 위해 관노가면극회 회원 24명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동네 청년들이 모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청년들과 어른들이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 간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됐다. 공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30~40분 공연에 30~4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전통 문화의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어느 정도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인 셈이다. 설화인형극이 잘 되니 마을 주민들은 신문화사업을 통해 옛날 문화를 살린다는 명분과 함께 마을에 남아 있는 소리꾼 두 명으로부터 소리 전승을 받기 위해서라도 상여 문화를 재현시켜 보고자 하고 있다. 잘 다듬는다면 농악경연대회에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상여 틀을 만들고 상여가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귀촌인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살이마을 따라하기

1. 마을 보상비를 헛되이 쓰지 않고 마을 공동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사용한다.
(예:마을 공동부지 매입)
2. 문화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 자긍심을 높이며 마을의 발전을 꿈꿔 나간다. (예:관노가면극)
3. 문화 공간을 활용해 원주민과 귀촌인들의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마련한다.
(예:관노가면극회 연습 시간을 활용한 친목 도모)
4. 진취적인 열정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의 리더십, 그리고 주민들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예: 전 추진위원장, 담당공무원, 전문 컨설팅 업체의 삼위일체, 그리고 이를 잘 따라 준 주민들)
5.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예:설화인형극)

마을을 수놓은 화려한 꽃 잔치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전문]

사방이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마을, 예로부터 마을풍수가 워낙 좋았던 작은 산골마을에 벼 냄새가 아닌, 향긋한 꽃향기가 불기 시작했다. 매년 가을이면, 들판이 온통 꽃 천지로 만개한 연분홍빛 코스모스가 바람에 일렁이며 거대한 꽃물결을 이루는 북천 직전마을. 50여종의 희귀박이 주렁주렁 매달린 조롱박 터널, 하얀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메밀꽃밭, 울긋불긋 토종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꽃의 향연을 펼치는 직전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고향이기에 더욱 향기롭고 아름답다.

글 | 부숙진

지리산을 흐르는 섬진강이 포근히 감싸 안은 곳,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네티즌이 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선정되기도 한 경상남도 하동. 이런 하동군의 동남쪽에 자리한 작고 예쁜 마을이 바로 북천이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하동의 북천면은 이명산, 천황봉, 탕건봉, 비안봉, 하일봉과 마안산이 병풍을 이루어 농경지보다 임야가 많은 편. 1914년부터 하동군 북면, 곤양군, 진양군 대야천면 3개 군을 병합, 북천면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1982년부터는 현재의 16개 마을로 형성되어 왔다. 하동군의 4.9%에 해당하는 32.96km² 작은 면적에 926세대 2000여명이 모여 살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쌀농사 외에 고령토, 밤, 딸기, 토마토 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열리는 곳은 **북천면 직전리 직전마을** 주변. 직전마을은 80가구 250여명이 모여 사는 아담한 시골마을로, 피가 잘 자라 곡식이 잘 익고 흉년이 없어 배고픔을 모르는 곳이란 뜻의 ‘피밭’, 즉 ‘직전(稷田)’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마을을 환하게 웃음 짓게 만든 축제의 향연

(1)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마을로의 변화

북천 직전마을은 200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멋진 산세를 지녔지만, 사실상 2006년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는, 그저 그런 마을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이름 난 ‘야생화 축제’를 비롯하여 ‘고로쇠 축제’와 ‘화개장터 벚꽃 축제’로 알려진 화개면이나 ‘술상전어 축제’로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진교면, 박경리의 ‘토지문학제’와 같은 분명한 문화체험거리가 있는 악양면과 비교하면 더더욱 말이다. 변화는 2005년 7월, 이 지역 출신의 흥준태 부면장이 부임하면서 시작했다. 쌀농사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논에 꽃을 심어보면 어떨까하는 그의 생각이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일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우선 과제였다. 논 주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논에 꽃을 심고 주인에게는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에 군 지원금을 보태 소득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결국 논 주인들은 1헥타르 당 7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2006년 봄, 본격적으로 파종에 들어갔다. 11.6헥타르 땅에 코스모스(6.5헥타르)와 메밀꽃(5.1헥타르)을 심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도 2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왔다. 입소문이 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화사한 꽃 경관을 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전리를 찾았다. 2006년 가을, 직전마을을 찾은 방문객이 약 20만 명. 간이판매점과 음식점 매출만 어림잡아 1000만원이 되고 보니 자연스레 뭔가 해야 할 것 분위기가 조성됐다. 결론은 '축제'였다. 지속적으로 외부인을 끌어들이, 이렇다 할 모양새를 갖춘 행사가 필요했던 것. 드디어 2007년 9월 28일, 별다른 홍보도 없는 상황에서 제 1회 북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열렸다. 그렇게 축제의 막은 오르고 변화는 시작되었다.

(2)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르다

축제는 계속되었지만, 홍보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았고, 주민들은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2007년 1회 축제에는 20.8헥타르(코스모스 8.8헥타르, 메밀꽃 12헥타르)의 경관식물을 심었다. 44만 명이 축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때 비협조적이던 일부 주민도 당황스러우리만치 뜨거운 방문객들의 반응에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소득증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2008년 2회 축제 때는 이병주 문학관 쪽으로 10헥타르를 더 늘려 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조성엔 30농가가 참여, 전체 30.3헥타르(코스모스 15.9헥타르, 메밀꽃 14.4헥타르)로 이전보다 한층 화려하고 멋진 경관이 연출됐다. 무려 70만 명이 찾았던 2008년 축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 경전선 철도가 지나가는 북한역이 북한코스모스역이란 이름으로 변경된 것이다. 게다가 평소 하루 역 이용객이 10명 남짓하던 수준에서 축제기간 중엔 하루 2000~4000명까지 눈에 띄게 급증, 북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북한코스모스역을 그야말로 유명 관광 역으로 탈바꿈시켰다.

시작은 미비했지만, 북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매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꾸준히 진화했다. 2009년 3회 축제에서도 그 변화의 모습은 역력했다. 2008년보다도 9헥타르를 늘린 40헥타르의 꽃밭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했으며, 북한코스모스역에 임시열차를 늘리고 2억여 원을 들여 축제를 준비했을 정도. 분쇄기, 박피기, 탈피기 등 메밀가공 시설지원에 1억4천만 원의 지원을 받은 직전마을 주민들은 특성화된 메밀을 자체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축제장 안에서 판매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바람 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수산물 부수도 20동에서 30동으로 확대했으며, 가족단위 체험객들의 숙박은 마을 내 민박시설로 유도하는 등 축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또한 행사기간 중 안전사고를 대비해 국도에서 주무대간 진입로를 확장하고 물레방아 체험마을 연결다리를 설치했으며 장애인과 노약자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투자도 함께 이뤄졌다.

2010년은 참여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이전의 프로그램이 주로 꽃밭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거나 전시된 농기구와 분재를 관람하는 등 주로 볼거리에 치중했다면, 2010년 4회 축제부터는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연날리기와 새끼 꼬기, 가을 가족 운동회와 보물찾기 같은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코스모스가 늦게 핀 4회 축제의 경우, 축제기간을 일주일 연장하여 27일 동안 계속 진행됐는데, 61만 명의 방문객과 70억 원이라는 지역경제효과를 거둬 만족을 넘어 사는 즐거움까지 느

끼게 해줬다.

2011년 5회 축제 현장의 열기는 더 뜨거웠다. 눈에 띄는 건 더 이상 직전리만의 축제가 아니었던 사실. 면단위로 확대되어 주변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하는 보다 규모 있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강화된 참여 프로그램은 마당극과 학생들의 팝 공연, 그림그리기 대회, 조롱박 공예, 코스모스 탁본, 야생화 압화 등으로 보다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축제의 특성상 중반으로 갈수록 꽃밭의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흐뭇한 풍경이 연출됐다. 북천코스모스역에는 여전히 사진작가들과 외부 방문객들로 붐볐고, 관광코스 중 하나가 된 식당촌의 메밀국수 맛은 단연 최고였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꽃보다 아름다운 열정과 노력

“안 된다”, “득이 없다” …. 경관보전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동안은 주민들의 이런 부정적이고 싸늘한 시선과 맞서야 했다. 매력적인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을 빈틈없이 꽃밭으로 가꿔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누군가가 나서야 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문병현 축제추진마을 위원장이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의 애타는 노력에 더해진 리더로서의 자신감은 어느 새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안겨주기 시작했고, 주민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열어 축제 현장을 준비하는 귀한 일손으로 변화시켰다. 소극적이던 주민들이 조금씩 참여를 더한 데는 20명 남짓한 면사무소 직원들의 땀방울도 빼놓을 수 없다. 꽃 단지와 넝쿨터널 등을 만들기 위해 면사무소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은 거의 반납해가면서 꽃길에 씨를 뿌렸고 못 쓰는 비닐하우스를 재활용해 넝쿨터널을 설치했다. 주민들을 감동시킨 그들의 솔선수범 자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터널에 장식될 뽕오이 등을 미리 키운 다음 현장으로 옮겨와 매다는 작업까지 모두 그들의 몫이었으며, 조롱박터널의 인기로 밤늦게까지 관광객이 몰리면서 직원들은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 일췌였다. 행여 누군가가 조롱박을 따갈까 봐 돌아가면서 밤 새 보초를 서기도 했던 일화는 잔잔한 감동이 되어 돌아왔다.

평균 연령 70세의 메밀 작목반과 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주민들까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거름으로 북천의 작은 마을축제는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지역축제로 활짝 꽃 피울 수 있었다.

향기로운 꽃향기의 여운, 거기에서 찾은 새 희망

굳이 가을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을 꾸준히 끌어들이려면 먼저 이 아담하고 예쁜 마을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터. 북천은 축제를 통해 이제 막 첫 꽃봉오리를 피운 셈이다. 그리고 농촌경관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전국 규모의 성공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 축제와 연결하면 메밀과 같은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가공·판매까지 농가의 소득원이 창출돼 작고 소외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마을 주민이 하나 되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도구로 축제만한 것이 없다는 것,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제 더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어떤 거름을 줘야 할 지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멀리 뛰어오르기 위해 움츠린 개구리처럼, 힘찬 도약을 꿈꾸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철저한 준비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미다.

북천코스모스역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천지역 전체를 코스모스와 메밀밭 그림으로 색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시설물(가로등, 의자, 벽면, 주변국도 이정표 및 도로 안내판 등)부터 시작해 북천을 상징화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더한다면 북천을 이미 다녀간 방문객들도 금세 다시 찾고 싶어질지 모를 일이다. 코스모스와 메밀밭으로 디자인 한 달력, 마우스패드, 책갈피, 향수 등 추억이 될 만한 기념품을 선보이거나 다음 축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혹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만하다. 이 외에도 코레일이나 파워 블로거들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질 좋은 거름이 될 것이다.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작목반 주민들과 지역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 아니던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 되어 단합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가꿔나간다면,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현장은 분명 향기롭고 보다 오래 빛날 것이다. 북천을 나오면서도 쉽게 가지지 않는 꽃향기의 여운이 꽤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은 벅찬 느낌도 그 희망과 기대 때문이리라.

<북천 직전마을 따라하기>

1. 농림부가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활용하여 고래실 논에 벼대신 코스모스와 메밀꽃을 심는다.
2. 경관농업으로 출발했지만, 직전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하나의 지역 축제로 발전시킨다. (예: 꽃 단지 조성, 50여종의 희귀박이 주렁주렁 매달린 조롱박 넝쿨터널 설치)
3. 과도기를 넘어서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축제장 공간배치 및 동선구성, 그리고 짜임새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계획한다. (예: 마당극과 학생들의 팝 공연, 그림그리기 대회, 조롱박 공예, 코스모스 탁본, 야생화 압화 등 참여 프로그램 강화)
4. 취약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소득원 창출을 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축제전문가가 선사하는 향긋한 봄 향기 사재산마을 두릅축제이야기

[전문]

네 가지 보물을 간직한 사재산이 품고 있는 아늑하고 인심 좋은 농촌마을, 사재산마을에서 봄 향기를 한 아름 선사하는 두릅축제가 열린다. 꽃보다 고운 연초록 새순의 아름다움, 코끝을 자극하는 싱그러운 향기, 달콤 씹사래한 미각, 사각사각 씹히는 소리까지 오감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두릅축제. 오롯이 순수한 마음으로 고향의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축제전문가로 거듭난 사재산마을 주민들의 세심함 덕분이다.

글 | 부숙진

지난 5월 축제기간 내내 내렸던 비는 다시 이곳을 찾은 가을에도 어김없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사재산마을**로의 입장을 환영하는 듯 말이다. 2003년, 이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7마리의 이리가족을 방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재산마을은 태고의 순수함과 청정함을 지닌 곳이다.

한우와 찌뽕으로 잘 알려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고지대에 위치해있는 사재산(四財山)마을은 4가지 보물, 즉 산삼, 석청, 참꽃나무, 전단토(식량이 떨어졌을 때 먹던 흙)가 많이 나 '이 산에서는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췄다. 예전에는 안흥리의 일부였으나 반으로 나눠 상(上) 안흥리로 바꿨다가 다시 이름을 줄여 지금의 상안리로 부르게 되었다. 100명이 채 안 되는 주민 대부분이 쌀농사 외에 두릅, 고추, 참나물, 더덕, 옥수수과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다.

고향의 정을 듬뿍 담은 두릅축제, 그 맛과 멋

(1) 성공적인 축제를 향한 걸음마의 시작

'두릅축제'가 열리는 곳은 안흥면 상안리 사재산마을이다. 상안리는 위쪽에 위치한 안흥이란 뜻으로 현재는 1리와 2리로 나뉘었으며, 사재산마을은 상안2리에 속한다. 사재산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수는 약 70여명. 지역주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감자나 옥수수와 같이 흔한 것 말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무엇일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사재산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은 대부분 국유림이며 그 중에서도 단연 두릅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이다. 주민 모두가 입을 모아 '두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두릅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축제를 시작해보자는 뜻을 모으게 되었다.

2007년 봄, 제 1회 두릅축제가 열렸다. 사재산마을이 1100헥타르 가량의 국유림에 대한 두릅채취권을 가지게 된 국유림협약을 맺은 이후 첫 축제를 맞이한 것. 1사1촌으로 연계하여 400명이 다녀갔다. 물론 외부지원은 전혀 없었다. 기자재를 구입하고 나뭇대로 열정을 다해 축제를 준비했지만, 800만원의 적자가 났다. 그리고 1년 후, 막 걸음마를 댄 주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첫 번째 축제를 뒤로 하고 두 번째 축제의 막이 올랐다.

제 2회 두릅축제에서는 500만원의 군 지원을 받았다. 단순히 사재산마을을 알려보자는 홍보목적 외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축제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지만, 주민참여가 좋지 않았다. 문제도

곳곳에서 노출됐다. 일단, 마을사업 대부분이 부역이라는 점. 과도한 부역은 힘들기도 하지만 마을주민 개인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두 번째 축제에서도 300만원의 쓰라린 적자를 봐야했다. 또한 두릅을 따러 갔던 많은 축제 참가자들이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3) 누가 봐도 영락없는, 우리는 축제전문가

2009년 제 3회 두릅축제를 맞이했다. 축제에 참여하는 마을주민에게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유료화 정책을 폈다. 너나할 것 없이 두릅축제로 모여들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축제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물론 세 번째 축제 때도 적자를 봤지만 이전에 비해 여러 가지로 얻은 게 많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3회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두릅축제는 철저히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오는 방문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축제 기간 중 지역민들의 두릅채취를 제한한 사실이다. 물론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었다. 다행이도 축제 결과가 좋았다. 1600여명이 사재산마을을 다녀갔고, 신바람 난 주민들도 더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였다.

2010년, 구제역의 여파로 축제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사재산마을의 농촌체험활동은 사계절 내내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민들의 역량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수준으로 무섭게 도약하고 있었다.

2011년 5월, 날씨 탓으로 일정이 연기되긴 했지만 기다리던 두릅축제는 제 4회란 타이틀을 당당히 앞세우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변화와 성장의 모습이 뚜렷했다. 3회 때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던 인건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급상승했고, 주민들은 그 가치에 걸맞은 보다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축제장을 이끌었다. 이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무엇을 해야 할 지 정확히 아는 눈치다. 방문객을 안내하는 노련한 모습과 빈틈없이 깎듯한 태도는 누가 봐도 축제전문가, 그 자체였으니 말이다. 두릅축제는 두릅 따기를 비롯해 두릅시식, 안흥찐빵 만들기, 맨손 송어잡기, 떡메치기, 전통두부체험 후 맛있게 먹기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출발이 좋아서인지 결과가 뿌듯했다.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4회 두릅축제에서 무려 27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 축제기간 동안 두릅은 1kg당 2만원에 판매되었고 총 900kg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모두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축제기간 내내 알갭게도 비가 왔지만 이를 동안 5000여명이 방문했고, 700여명의 방문객들은 끝까지 남아 축제현장을 지켰다. 그렇다. 성공이다.

축제초보에서 축제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1) 축제의 끝, 다음을 위한 개선과 준비의 시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축제가 끝났으니 회의합시다!” 마을회관으로 주민들이 모여든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한 동안은 다 내려놓고 무작정 쉬고 싶을 터. 사재산마을의 분위기는 달랐다. 축제가 끝나면 어김없이 열리는 회의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축제의 연장선이다. 두릅축제 후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잘 된 것은 뺀 나머지만 놓고 이야기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무엇이 문제였고 왜 그랬으며, 또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시간이다. 2회 축제 때에는 두릅을 따러 갔던 많은 참가자들이 중간에 되돌아왔다. 이유는 너무 멀어서였다. 도시민들이 다녀오기에는 코스가 너무 길었던 탓이다. 게다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은 산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거나 두릅을 제대로 따지 못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고심 끝에 두릅따기 체험은

2~3시간이 가장 적합하며 또 낮은 지역에서도 쉽게 두릅을 딸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의 두릅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나 가족끼리 참여한 경우, 힘들이지 않고 충분히 두릅을 딸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렇게 서로 마주하는 회의시간 동안 참 많은 의견들이 오고간다. 고쳐야 할 것들은 즉시 수정해 고쳐나가는 전문가다운 모습에 매년 새롭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는 언제 보아도 멋지고 훌륭할 뿐이다.

(2) 똑똑한 리더의 똑 소리 나는 능력

사재산마을이 있는 상안2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김희철 이장이다. 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기업 회장 못지않은 그의 마인드와 마케팅 능력 때문. 현재 두릅축제의 주 고객은 1사1촌, 1교1촌으로 맺어진 기관과 자매학교(60%), 그리고 일반 관광객(40%)이다. 2011년의 경우, 도시민 2000명 접수에 지역주민은 70명 남짓이었다. 김 이장은 전략적으로 '찾아가는' 홍보 방식에 주력 중이다. 예를 들어 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방문, 체육대회나 워크숍 등으로 사재산마을을 찾게끔 연결시키는 것. 교육연구정보원이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등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기관은 1년 전부터 예산을 가지고 사재산마을을 찾는 학교가 상시 방문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중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고객이 사재산마을을 찾고 있다. 그들의 재방문율은 무려 80%. 김이장의 마케팅 능력은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재산마을만의 소중한 고객자료가 되고 있다. 물론, 해당 학교로부터 받은 농촌체험비를 모았다가 일부를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감사함도 잊지 않는다. 특히 서울 상경초등학교의 경우, 마을의 축제 기간 동안 40여명의 학생들이 찾아와 사물놀이 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흥을 돋우는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똑 소리 나는 능력으로 두릅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에게 축제 기간을 연장해 방문객을 더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1분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대답한다. 사재산마을 인원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고객적정선은 하루 2000명 정도이고 축제 기간 역시 두릅을 충분히 딸 수 있는 3~4일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방문객들이 지나치게 많이 올 경우 나중에 참가한 사람들은 두릅을 제대로 따보지도 못할 거라는 게 그의 설명. 현재의 이익보다는 철저한 두릅 관리과 방문객 배려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의 올곧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두릅 관리를 위해 축제 기간 5일 전부터 마을 주민 6명이 교대로 산에서 생활하며 산 지킴이를 할 정도라고. 이처럼 도시민 방문객의 비율을 높여 도농교류라는 축제의 차별화를 꾀하고, 비용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양질의 체험과 전문성 있는 주민 서비스를 통해 두릅과 찐빵 판매율을 올려 마을소득증진까지 이루겠다는 그의 야심찬 포부는 사재산마을의 성공적인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했다.

(3)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순간

사재산마을 주민은 모두가 한 가족이다. 말로만이 아닌 정말 한 가족인 셈. 한 예로, 손재주가 남다른 마을 사무장은 축제도 체험행사도 없는 한가한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마을 어머니들의 머리단장을 도맡는다.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 내 할머니의 머리를 예쁘게 만져주겠다는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꾸준히 하긴 힘든 일이다. 사재산마을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물론, 축제 기간 중에도 서로를 믿고 전적으로 일을 맡긴다. 물론 책임을 맡은 이는 누가 되었건 자신의 일에 열심이다. 두릅축제의 주민참여는 95%. 아픈 사람이나 급한 일이 있는 사람 빼고는 모두 참석한다는 이야기다. 축제 기간에만 반짝 나섰다면 어찌 그들이 축제전문가가 될 수 있었으랴. 하루 3만원이던 몸값이 10만원으로 훌쩍 뛰지도 못했을 것이며, 방문객이 너무 많아 다른 지역 부녀회로부터 30여명을 지원받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들은 어느 새 축제와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척척박사가 되어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나

이가 많은 할머니들은 부침개 담당인데, 전 부치는 것은 눈감고도 할 정도로 프로급이다. 여기엔 나름의 전략도 숨어있는데, 시골마을을 방문한 정감 있는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연출하기 위해 젊은 아주머니보다 할머니들이 낫겠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떡메치는 역할 역시 젊은 남자들이 아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의 몫이다. 이마를 질끈 동여매고 복장까지 갖추어 떡메치는 모습은 웬만한 장정 저리가라 할 정도. 방문객들에게도 꽤 인기가 높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은 노느냐,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30~40대 젊은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힘든 역할을 모두 도맡는다. 불평불만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점점 달인이 되어가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 정말 흐뭇하기 그지없다.

두릅축제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험코스를 분산시킨다. 젊은 방문객들은 장거리로, 가족단위나 노년층은 단거리 쪽으로 코스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시킬 만큼 노련한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배려한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축제 현장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풍경을 볼 수 없는데, 이는 100% 사전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 방문객들이 돈을 지불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대한 편하게 축제를 즐기며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해발 700m의 고지에는 사재산 펜션이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 주민들은 이곳까지 오르는 길에 2개의 비닐터널을 만들었다는 사실. 축제기간뿐 아니라 숙박을 원하는 방문객들이 겨울철에도 불편함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주민들의 배려와 온정이 묻어나서일까. 펜션위에서 내려다 본 전경은 정말 기막히게 아름답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두릅축제의 재방문률은 무려 80%에 이른다. 결과가 이렇다보니 축제전문가로 발돋움 한 사재산 주민들의 자부심이 실로 대단해질 만하지 않은가.

자연과 하나 되는 도농의 만남, 그 아름다운 풍경

사재산마을에서의 여유를 뒤로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다. 계속 내리던 비도 그쳤고 비에 씻긴 상안2리의 입간판은 더욱 선명하게 와 닿았다. 자그마한 시골축제였지만 사재산마을의 두릅축제는 분명 차별화되는 특별함이 전해졌다. 국유림 관리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못 느끼던 필자의 생각이 달라졌을 정도니 말이다. 5만여 평 되는 국유림에 자연산 두릅을 식재해 임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소득창출까지. 여기에 축제를 연결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의 단합됨을 통해 먼저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성공적인 축제도 있고 성공적인 도농교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사재산마을에서 배운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전문가다운 태도와 자부심으로 두릅축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재산마을 주민들의 작품을 내년 봄에도 기대해본다.

<사재산마을 따라하기>

1. 지역주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두릅을 선택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를 연결시킨다.
2.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축제에 참여하는 마을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유료화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3. 1사1촌, 1교1촌으로 맺어진 기관과 자매학교를 마을로 끌어들이고 그들로부터 파생된 가족단위 고객이 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예: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4. 도시민 방문객의 비율을 높여 도농교류라는 축제의 차별화를 꾀한다. (예: 도시에서 오는 방문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축제 기간 중 지역민들의 두릅채취는 제한한다)

5.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 (예: 축제 후 모든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사재산마을 인원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고객적정선은 하루 2000명 정도이며 축제 기간은 두릅을 충분히 딸 수 있는 3~4일이 적당하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6. 마을 주민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믿고 격려한다.

수두리 주민들의 눈물과 웃음으로 점화되다

봉수대축제

[전문]

비단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저 멀리서 봉화산 봉수대에 연기가 피어오를 것 같은 마을. 이름 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비단강숲마을에서 신라시대 봉수대에 불을 지펴 봉화를 피우는 장면을 재현하는 봉수대축제의 막이 오른다.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주민마당극을 비롯해 갖가지 이색 체험 행사들로 한바탕 흥겨운 놀이가 시작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새 따스한 온기로 가득하다. 그것이 봉수대축제가 전하는 삶의 노래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글 | 부숙진

비단강을 따라 숲마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유유히 흘러가는 비단처럼 아름다운 금강을 끼고 숲마을로 들어가니 심장이 쿵쾅댄다. 비단강 뿐만 아니라 신라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고 있는 숲마을은 마치 삼국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할 만큼 오랜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비단강숲마을**. 이보다 아름다운 마을 이름이 또 있을까? 유명 작명인이 지었냐는 필자의 우문에 “예전 부면장이 비단 금강과 양산숲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의 숲머리를 따서 비단강숲마을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사무장의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 이 예쁜 마을에는 57가구가 서로 도우며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비단강 따라 봉수대축제가 열린다

(1) 되살린 역사의 가치가 새롭게 점화되다

봉수대축제가 열리는 곳은 양산면 수두리 비단강숲마을. ‘충북의 작은 설악’이라 불리는 해발 385미터 봉화산 정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모두가 숨죽이며 점화과정을 지켜보던 것도 잠시. 이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와~”하는 감탄사가 거대한 함성이 되어 산 전체에 울려 퍼진다. 엄숙하면서도 흥분되는 분위기, 바로 봉수대 점화의 순간이다. 2008년, 오래전에 무너져 터만 남아있던 곳에 수두리 주민들이 직접 주변의 돌을 이고 지어 날라 직경 4미터, 높이 4.3미터의 봉수대를 복원했다. 비단강숲마을 추진위원회가 2007년 1월부터 2억 원 가량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다목적 체험관 외에 봉화산 등산로 정비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봉화산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접경 지역이라 치열한 전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때 이 봉수대를 이용해 서라벌까지 각종 통신을 주고받았다고. 그만큼 봉수대는 뛰어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기에 수두리 주민들에게 봉수대의 복원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 과업이었다.

(2) 가슴 시린 우리 이야기, 우리 삶의 노래

2009년 가을, 제 1회 봉수대축제가 열렸다. 봉수대의 복원을 기념하고 아름다운 숲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축제라는 도구는 꼭 필요했다. 그러나 봉수대만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기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말 그대로 차별화 요소를 찾아내야 했고, 테마를 정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결론은 주민마당극이었다. 마당극의 내용은 주민들의 삶, 그 자체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찾고자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은 하나 둘씩 어린 시절 추억들을 조심스레 꺼내 놓기 시작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품어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삶의 이야기들 말이다.

“월사금이 없어 학교를 못 가게 됐을 때 엄마만 붙잡고 조르다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 울음을 터트린 철없던 나였지”, “허구한 날 술타령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 마음이 누렇게 타들어 가는 나락의 처지와 다를 게 없다 생각 했었어”, “마누라 잔소리에 괜스레 엄한 소꼴을 내리치는 바람에 귀하디귀한 우리 황소 누렁이만 시뻘건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 “고추랑 마늘 팔러 읍내 장터에 나갔다 주막에서 한 잔 걸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배가 고픈 거야. 헤엄쳐 강을 건너겠다고 술김에 물에 들어갔다 허우적거리는 바람에 전대는 둥둥 떠내려가고, 겨우 목숨만 건졌다니까”, “촌에 시집간 새색시 시절이었지. 낫선 농사일에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겨울 냇가 이불 빨래에 젖먹이 시동생 젖동냥에... 것도 모자라 시어른의 타박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몰래 속울음 삼키던 일이 어디 한 두 번이겠어” 한 번 풀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보따리는 도통 끝맺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야기 속에 맺혀 있던 앙금까지 쏟아내며 개운해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저런 사연들에 울고 웃으며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스하고 소중한 우리네 삶의 풍경을 그려본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렇게 모이면 정겹고 즐거울 것이리라.

(3) 말 많고 탈 많던 주막거리의 탄생

주민마당극으로 깔끔하게 결정을 봤으니, 이제 우리만의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지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주목할 ‘꺼리’를 찾아야 했던 것. 그래서 얻은 결론이 주막거리다. 양산면 수두리는 비단강(금강)을 사이에 두고 강의 안쪽 마을과 바깥마을을 연결해주는 세월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뗏목을 타고 왕래했었다. 또 무주 등지에서 벌목한 나무를 금산과 옥천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한양을 오가던 많은 뱃사공과 벌목꾼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주막거리였다. 비단강숲마을 주민들로만 이루어진 마당극 ‘주막거리’의 탄생.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좋을 순 없었다.

주막거리 구성을 위해 인근 자계촌의 박창호 촌장을 초빙했다. 생업을 잠시 뒤로 미루고 어렵사리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은 촌장에 의해 탄생한 대본을 손에 쥐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보이지 않았다. 마음 급한 촌장은 수소문 끝에 콩밭으로 직접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콩 타작에 열중하던 주인공은 곁에 서서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고 있는 촌장을 발견하곤 적반하장 격으로 몰아붙인다. “뭣 하러 예까지 오셨수. 아따, 오늘 타작을 안 하면 선상님이 책임질꺼감? 요새 콩 금이 얼마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서 있는 촌장에게 잠시 후 주인공이 들이민 것은 시원한 꿀물과 속이 짝 찬 곳감 한 개. “인자 얼마큼 했응께 꿀물 한 잔 자시고 가셔유” 그리고 나선 어느 틈엔가 꿀 한 병을 촌장에게 건넨다. “별거 아녀. 틈틈이 뒷산에 올라 받아 놓은 거. 아까 내가 헛 말에 맘 상해하지 말어” 족히 몇 십 만원은 되어 보이는 순수 토종 벌꿀. 귀한 마음을 받아 든 촌장의 눈가가 어느 새 촉촉해졌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 연습합시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주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글을 모른다며 못하겠다고 뉘쳐나갔다. 설상가상이다. 연달아 지뢰가 터지듯 곳곳

에서 사건사고가 터지기 시작했다. 역할이 맘에 안 든다며 다른 역을 하겠다고 고집피우는 어르신, 중얼 중얼 대본을 읽다가 갑자기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언성을 높이는 어르신들... 도무지 정리가 안됐다.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그 모습을 몰고러미 바라보던 촌장이 결국 벌떡 일어나 팽과리를 쳤다. ‘팽~’ 갑작스런 팽과리 소리에 순간 침묵이 흐르고, 한 명 두 명 북과 장구를 따라 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신명나는 풍물 한판이 벌어졌다. 땀에 흥뻑 젖은 어르신들 모두 풍물단의 주인공이었다. 잠시 뒤 이어진 촌장의 한 마디. “우리, 마당극 그만 둘까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안 된다며, 미안하다고 난리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쩌냐”, “저녁까지 실컷 일 하고 이 시간에 잠깐 신나게 웃고 떠들고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살라고”... 주민들의 반응을 묵묵히 지켜보던 촌장이 장구를 잡았다. 그의 입가엔 따스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연습은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 한명 한명은 마당극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부족한 농촌일손 탓에 바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3개월간 무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대본 연습 일정을 소화한 것은 물론, 소품도 직접 만들었을 정도. 이렇게 피나는 연습과 결과, 그들의 첫 마당극인 ‘주막거리’가 무대에 올랐다. 비단강숲마을 주민들만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흥겨운 잔치 한마당

(1) 주막거리 안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세

[박스-마당놀이 한 장면]

갑자기 최씨가 등장하고 아낙6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큰 떡메를 들어 소 면상을 내려 친다. 소뿔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서 시뻘건 피가 하염없이 솟구친다.

아낙6 : 아이고 이게 뭘 일이라? 왜 엄한 소는 잡고 난리여.

아이고 어쩜 좋아. 이 피 좀 봐. (최씨를 향해) 그러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허 봐, 이 웬 수야!

상쇠 : (쇠를 두드리며) 자! 자!

이젠 서방들 잡겠네. 서방들 잡겠어.

아낙1 : 그러. 하다 보니 우리 서방님들 너무 안 됐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서방인디... (최씨를 보며) 아니, 그 떡메는 이제 그만 내려 놔유. 다들 수고들 험슈. 그란디 이왕지사 소 잡은 거, 여서 큰 잔치나 한 번 벌려 봐?

상쇠 : 거 좋제.

모두들 마당판을 돌며 격 없이 신명나게 한바탕 논다.

주막거리의 한 장면이다. 봉수대축제를 장식한 주민 마당극에는 그야말로 우리네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그래서일까.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었다. 주막거리는 2009년 제 1회 봉화산봉수대축제 기념공연으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농어산촌여름휴가페스티벌’에서 초청공연을 하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왔다. 단체버스를 이용해 대규모의 관광객이 몰

려들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단위의 방문객들도 수두리마을을 다녀갔다. 봉수대에 피어오른 연기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로 점화된 연기가 꽤 멀리까지 달았나 보다.

(2) 축복받은 봉화산이 안겨준 최고의 선물

양산면 수두리는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고 일교차도 꽤 심하다. 그래서 감이나 포도가 잘 자란다. 게다가 봉화산과 비단강, 그리고 양산들녘은 하늘이 준 큰 선물. 이렇게 축복받은 자연 덕택에 숲마을 축제장에는 산, 강, 벌 이야기가 많다. 이는 봉화산과 비단강을 바라보며 바람에 의지해 달리는 2인용 자전거 체험을 통해 쉽게 입증된다. 아울러 축제기간에는 첫 메인행사인 봉수대점화식 외에도 사과와 포도, 감으로 유명한 영동지역만의 과일 따기와 잼 만들기 체험, 와인을 넣어 만든 명품 족욕 체험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한편, 부녀회가 직접 콩밭에서 재배해 만든 비단강 엄마밥상의 청국장 맛은 외국인까지 다시 찾게 할 정도. 올해도 김치만들기와 청국장 다지기는 최고의 축제상품이었다. 특히 하우스 안에 심어놓은 11가지의 식용 허브와 채소를 캐는 산채 체험장은 어린 손님들에게, 펄펄 날아다니는 메기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과 뱃사공이 되어보는 뗏목체험 등은 단체 방문객들에게 단연 인기다.

이처럼 봉수대축제는 ‘차려놓은 밥상에 올린 나물 밖에 안 된다’는 마을 어른들의 겸손한 이야기처럼, 숲마을이 지닌 자연환경 그 자체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복 받은’ 잔치 한마당이었다.

(3) 즐거운 교육의 힘은 황소도 춤추게 한다

봉수대축제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주민마당극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극복해나가는, ‘공동체회복’이란 특별하면서도 따스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비단강숲마을에도 갈등은 있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고 풍물로 날려버리며 연극으로 재탄생시킨 것은 교육을 통한 정신무장 덕분이다. 일주일에 한번 임원회의가 소집되고, 한 달에 한번은 주민회의를 갖는다. 말이 회의일 뿐이지 모임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대청소를 하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물론, 원활한 체험관광을 위해 역할분담을 하며 교육을 받는 특별한 시간도 잊지 않는다.

재미있는 말도 생겼다. 비단강숲마을 주민들이 외치는 서비스 언어가 그것인데, 바로 ‘미·인·대·칭’이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로 풀며, 서로 칭찬한다는 뜻이다. 즐거운 교육덕분인지 방문객을 대하는 자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아주머니 한 분은 축제장을 벗어나는 어린이 손님을 따라가 “재미있었어? 우리 어린이들이 즐거워야지. 다음에도 꼭 와”하며 정겨운 팬서비스를 펼친다. 수두리 주민 80%로 이루어진 풍물단의 장단에 맞춰 오늘도 비단강숲마을의 황소는 춤을 춘다. 즐거운 교육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꺼지지 않을 봉수대축제의 아름다운 연기

1, 2회 축제 모두 2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숲마을을 찾았다. 2010년 제 2회 봉화산봉수대축제에서는 코믹 ‘흥부놀부전’을 비단강숲마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 기념공연에 올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11년 가을, 제 3회 봉수대축제의 막이 올랐고 어김없이 봉화산에는 봉수대의 연기가 길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축제의 성공요인인 비단강숲마을의 명물, 주민마당극을 비롯해 이 마을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들을 떠올리니 오감이 즐거워진다. 그리고 나선 다시 한 번 비단강을 찾겠노라 되뇌며 비단강을 따라 이번에는 서울로 향한다. 먼발치에서 봉화산에 피어오르는 봉수대 연기를 바라봤다. “봉수대축제가 머지않은 미래, 우리 농촌축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지?” 당연한 믿음과 확신에 벌써부터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비단강숲마을 따라하기>

1. 신라시대 봉수대 원형이 복원된 봉화산 봉수대를 정화하며 지역만의 특색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2. 축제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2회씩 모여 축제를 준비한다. 특히 마을주인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마당극과 방문객들을 위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주목할 ‘꺼리’를 만들어간다. (예: 봉수대탐방, 뗏목타기, 물고기잡기, 손두부·과일잼·곶감 만들기, 포도밟기, 떡메치기, 주민마당극 등)
3.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에서도 차별화를 꾀한다. (예: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고 품물로 날려버리며 연극으로 재탄생시킴. ‘미·인·대·칭’이란 서비스 언어 개발)
4. 농촌체험 축제인 봉화산 봉수대축제를 통해 수두리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나선다.

거버넌스를 통한 자립적인 마을로의 비상 남포들녘마을

[전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까마득하게 아득한 평야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진 남포들녘마을에서는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풍부한 자원들을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내부적 발전을 도모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도농간의 원활한 교류 등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야무진 전략가다운 면모를 갖췄다. 그것이 남포들녘마을로 하여금 비상을 꿈꾸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다.

글 | 이승형

하늘과 땅이 만나는 풍요로운 지역, 호남평야의 중심에 위치한 남포리의 남포들녘마을은 이제 막 벼이삭이 패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코스모스가 수줍은 듯 하늘거리며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다. 남포리에 들어서면,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해발 30m 높이의 우산(牛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드넓게 펼쳐진 평야가 눈에 들어온다. 최근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활기를 찾고 있는 새만금 사업지구와 연결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남포들녘마을은 풍부한 농토와 온난한 기후, 용수, 일조량 등 농사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남쪽의 바닷가에 있는 포구라는 뜻으로 남포라 불렸으며, 과거엔 만경군 남이면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현재의 고흔리, 나시리의 각 일부와 남일면의 양지리, 도하리의 각 일부를 합한 남포리라는 이름으로 김제시 성덕면에 편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변화를 꿈꾸다

(1) 자부심을 높이고 인재를 키우는 야무진 전략

아쉽게도 남포들녘마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탄성을 자아낼 만큼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부적인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해 축제를 기획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마을에 재미와 활력을 안겨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농촌청년회의 활동을 돕고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청장년회를 구성한 것은 물론, 인재양성을 위해 '우산장학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천만 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1996년 이후 초·중·고생 25명에게 각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또한 전통은 살리고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 남포리민 화합잔치, 남포리 경로 효 잔치 등 마을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공동기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

지역사회 봉사와 마을 인재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잊지 않았다. 1984년, 주민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마을문고인 남포문고(현재 희망남포 작은도서관)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 그 시작인데, 초기의 남포문고는 열악한 수준이었다고.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도서를 보충하기 위해 새마을문고김제시지부 및 농촌지도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3천여 권의 도서를 확보하기도 했을 정도. 이렇게 농촌마을 도서관으로서의 남포문고는 어린이 독서지도와 도서관리, 그리고 우량도서 확보와 독자 관리라는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결과는 눈부시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시도예선에서 개인, 단체, 일반, 학생, 문고운영 부문의 최우수상을 휩쓴 것은 물론, 중앙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교양활동에 일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변화도 뚜렷했다.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남포문고는 총사업비 1억 원을 들여 23년간의 묵은 옷을 벗고 희망남포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문고로서, 농촌지역에서는 보기 드물 만큼 매우 활성화된 작지만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 2010년에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낡은 이동도서관 차량이 새롭게 교체됐다. 지방의회 의원과 행정당국을 설득해 총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확보한 덕분에, 도서는 물론 동영상 관람까지 가능한 35인승 이동도서관 전용버스를 완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9월1일부터 이 쾌적한 차량은 이동도서관이 되어 운행 중이다. 김제시 이동도서관 회원들을 위한 도서대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다.

(2) 내부적 역량강화를 통한 눈부신 도약

남포들녘마을 주민들의 내부적인 활동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거름이 되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한 이후 600, 800, 1500명을 넘어 2010년부터는 연평균 2500명 이상의 인원이 농촌문화체험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체험관련 매출액을 1억3천만 원(2008년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주민 화합과 참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남포들녘마을이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변화를 이룬 것이다. 지역 특성인 농경문화에 기반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동시에 인근 부량면 벽골제 및 전주 한옥체험과 연계하여 농촌체험을 위탁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마을축제와 도농교류사업의 추진을 통한 남포들녘마을의 변화와 성장은 출향민과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이끌어냈는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8가구 68명이 귀농했다. 귀농인, 귀촌인은 그들이 사회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마을 소득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 모두가 행복한 도농의 조화를 꿈꾸다

외부의 다양한 기관 및 개인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마을사업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정도 남포들녘마을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지난 2000년 6월, 남포들녘마을은 컴퓨터 교육지원 봉사단체인 강사지원단 전북동호회와 자매결연 맺고 중고 PC 10대를 지원받아 2005년까지 5년간 지역주민에게 인터넷검색, 문서작성 등 컴퓨터 교육을 추진해왔으며, 이것이 남포정보화마을 태동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김대용 교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PC 활용 교육을 진행한 이후에도 남포들녘마을의 각종 사업에 자문역할을 담당하며 마을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의 제자들인 원광대학교 행정전산연구회 역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여름농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컴퓨터 교육과 PC수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중이다.

남포들녘마을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2006년 서울 송파구 풍납1동, 서대문구 홍은2동 동민들과 연계한 10회의 도농교류 활동으로 이어졌고, 2008년에는 (주)KT 김제지사와 자매결연 맺어 대형 선풍기5대 등 2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으며, KBS TV 한가위 한마음한마당 특집 프로그램에 1사1촌 전 남북 대표로 참가해 전국에 방송되기도 하였다.

한편, 남포들녘마을의 남포문고는 2002년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와 자매결연을 인연으로 도서관관리 프로그램, 신간도서, 컴퓨터, 노트북, 전문이동도서차량 등을 기증받았으며, 상호간 인적교류와 체험활동 등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새마을문고 금천구지부와 자매결연 맺고 3백만 원 상당의 신간도서 200권을 기증받았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지속적인 방문으로 이어졌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2009년도 도시학교 4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맺은 후 이들 기관과도 매년 10회 이상의 도농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성공 DNA를 품은 남포들녘마을

(1) 하나 되어 꿈꾸는 마을의 미래

남포들녘마을이라고 해서 매사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한 가구가 아닌 다수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에 노출되기 마련. 게다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정신이란 무기가 있었다. 또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사실도 칭찬할 만하다. 80년대부터 조직되어 온 자생조직인 청장년회, 부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은 마을의 발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마을사업 하나하나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노력하는 자조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마을 리더들의 희생과 리더십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남포정보화마을 위원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이면서 희망도서관장인 오윤택위원장은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변화가 느껴지면 적극 대응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들 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게끔 만드는 힘을 지녔다. 희망남포작은도서관, 마을축제, 농촌체험, 다양한 정책사업 등이 오윤택 위원장의 예견과 추진력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리더의 숨은 노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나 된 남포들녘마을은 도농교류, 농산물의 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란다. 남포들녘마을의 지속성을 위해 꿈나무를 키워나가며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수려한 경관도, 변변한 시설이 없더라도 인재 육성이 잘 되어 있다면 마을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일찍이 깨우친 결과다. 오랜 시간동안 마을의 목표를 위해 인재 육성이라는 중책을 담당해온 희망남포작은도서관. 그래서일까. 이 작지만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남포들녘마을의 희망을 엿본다.

(2) 자립적인 마을로 성장하다

남포들녘마을은 수많은 기관과 협력체계를 맺고 있으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관계설정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매우 협조적이고 끈끈한 관계다.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원광대 김대용교수의 제안으로 들녘농촌체험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광대 컴퓨터동아리 학생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지역의 손용대씨는 7년째 농촌체험단(초, 중, 고교생)을 이끌어오고 스스로 진행자 혹은 보조 진행자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 **금천구지부**, 서울지역 주민조직 등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도농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남포들녘마을은 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마을의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정확하게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협조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해가며 마을사업을 이끌고 있는 남포들녘마을은 자립적인 마을로 커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기에 더욱 주목받을 만하다.

비상을 위해 오늘도 허물을 벗다

호남평야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전형적인 들녘마을로서 향도이촌과 생활고로 활력을 잃어가던 남포들녘마을에 분 변화의 바람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마을 리더의 희생과 리더십을 통해 주민들의 생각과 습관이 변한 것은 물론, 허물을 벗고 꼼꼼히 체계를 구축해가며 함께 비상을 준비하는 중이다. 마을 내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연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꿈나무들과 함께 도농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꿈. 남포들녘마을 주민들 모두 희망에 찬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언젠가는 허물을 벗고 화려한 날갯짓으로 비상하리라 확신한다.

<남포들녘마을 따라하기>

1. 수려한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자원, 인적 자원의 부재를 인지하고 내부적인 조직을 결성, 마을공동체 유지와 주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을 모색한다.
2.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변화를 이룬다. (예: 농경문화에 기반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농촌체험관광사업 실시, 마을축제와 도농교류사업의 추진 등)

3. 마을의 영속성을 위해 인재육성에 힘을 쏟는다. (예: 희망남포작은도서관(구 남포문고)를 통해 꿈나무를 키우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3. 외부의 다양한 기관 및 개인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한다.
4.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자립적인 마을로 커가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건강한 자연을 품고 있는 힐링마을 안덕마을

[전문]

자연의 넉넉한 품안에서 건강을 챙기며 가장 친환경인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전북 완주에 자리한 안덕마을이 정답이다. 한때 급속히 찾아온 고령화로 쇠퇴의 길을 걸던 안덕마을은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는 자연과 한방 상품을 엮어 승부수를 띄웠고,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이 성공에는 거대한 거버넌스 조직이 동행하고 있다.

글 | 이승형

깊어가는 가을의 토요일 오후, 찾아간 곳은 전북 완주군 모악산 남쪽자락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안덕마을이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출발하여 모악산을 지나 안덕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전주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빠져나오자 주변은 온통 오색으로 물들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안덕리로 접어들면 가장 먼저 배산임수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장파마을과 마주할 수 있다. 장파마을을 지나 안덕파워영농조합까지 가는 길목에는 요초당, 향토방, 넓게 조성한 주차장 겸 광장, 농가주막, 퍼머컬쳐대학, 토속한증막, 유기농웰빙식당, 향토관 등이 즐비해있는데, 여기서 1km 더 올라가면 안덕마을만들기에 주요 자원인 민속한의원이 자리해 있다.

안덕마을은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위치한 원안덕, 미치, 신기, 장파 4개 마을을 총칭한다. 대부분의 농촌마을과 같이 젊은이들이 이농하면서 가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140가구 278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노인으로 젊은 주민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오지의 산골 마을이다.

공동체설립을 향한 아름다운 집념

1) 선진 사례에서 찾은 희망

안덕마을은 전주시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경작지가 넓지 않아 농업을 기반으로 한 소득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전주시와 가깝다보니 몇 명 안되는 젊은 사람들이 전주로 취업하면서 마을은 점차 피폐해졌다. 현재 안덕마을의 유명배 촌장도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귀향했는데, 귀향 후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완주군 공무원들과 마을 주민 5명이 함께 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진안을 견학하게 되었다. 여기에 참석했던 유명배 촌장은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안의 마을만들기 성과와 농촌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보니 우리 안덕리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함께 견학한 다른 주민들도 진안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주민이 힘을 모아야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사는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서로 의견을 모아 안덕마을의 공동체 설립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힐링 체험마을

1) 마을 속 자원이 경쟁력

뜻을 세우고 나면 하늘이 돕는 것일까? 완주군에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마을 사업인 ‘파워빌리지’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이를 기회로 삼은 안덕마을은 우선 이 사업에 ‘소풍가고 싶은 마을’이라는 테마로 참여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파워빌리지 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으로 시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예상만큼의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안덕마을의 특성과 자원에 기반하지 않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운영이 없었던 것도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농촌마을과는 차별화되는 안덕마을만의 자원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시선이 꽂힌 곳이 바로 민속한의원이었다. 마을 인근에 자리한 민속한의원은 매년 그곳을 찾는 방문객의 수만 매년 3~4만 명에 이를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 이 한의원을 찾는 고객들을 마을로 끌어들이 소비활동을 유인한다면 기존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보다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마을 테마를 ‘소풍가고 싶은 마을’에서 ‘건강·힐링 체험 마을’로 변경하고 민속한의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민속한의원의 이상호 원장도 마을발전을 위해 민속한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속한증막의 운영권을 장기에 걸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었다. 이렇게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 공동체 설립을 위해 주민 설득에 돌입했다. 건강·힐링 체험교실 운영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조직인 영농조합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 설립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참여를 이끌기 위해 주민들과 또다시 진안을 비롯해 일본 등 성공사례가 되는 마을들을 견학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다. 결국 주민 53명이 뜻을 모으고 1억3천5백만원을 출자해 ‘안덕파워영농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공동체 설립 계획부터 법인 등록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이다.

2) 건강한 에너지도 상품이 된다

2009년 1월 설립된 안덕파워영농법인은 첫 번째 사업으로 힐링체험교실 참가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황토민박집과 한방건강교실 강의장인 요초당을 건립하고 산책길을 조성하였다. 초기 투자비를 아끼기 위해 황토민박집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설계와 시공을 도왔으며, 요초당은 옛 서원건물의 자재를 활용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속한의원과 연계한 힐링체험교실을 통해 푸르른 자연의 품 안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친 몸과 마을을 달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배워 온몸 가득 건강한 기운을 담아갈 수 있다.

토속한증막은 느릅나무껍질, 솔뿌리, 당귀 등 10여 가지 한약재를 달인 물로 황토를 반죽하고, 솔잎과 썩을 배합해 만든 구들을 설치해 한증막에 열을 가하면 한약재 성분이 우려나와 환우들의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한증막에서 찜질을 마치면 과거 금광이었던 굴로 이동하는데, 그 안에서 시원한 바람과 물방울로 뜨거워진 몸을 식힐 수 있다. 토속한증막 바로 옆으로는 웰빙식당을 열고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직접 조리한 건강 채식 뷔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율담, 유향오리, 전통주도 맛볼 수 있다. 또한 특산물 직거래 장

터를 만들어 마을에서 직접 제조되는 죽염된장, 죽염간장, 죽염김장김치, 감효소, 표고버섯, 양해 등과 함께 타 마을의 농특산물까지 판매한다. 더불어 안덕리 4개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농장은 도시민들에게 주말 농장 및 체험 농장으로 제공해 추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 공동체 농장에서 재배되는 유기농채소는 마을식당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안덕파워영농법인은 이외에도 마을이 지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전통문화체험, 썩뜸 등의 건강 체험, 계절별 농사생태체험, 맞춤형체험 등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의 비상을 꿈꾸며

1) 4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

건강·힐링체험마을을 조성해 운영하자 전국에서 안덕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시나브로 늘기 시작했다. 2009년 2,700여명이던 방문객이 2010년에는 26,000여명으로 그리고 2011년(8월말기준)에는 31,000여명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2009년 5천9백여만원이던 매출이, 2010년에는 3억3천7백여만원으로 뛰었고, 2011년에는 8월말까지의 매출이 3억6천2백여만원이나 된다. 안덕파워영농조합의 다양한 사업은 마을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정규직 6명, 일용직 4명으로 10명을 고용하였으나 2011년에는 정규직 10명 일용직 14명으로 모두 24명을 고용했다. 마을주민의 정규직 채용은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고, 일용직 채용의 경우는 마을주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놀라운 성과는 그뿐만이 아니다. 마을사업 활성화로 인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6세대 14명의 귀농귀촌자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마을사업에 자문과 홍보 역할을 담당하며 마을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교육, 농업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인 '(주)이장'이 안덕마을에 입주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진행함으로써 상호간의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다.

2) 이제는 전문 경영인 시대

예상 밖의 놀라운 성과를 보인 안덕마을은 이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있어 타 마을에 귀감이 되는 우수 사례마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안덕마을은 마을사업을 시작한지 고작 4년째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있다. 안덕마을의 고유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큰 힘이 되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방향성없는 열정은 쉽게 와해될 수 있다. 보다 경쟁력있는 마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운영의 전문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완주군과 관련기관에서는 마을운영의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통한 방향제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많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로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키우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제 안덕마을은 다시 한 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체험프로그램과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다.

3) 안덕마을에서 배우다

첫째, 마을자원을 활용하라. 안덕마을은 마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마을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 민속한의원을 기반으로 건강·힐링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오염되지 않은 땅을 기반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마을 내 장을 잘 담당하는 여자 주민들의 솜씨를 이용해 죽염된장, 죽염간장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유영배촌장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경쟁에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안덕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마을의 리더의 육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라. 리더의 역할은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을 을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유영배촌장과 임도현사무장은 53명의 안덕파워영농법인의 조합원 한명 한명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인 이사회를 1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도 어떤 식으로라도 사업운영에 참여하게끔 유도했다. 마을 주민 중 8명을 한증막 체험프로그램 운영, 식당 운영 등 상근직으로 고용했고, 체험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늘어나는 일손은 비상근으로 역시 마을 주민을 고용하였다. 이렇게 고용을 늘려 일당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니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마을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마을단위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라. 과거 상의하달식 위계적 형태의 행정이 아닌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 내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안덕파워영농법인외에 완주군, 완주지역순환센터, (주)이장, 전문가 등 외부의 행정 및 전문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안덕마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인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마을현안을 협의하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마을 주민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조직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안덕마을 따라하기>

- 1 타 농촌마을과 차별화되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다.
(예 : 민속한의원을 기반으로 건강, 힐링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 2 마을 주민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특산품(죽염된장, 죽염간장 등)을 가공해 판매한다. 이때 마을의 네이밍을 잘 활용한다.
(예 : ‘안덕’이라는 브랜드로 상품화)
- 3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예: 안덕파워영농법인은 주민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각자의 조합원을 법인 임원이나 혹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자로 발탁해 인력을 활용)
- 4 체험 프로그램에 최대한 마을 주민을 고용해 주민의식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5 마을단위 거버넌스를 조직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예 : 마을 내 현안을 처리할 때 안덕파워영농법인 외에 완주군, 완주지역순환센터, 사회기업, 전문가 등 외부의 행정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조직을 활용)

주민 교육을 통한 발전된 전통문화 전수운동 개실마을

[전문]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골이란 지명대로 봄이면 매화와 목련, 벚꽃이 지천에 피는 개실마을. 한옥 기와의 선을 감상하며 정겨운 돌담길을 따라 마을을 산책하다 보면 세월의 흐름이 절로 느껴질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고고한 선비정신의 개실마을이 전통문화 전수운동을 위해 의식을 전환하고 변화에 나섰다.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갖고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총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개실마을, 그 역사 깊고 인심 좋은 마을을 들여다본다.

글 | 정은실

개실마을의 행정구역 명칭은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이며, 조선중엽 영남사림학파의 종조인 점필재 김종직(金宗直:1431-1492)선생 후손(일선 김씨)들의 집성촌으로 350여 년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곳은 민속자료 제 62호 점필재 종택, 문화재 자료 제 111호 도연재, 유형문화재 제 209호 점필재의 문적유품 등 귀한 문화재를 간직한 마을이기도 하다. 무오사화(1498년 연산군 4년)때 화를 입은 문충공 점필재 선생의 6세손이 1651년경, 이 마을로 피신해 은거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마을에 꽃이 많이 피고 골이 아름다워 개화실(開花室)이라 했다가 음이 변하여 개실로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개실마을은 김종직(선산 김씨)후손의 세거지로서 마을 종손을 중심으로 협동·단결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마을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주민들 모두 근면 성실한 것이 특징이다.

350년 전통의 양반마을, 빗장을 풀고 손님을 맞다

1960~1970년대 당시 개실마을은 여느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농가가 빈농이었다. 유난히 산과 들이 많은 탓에 농사지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외부의 변화를 잘 수용한 것도 아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지붕개량 사업이 한창이던 그 시절, 마을회의에서 전통한옥을 보존키로 의결하기로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가구의 80% 이상이 전통한옥을 지금까지 보존해왔고, 이것이 지금의 개실마을을 존재케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농업소득은 어려워지고 점점 고령화되는 마을을 살리려면 농외소득이 필요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350여 년 전통의 양반마을이 아니냐. 양반마을 그 자체를 파는 게 어떨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자 전통한옥과 조상들이 남긴 것, 유품, 종택, 도연재, 모졸재, 추우재, 화산재 등은 물론 김씨5세효행사적비 같은 볼거리에 전통 그대로의 칠첩반상 같은 먹거리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개실마을만이 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상품화하게 된 것이다.

2001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빈집정비, 등산로 개설, 노인정 개·보수, 휴담·샘 보수, 개실각 신축, 상하수도 구축, 오수처리장 공사 등을 통해 마을환경을 보기 좋게 정리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2006년 4월

20일에는 농촌 체험장을 건립, 일시에 130명을 수용하고 체험과 연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며, 그 외 농산물직거래장, 정보화실, 회의실, 전통놀이마당, 공연장, 쉼터, 유물 전시관 등도 보유하게 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6년 12월 12일, 개실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문화관광부의 고택자원화 사업으로 11억 원을 지원 받아 열한채의 한옥을 민박으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첫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현재, 증가에서 전승되는 한과, 안주, 계절식 만들기 체험 및 판매, 충효·전통예절·한문·서예·관혼상제 등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중이다. 또한 전통 차 다도체험, 만들기 체험(대나무물총, 소리통, 연 만들기, 짚공예, 비누, 야생화 화분, 도자기 만들기), 전통음식 체험(엿 만들기, 유과 만들기, 국수 만들기, 두부 만들기, 떡 만들기), 농사 체험(딸기수확, 고구마수확(가을), 옥수수(여름), 모내기(봄)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그네뛰기, 디딜방아, 굴렁쇠, 윷놀이, 제기차기, 외줄타기), 자연 체험(미꾸라지 잡기, 얼음 썰매타기, 야생화 관찰, 싸움소 관람, 옛날 전설지 구경하기, 동물농장, 야생화화분 만들기) 등을 통한 보다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보이며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전통의 가치를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특별한 능력

(1) 집성촌 종손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유대감

양반마을이라 그런지 개실마을은 모든 것이 종손을 정점으로 시작된다. 종손의 말이라면 누구나 따를 정도다. 이것이 바로 개실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진풍경이며, 이런 특별함이 때론 강점으로 작용하곤 한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점필재 선생의 17대 종손이자 아름답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위원장이었던 고 김병식 선생을 중심으로 개실마을의 현재 구조를 완성시켰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따지고 보면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일가친척이다 보니 서로의 이해가 엇갈릴 때면 종손이 나서 중재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한 예로 사업 초기 땅을 구매해야 하는데 원래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해 난관에 부딪쳤고, 담장을 똑바로 해야 할 때에도 자기 땅을 양보 안 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 물론 종손의 중재로 해결되었다. 현재는 고인의 뒤를 이어 김병만 위원장이 동분서주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 중이다. 그리고 이젠, 그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개실마을은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후세에까지 그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는 한결 같은 바람 때문이며 그것이 개실마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마을을 단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각종 문화재들을 스스로 내놓았던 까닭도 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덕분에 수많은 마을의 소중한 자원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다. 여기에 마을발전 위원회, 사업추진 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그 힘을 보태고 있는데, 조직의 정비된 규약과 업무를 주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다. 그렇다. 개실마을의 힘은 피로 맺어진 공동의 유대감에서 비롯된다. 지역공동체의 성공은 그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 자원, 인적네트워크, 조직구성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마을이 바로 개실마을이다.

(2) 변화를 부르는 주민 교육의 힘

“잘 사는 마을이 되려면, 마을 주민부터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을 대표의 이런 생각이

그 시작이었다. 회의가 있을 때면 이전에 경험한 교육들을 통해 변화되었던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공유했고, “주민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의식의 전환을 독려했다. 그리고 나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은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농촌관광대학, 농업벤처대학, 삼성에버랜드 서비스교육 등 도농교류 및 마을개발사업 분야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교육의 경우, 마을 주민 전원이 서비스아카데미 전문 과정을 수료했을 정도. 현재 개실마을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농촌관광 전문가를 초빙, 주민의식 교육과 전문 학습 과정을 2개월 단위로 개강하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현장학습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의 의식변화에 힘쓰고 있다. 좋은 교육과정이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나 기타 의견도 접수하기 시작했다. 다음 교육을 요청할 때 이런저런 의견들을 전문가에게 보여주면, 그만큼 달라진 풍성한 배울 거리들을 철저히 준비해온다. 전문가들까지 긴장시키는 개실마을 주민들은 어느새 탄탄한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듯했다.

[표] 교육 요청서 사례

구분	상세 내용
목적	농촌 관광사업의 성공적 요인 및 사례
참여자	마을 주민 및 마을발전위원회 총 30명 평균 나이 70세
일정 및 장소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 교육 장소는 마을 회관
내용	농촌 관광 성공마을 사례 주민 서비스 사례 실패 요인
요구 사항	이론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것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할 것 노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신경 쓰고, 시청각 자료 활용할 것

(3) 갈등을 해소하는 개실마을만의 노하우

현재 이 마을의 13가구가 전통 한옥 민박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다른 민박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로 개실마을발전위원회가 민박예약, 배정, 입금 및 수익금 배분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사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위원장 감독 하에 사무장이 공평하게 13가구 골고루 방 배정을 한다. 예외도 있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홍시, 땅콩, 고구마를 대접하고 반찬도 챙겨주면서 정을 쌓다보면 재방문도 많아진다. 이 때, 꼭 집어 그 집에 묵게 해 달라는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사무장도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배정해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민박마다 50% 정도의 수익차이는 발생한다. 예약관리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안겨준다. 개실마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을 받기란 쉽지 않을 터. 개실마을발전위원회에서 인터넷 예약을 받아 각 민박집에 손님을 배

정해주니 편리하고, 임금과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깔끔하니 마을 전체가 화목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실마을도 처음부터 이런 훈훈한 모습은 아니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대치하기도 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위원회가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갈등을 공개화하고 공론화시키는 방식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럴 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서로간의 대화는 필수. 그래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신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원칙도 생겼다. 여러 의견을 듣고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면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편파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문제와 상황을 정리하면서 모든 주민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원인과 결과 또한 공유하여 일치시켰다. 그리고 여러 대안들 중 최적의 방법을 제시, 모두와 의견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개실마을의 변화도 바로 이러한 의견 공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농촌관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그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딸기농사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350년간의 양반마을 자체를 팔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뒤이어 “내게는 유품 문화재가 있다”, “나는 칠첩반상 비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느 새 한옥 빈집을 개관하고 개실각을 신축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졌으며, 우리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야심차게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 된 마음

어느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개실마을 역시 노령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김병만 위원장은 올 연말쯤 40~50대 마을 출신 외지인 100여명을 마을로 초청, 마을 설명회를 통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이다. 물론 위계질서가 엄한 집성촌이란 마을의 특성상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란 쉽지 않을 터. 일단 모두가 살기 좋고 즐거운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일방적인 희생도 아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의 개실마을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니 말이다. 투명한 회계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 능력,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구성원, 솔선수범하여 뛰어다니는 리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 간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개실마을의 자랑이다. 비록 노령화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다시 돌아와 이 마을을 지켜나갈 거라는 김병만 위원장의 확신 속에서 문화재가 숨 쉬고 희망이 살아있는 개실마을의 밝은 내일을 본다.

<개실마을 따라 하기>

1. 농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2.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350년 전통의 양반마을 자체를 팔기로 결정, 그 안에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뜻 깊은 의미까지 담아낸다.

3. 지역공동체의 성공은 그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 자원, 인적네트워크, 조직구성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4.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질 좋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도록 한다.
5. 갈등이 발생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갈등을 공개화하고 공론화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다.
6.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문화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
7. 마을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타 공무원 집단에 홍보 및 구전효과를 이루도록 한다.